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11.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September 2002

Table of Contents

• Paper •

[Kor.] Textual Criticism for Bible Translation -----	Chang-Nack Kim / 7
[Kor.]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	Kyoung Shik Min / 50
[Kor.] A Proposal for Coherent Transliteration of Hebrew Proper Nouns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	Dong-Hyun Park / 68
[Kor.] A Survey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ir Translation in the Korean Bible -----	Seong-sil Yi / 90
[Kor.] Literary style proposals for a Korean children's Bible -----	Mu-Yong Jeon / 115

성서 번역과 본문비평

김창락*

1. 번역가는 동시에 본문비평가인가?

여기에 요리사가 있다. 그는 닭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이다. 그가 지금 요리를 시작하려고 한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말 할 것 없이 그것은 닭이다. 요리사는 닭을 어떻게 구하는가? 아무 요리사도 닭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닭을 길러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닭을 기르는 사람은 양계업자이고 기른 닭을 파는 사람은 시장의 상인이다. 요리사는 시장에서 이것을 사다가 요리를 한다. 신약성서의 원본문(原本文, original text)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본문비평가를 양계업자에 비한다면 본문비평가가 재구성해낸 성서 본문을 책의 모습으로 간행하여 반포하는 사람을 출판업자에 비길 수 있다. 이 원문 성서를 사다가 자기 나라말로 옮기는 번역가는 시장의 진열대에서 닭을 사다가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여 요리를 해내는 요리사와 같다.

요리사의 과제는 생산된 닭을 요리하는 것이지 닭을 생산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요리의 성패는 요리사의 솜씨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닭을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 만약 요리사가 산란용 닭으로서 폐기처분된 폐계(廢鷄)를 모르고 사다가 요리를 한다면 그의 요리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의 요리는 실패작이 되고 말 것이다. 성공적인 요리를 하려면 그는 자기가 사용할 닭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 토종인지 개량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보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성서 번역자의 과업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할 그 원문 성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성서 번역자가 어떤 대본이 좋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본이 어떠한 비판 작업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그는 그 대본이 구축되기까지의 본문비평 작업에 관한 내막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한 얼마만큼의 지식은 성공적인 번역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렇지만 번역자는 전문적인 본문비평가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 그것은 닭 요리 전문가가 스스로 닭을 길러서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본문비평의 작업 대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원본문에 대한 판단 기준은 너무나 복잡 미묘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여러 갈래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본문비평 작업 자체에 일일이 끼여든다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야구 경기의 관람객이 경기를 잘 감상하는 데는 경기의 주요한 규칙을 알고 심판의 특정한 판정이 공정한 것인지 편파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서 번역자가 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번역하는 본문이 무슨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번역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이문(異文)들이 어떠한 증거로 지지되고 있는지를 알고 아주 드문 특수한 경

* 전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우에 스스로 본문비평적 결정을 새로이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어떤 번역가가 사역(私譯) 성서를 내려고 한다면 자기의 본문비평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해도 상관없겠지만 성서공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위임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본문비평적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선정한 번역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그 능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꿈에 좋은 신약성서를 번역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자. 이 사람이 이 계시를 따라 당장 번역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번역할 대본을 입수해야 한다. 그는 어디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대영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을 찾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서점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물론 서점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서점에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된 신약성서가 한 가지 종류만 놓여 있지 않고 발행자뿐만 그 내용까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성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가? 성서 번역자는 그 작업 착수의 첫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난제에 부딪친다. 그가 계시를 통하여 직접으로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 그는 자기의 모든 신학적 지식과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신약성서의 저자의 손에서 나온 원래의 문서 그 자체는 오늘날 하나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베껴 쓴 이른바 필사본(筆寫本)들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필사본만 셈하더라도 조그마한 조각들까지 합치면 수가 5,500개가 넘는다. 이 필사본들끼리 비교해 볼 때 본문이 똑같은 것이 단 두 개도 없으므로 어느 것이 원본문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인지 저절로 식별되지 않는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문서의 재생산은 오직 필사 작업에 의존했다. 그런데 필사 작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베껴 쓰려고 노력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낱말이나 어구를 누락하거나 반복하는 것, 어떤 낱말을 그와 비슷한 다른 낱말로 착각하여 바꾸어 적는 것 따위는 비고의적 실수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와 달리 필사자가 대본을 자기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고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난해한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쓰거나 어색한 표현을 좀더 정교한 표현으로 고쳐 쓰거나 어떤 낱말을 다른 낱말로 대체하거나 어떤 낱말이나 어구를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어떤 내용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리적 해석을 덧붙이거나 하는 것 따위는 비록 선한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적 변개(變改)에 속하는 것들이다. 인쇄술 이전 시기에는 각 지역에 따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른 필사본들이 그들 각각의 성격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불가타(Vulgata) 라틴어 번역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불가타 성경의 여러 가지 필사본들에 관련된 사정은 그리스어 필사본에 관해서 언급한 사정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필사본들의 가치는 한결같지 않다. 필사본들은 본문의 변경 정도와 변경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 가치를 몇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최고(最高) 양질의 필사본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오늘날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본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번역의 가장 좋은 대본을 구하기 위하여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은 쓸데없는 헛수고일 따름이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J. Gutenberg)의 인쇄술 발명으로 말미암아 신약성서의 본문 전송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동일한 본문으로 인쇄된 성서가 대량으로 단번에 유포될 수 있기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간된 것은 인쇄된 라틴어 성서가 출간된 지(1455년경)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이렇게 많은 해가 소요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어 활자를 주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사제나 주석가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는 라틴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소수의 특수한 학자들 이외에는 그리스어 원문 성서에 대한 수요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어느 누구도 기존의 그리스어 사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쇄해서 신약성서로 반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느 사본도 있는 그대로 성서로 사용되기에는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아직 아무도 어떠한 사본들이 어디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한 각 사본의 질이 어떠한 것인지도, 그 사본들이 질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출될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인쇄본으로 출간될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결점투성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제약성 때문만이 아니고 제작상의 조급성 때문이기도 하다.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에서부터 이른바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received text)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기간에 출간된 여러 가지 신약성서들은 본문비평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성서 본문을 구성하는 일을 제가꿈 담당한 학자 세 사람과 그들이 구성해낸 성서를 발행하는 출판업자 네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세 학자의 이름은 화란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칼빈(J. Calvin)의 친구요 후계자로 바젤에서 활약한 베자(Theodorus Beza), 스페인의 주교 겸 추기경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이며 출판업자의 이름은 바젤의 프로벤(Johann Froben), 파리의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 불어로는 Estienne라 부름), 화란의 라이덴의 엘제비어(Bonabentura & Abraham Elzevir)형제이다.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을 촉발한 사람은 바젤의 출판업자 프로벤이었다. 프로벤은 1514년 8월 바젤 방문 중에 있는 에라스무스에게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의 조속한 구축을 의뢰했다. 그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판을 급히 서두른 데는 그의 사업가로서의 안목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히메네스의 주도로 스페인에서 곧 출판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수(先手)를 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성서는 전체 여섯 권으로 구성된 다언어(多言語) 신약성서인데 1-4권은 구약성서이며 제5권이 신약성서로서 그리스어 본문과 불가타(Vulgata) 본문을 대조해 놓은 것이다. 이 성서는 『콤폴루툼 다언어 성서』(Complutensian Polyglot)라 한다. (이 성서의 제작에는 Alcalá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Complutum은 Alcalá의 라틴식 이름이다.) 사실 이 성서는 1514년 10월 1일에 인쇄가 완료되었으나 교황 레오(Leo) 10세의 재가를 받아 세상에 반포된 것은 1522년이였다. 그래서 이 성서는 실제로는 최초로 인쇄되었지만 최초의 인쇄본 성서였다는 영예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에라스무스는 1515년 6월에 바젤에 돌아와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을 조성(組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신약성서 사본을 입수해야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입수한 사본들은 12세기 이후에 필사된 몇몇 소문자 사본들뿐이었다. 이 사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신약성서 전체를 포함한 것은 없었다. 그는 주로 소문자 2번 사본을 앞에 놓고 다른 두세 개 사본들과 대조하여 몇몇 군데를 수정했다. 요한 계시록 사본은 그의 친구 로이히린(Johannes Reuchlin)에게서 빌려와야 했는데 불행히도 22장 16-21절이 들어있는 마지막 장(帳)이 탈락되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는 이 여섯 절을 불가타 본문에서 손수 그리스어로 역번역

(逆翻譯)하여 채워 넣었다. 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그가 번역해 내놓은 이 여섯 절과 일치하는 사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과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시록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특히 묵시문학과 관련된 본문들을 불가타 성서에 맞추어서 많이 수정했다. 이렇게 구축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1516년 3월 1일에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출간은 자료 수집 작업, 편집 작업, 인쇄 작업을 모두 합해서 채 1년도 안 되는 단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초판에 오식(誤植)이 수백 개나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에라스무스 성서는 3년 안에 3,300부나 매진되었고 나중에는 베니스, 슈트라우스부르크, 바젤, 파리 등지에서 비공식으로 30여 종류나 출판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성서는 거센 비난도 받았다. 비난의 가장 큰 근거의 하나는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담긴 요한일서 5장 7-8 절이 빠졌다는 것이며(그런데 이 구절은 제3판에 끼워 넣었다) 다른 하나는 에라스무스가 유려한 필체로 번역하여 제시해 놓은 라틴 역본이 불가타와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1519년에 제2판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루터(M. Luther)의 성서 번역에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제3판의 출간은 1522년인데 이 해에 『콤폴루툼 다언어 성서』가 세상에 반포되었다. 이 성서의 본문은 에라스무스 성서의 본문보다 우수했다. 왜냐하면 이 성서의 편집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고 십수년 이상의 긴 시간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용된 사본들은 에라스무스가 의존한 사본들에 비하여 질이 우수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곧 자기의 성서를 이 다언어 성서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했다. 그는 1527년에 제4판을 출간하면서 이 다언어 성서를 참조하여 요한 계시록에 90여 곳을 수정하여 내놓았다. 1535년에 출간된 제5판은 불가타 본문을 제거했다는 점 이외에 그리스어 본문에 관한 한 제4판과 다름이 없었다.

에라스무스(† 1536)의 사후에 파리의 출판업자 스테파누스(불어로는 ‘에스띠엔’)가 에라스무스 성서를 파리에서 세 판(1546; 1549; 1550), 제네바에서 한 판(1551)을 발행했다. 1546년 판과 1549년 판의 그리스어 본문은 에라스무스 성서와 다언어 성서를 혼합한 것이었다. 1550년 판은 본문비평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스테파누스의 제3판(=1550년판)은 에라스무스 자신의 제4판(=1527년판)과 제5판(=1535년판)의 본문에 더 가까웠다. 스테파누스의 제3판은 본문비평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이 제3판은 본문비평장치가 첨부된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라는 사실이다. 스테파누스는 제3판의 매쪽 여백 난에 14개 그리스어 사본들의 이문(異文, variant)들과 『다언어 성서』(Complutensian Polyglot)의 다른 읽기들(different readings)을 많이 수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3판은 특히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영국에서 1880년까지 ‘표준 본문’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스테파누스의 제4판(=1551년판)은 신약성서 가운데서 최초로 본문의 구절에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절(節) 번호가 기입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베자는 1565-1604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9번 발행했고 그의 사후에 또 한 번 발행되었다. 이 가운데서 네 판만(1565; 1582; 1588/89; 1604)이 본문 상으로 의존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판의 축소판이었다. 베자는 5세기와 6세기에 각각 생겨난 대문자 사본인 05번 사본(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06번 사본(Codex Claromontanus)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베자가 자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을 편집하는 데 이 두 사본을 조금도 이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에서 유별나게 빛나는 다른 하나의 성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베자가 발행한 성서의 본문은 스테파누스의 1551년 판 성서의 본문과 단지 조금밖에 다르지 않았다. 본문비평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베자의 공과(功過)는 에라스무스가 기초를 놓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이 하나의

표준 본문으로 굳어지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만일 베자가 자기의 두 대문자 사본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을 확 다르게 고쳤더라면 그 후로 300년 동안 본문비평가들이 이른바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썼던 노력과 마침내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용단을 내리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 평가는 에라스무스가 바젤 대학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했다더라면 이용할 수 있었던 E(08) 사본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도 역시 적용된다. 베자의 1588/89년 판본과 1598년 판본은 1611년 판 영어 『흠정역 성서』(KJV)의 번역 대본으로 크게 이용되었다.

화란의 출판업자인 엘제비어(Elzevir) 형제는 1624년과 1633년 두 번에 걸쳐서 회중판(懷中判)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했는데 그 본문은 1565년 판 베자 성서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었다. 엘제비어 형제가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제2판(1633년) 서문에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출판업자는 자기들이 출판하는 이 그리스어 성서는 모든 사람이 공인/용인/수용하는 본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전할 목적으로 이 어구를 사용했던 것이다(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 Therefore you have the text now received by all, in which we give nothing changed or corrupted = 그러므로 당신은(=독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개되었거나 훼손된 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출판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텍스트스 레셉투스라는 표현은 그 때부터 ‘공인 본문’, ‘참된 본문’, ‘표준 본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엘제비어 형제의 그리스어 성서는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서가 영국에서 공인 성서로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곧 유럽 대륙에서 공인 성서로 받아들여졌으며 1881년까지 중요한 개신교 성서번역의 대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스테파누스가 1550년 파리에서 출판한 성서와 엘제비어 형제가 1633년 화란의 라이덴에서 출판한 성서가 각각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텍스트스 레셉투스로서 그 권위를 300여 년 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만한 무지와 맹신 때문이다. 그들은 성서 사본들의 유형을 알지 못하며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사본들의 본문이 모든 본문들 가운데서 가장 변개가 심한 이른바 비잔틴(Byzantine) 본문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역지로 외면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은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심은 이제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들어 있는 자구(字句)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된 것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곧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변경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다.

본문비평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1516년에서 1633년까지는 인쇄본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간되어서 그것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지위로 확립되어 갔던 시기로서 비평이전 시기(pre-critical period)에 속한다. 1633년 이후부터 약 300년 간은 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허망한 권위와 맞서 싸운 투쟁 시기에 속한다. 이 투쟁 시기는

- 1) 이문(異文) 축적 시기(1634-1720)
- 2) 본문비평 방법론의 확립과 대안 본문 모색 시기(1720-1880)
- 3) 여러 새 비평본의 경쟁 시기(1881-1950)
- 4)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통합되는 시기(1950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1. 이문 축적 시기(1634-1970)

이 시기는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낱말 또는 어구와 다른 읽기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기간이었다. 월튼(Brian Walton)은 자기의 『다언어 성서』(1655-57)의 그리스어 본문이 적힌 각 쪽의 밑

바닥에 02번 사본(Codex Alexandrinus)에서 뽑은 다른 읽기들(different readings)을 적어 놓았으며 첨부된 별권에 비평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15개의 권위적 출처에서 뽑은 추가적 읽기들을 적어 놓았다. 02번 사본은 1627년에 알려졌는데 윌튼은 A라는 기호를 붙였다. A 사본(=Codex Alexandrinus)은 이제 다른 읽기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비평하는 저작에 제시하는 연구 활동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펠(John Fell)은 1675년 판 그의 신약성서에 100개 이상의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서 뽑은 이문들을 제시했다. 밀(John Mill)이 그의 1707년 판 신약성서에 설치한 방대한 비평장치는 21,000 이문 항목에다가 무려 31,000 이상이나 되는 다른 읽기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이문들의 이와 같은 엄청난 수량은 단지 보기만 하더라도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권위에 금이 가기에 충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본문비평의 몇몇 중요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마땅히 현대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창시자라 일컬어질 수 있다.

2.2. 본문비평 방법론의 확립과 대안 본문 모색 시기(1720 - 1880)

이문들의 수집 활동은 많은 반대 주장에 부닥치기도 했으나 신약성서의 본문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는 운동은 꺾이지 아니했다.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서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대체할 본문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노골화 되었다. 벤틀리(Richard Bentley)는 오리겐(Origen) 시대의 신약성서 본문을 재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스어/라틴어 신약성서의 『인쇄에 대한 제안』(1720)이라는 그의 글에서 그는 처음 5세기 간의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 교부들의 증거, 고대 번역본들의 증거를 채용하여 그 시기의 신약성서 본문을 구축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표명했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발표한 방법론적 원칙들이 미치는 영향은 중대했다. 이 원칙들에 입각하여 사람들은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막강한 권위를 느리지만 착실하게 허물어오던 그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읽기 가운데서 적절히 선택하여 새로운 비평적 본문(=‘비평적 본문’이란 비평작업을 통하여 수립한 본문이다)을 구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읽기들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법칙(=rules 또는 canons라 함)을 개발했다. 이 법칙의 개발은 텍스트스 레셉투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었다. 벤틀리의 제안(1720)이 발표된 이후 10년 사이에 본문비평 역사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작용한 작품이 둘 출간되었다. 그 하나는 벵엘(Johann Albrecht Bengel)이 1725년에 발표한 “선구자”(Prodromus)라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쉬타인(Johann Jakob Wettstein)이 1730년에 발간한 『서론』(Prolegomena)이라는 저서이다. 이 두 작품은 앞으로 그들이 각각 수행할 본문비평 작업의 법칙을 개진한 것이었다. 벵엘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은 1734년에 출간되었고 베트쉬타인의 두 권으로 된 방대한 저서는 1751-52년에 나왔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물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크게 보아서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제안한 법칙들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헌은 그들이 제시한 연구의 결과물에 있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연구의 법칙에 있다. 그들의 법칙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더 어려운 읽기가 더 우수하다”(difficilior lectio potior)는 법칙은 벵엘이 제안한 유명한 법칙에 속한다. 그는 1742년에 27개 법칙을 제시했다. 베트쉬타인은 19개 법칙을 내놓았다.

벤틀리, 벵엘, 베트쉬타인이 제안한 원칙들이 실제 연구에서 결실을 거둔 것은 그리스바하(Johann Jakob Griesbach)에게 이르러서이다(1775-77). 그리스바하는 벵엘과 베트쉬타인의 법칙을 많이 포함해서 그 자신도 15개 법칙을 제시했다. 그리스바하가 그의 세 선행자와 다른 점은 그의 비평 원칙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비평사에 하나의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

다. 그것은 그리스바하의 비평본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와 최초로 중대한 결별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 동안 존속해 온 텍스트스 레셉투스로부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떠나는 첫 걸음마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의 비평본이 텍스트스 레셉투스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텍스트스 레셉투스는 연구 작업을 시작할 본문의 토대로서 여전히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텍스트스 레셉투스와 선명한 결정적 결별이 이루어지는 데는 50여 년의 세월이 더 소요되어야 했다. 텍스트스 레셉투스와 깨끗이 결별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성서의 본문을 이전의 인쇄본들로부터 구성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장 오래된 증거들로부터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을 성취한 사람은 라흐만(Karl Lachmann)이다(1831). 그의 목표는 A.D. 4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그대로의 본문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본문을 완전히 제쳐놓고 그 대신에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 고대 라틴 번역들과 불가타, 그리고 오리겐, 이레네우스, 시프리아나와 같은 초기 교부들로부터 그 자신의 본문을 끌어내는 과감한 방법을 사용했다. 라흐만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현대적 비평본을 만들어 내는 일과 새로운 사본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두 가지 일에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티셴도르프(Constantine Tischendorf)였다. 그는 1841-72년 사이에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여덟 판 발행했고 가장 중요한 사본의 하나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을 위시하여 많은 사본(대문자 사본 18개와 소문자 사본 6개)을 발견했으며 기타 36개 사본을 편집하여 자기가 발견한 것들과 함께 수십 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1869-72년에 제8판으로 발행된 그의 대형 판 신약성서 비평본은 크기가 크다는 것과 다른 읽기의 수가 막대하게 많다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비평자료는 오늘날 날에도 유용하다. 이 비평본은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했다는 점과 텍스트스 레셉투스에 대한 승리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자료 이용 방법이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시대에 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비평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트레겔레스(Samuel Prideaux Tregelles)는 1854년에 라흐만과 티셴도르프의 노선을 따라서 본문비평의 법칙을 만들어냈으며 1857년과 1872년 사이에 신약성서 비평본을 발행했다.

2.3. 여러 새 비평본의 경쟁 시기(1881-1950)

신약성서 본문비평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가 20년 이상의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 낸 신약성서 비평본이 마침내 1881-82년에 발행된 일이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원래의 그리스어로 작성된 신약성서)이라는 그들의 바로 그 작품 제명(題名) 속에 잘 드러난다.

벤틀리와 라흐만이 각각 3세기와 4세기의 본문을 수립하기를 원했지만 이와 달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원래의 본문(the original text) 그 자체를 재구성해 내려고 했다. 그들이 세운 이 대담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그들은 본문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밝혔다. 이 분류법에 의거하여 그들은 텍스트스 레셉투스가 시리아(Syria) 본문 유형(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비잔틴 본문 유형’이라고 더 흔히 불리어진다)의 본문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라흐만, 티셴도르프, 트레겔레스 등등이 더 오래된 증거들의 논리적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시리아 본문 유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후대의 본문이 더 오래된 본문 유형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부풀어나기 식으로 발전해 갔느냐 하는 계보학적 변화 과정을 일관성 있게 논증함으로써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아

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이 점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20세기의 신약성서 본문비평학이 논의할 사안(事案)을 다룰 무대를 미리 마련해 준 셈이다. 1881-1950년은 수많은 비평본들이 경쟁적으로 발간되던 시기였다. 웨이머쓰(Richard Francis Weymouth)가 1886년에, 바이스(Bernhard Weiss)가 1894-1900년에, 영국 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1904년에, 수터(Alexander Souter)가 1910년에(초판은 1910년, 개정판은 1947년), 포겔스(H. J. Vogels)가 네 판을 1920-50년에, 메르크(Augustinus Merk)가 아홉 판을 1933-64년에, 개정판을 1965년에, 보버(J.M. Bover)가 다섯 판을 1943-68년에, 네스틀레(Eberhard Nestle)가 열 두 판을 1898-1923년에, 그의 아들 네스틀레(Erwin Nestle)가 여덟 판을 1920-50년에 각각 발행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네스틀레의 비평본이다. 왜냐하면 이 비평본은 19세기 본문비평학의 대표적 세 열매인 티셴도르프의 비평본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과 웨이머쓰의 비평본(1901년부터는 웨이머쓰의 것 대신에 바이스의 비평본을 이용함)을 토대로 해서 출발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마침내 20세기의 가장 완벽한 표준 본문(standard text)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비평본은 본문만 우수할 뿐만 아니라 회중관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장치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전문적 주석가들이 본문비평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작업용 판본으로서 아주 탁월하다. 네스틀레의 비평본은 제13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한 번 탈바꿈했다. 이 때에 풍부한 본문비평장치를 새로이 설치했으며 본문을 결정하는 데에 그 때까지 적용했던 기계적인 다수결 원칙에서 벗어나서 몇몇 구절을 우수한 증거 자료에 의거하여 새로이 결정했다. 1952년 제21판부터 알란트(Kurt Alland)가 공동발행인으로 가담하여 특히 비평장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3년의 제25판은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1979년의 제26판에 이르러서는 본문이 새로이 구성되고 새로운 비평자료가 첨가되고 활자체가 바뀌는 등등 환골탈태한 새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은 20세기의 신약성서의 표준본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얻게 되었다. 1904년에 영국 성서공회는 네스틀레 판본을 채택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발행했다.

2.4.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통합되는 시기(1950년 이후)

1950년 이후의 본문비평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표준본문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네스틀레-알란트의 비평본이 하나의 표준본문으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은 앞에서 이미 간략하게 진술했다. 이 시기에 하나의 표준본문을 확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 한 것은 미국 성서공회를 비롯한 유럽 몇 나라의 성서공회이다. 미국 성서공회, 스코트랜드 성서공회, 독일 뷔르텐베르크 성서공회는 성서 번역에 특별히 적합한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하나의 비평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1955년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본문비평 학자들의 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일에 화란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도 나중에 가담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새 비평본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설정했다. 1) 비평장치는 번역자에게 의미상으로 중요하거나 본문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읽기들에만 제한한다. 2) 본문으로 채택된 읽기의 확실성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표시해 주기로 한다. 3) 다른 읽기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그 내용을 완전한 형태로 인용한다. 4) 의미상의 변화를 일으킬 상이한 구두점(punctuations) 치기를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그 작업을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 수행했다. 1) 본문의 확정에는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본을 토대로 해서 네스틀레, 보버, 메르크, 포겔스, 티셴도르프, 폰 조덴(von Soden)의 비평본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했다. 2) 수 천 개 조(組)에 달하는 이문(異文, 다른 읽기)들에 대

한 자료 수집은 기존의 인쇄본들과 주석서들과 전문 연구서들에서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파피루스 사본들, 대문자 사본들, 소문자 사본들, 성서일과표들에서도 하였다. 3) 약 600여 개에 달하는 구두점상의 상이점은 여러 그리스어 인쇄본과 영어, 독일어, 불어의 주요 번역본들에서 선택했다. 4) 본문이 수립되고 채택된 읽기에 대해서 그 확실성의 정도를 A, B, C, D 네 등급으로 표시했다.

이 위원회가 설정한 편집 방침 두 가지를 든다면 1) 그리스어의 철자법은 바우어(Bauer) 사전 제5판의 철자법을 따르기로 한 것 2) 참조 구절 표시는 직접 인용, 확실한 인용(引喩, allusions), 문학적 또는 내용적 병행 구절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위의 여러 나라 성서공회가 연합하여 제작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The Greek New Testament*라는 이름으로 초판이 출판된 것은 1966년이었다. 제2판은 1968년에 출판되었는데 초판과의 차이점은 본문에 몇몇 변화가 생겼다는 것과 채택된 본문의 확실성 등급 표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등급 표시는 훨씬 더 상향 조절되었다.

본문비평사적으로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제3판의 출판과 관련해서이다. 알란트(Kurt Alland)는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 (아래에서 NTG로 약칭함) 제26판의 제작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The Greek New Testament* (GNT로 약칭함) 제작 위원회의 일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위원회는 GNT 제3판의 본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아주 중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NTG 제26판의 본문으로 알란트가 수립해 놓은 그 본문을 또한 GNT 제3판의 본문으로도 채택하기로 이 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다. 그 결과로 GNT 제3판의 본문은 그 이전 판과 비교하여 500여 곳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여 다행스럽게도 세계 기독교회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두 대표적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에 단일한 본문을 소유하게 되었다. GNT 제3판과 NTG 제26판이 발행된 연도는 각각 1975년과 1979년이다. 이 두 판에 딸린 비평장치가 현저하게 수정·보완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NTG와 GNT는 1993년에 각각 제27판과 제4판을 출판했으나 본문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비평장치에만 변화가 생겼을 따름이다. GNT 제4판의 비평장치에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읽기의 단위들이 많이 삭제된 반면에 본문의 전승 역사를 이해하거나 주석을 하는 데 중요성을 지닌 다른 읽기의 단위들은 많이 첨가되었다.

GNT와 NTG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이 둘이 세계의 거의 모든 성서공회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 측에서도 공인하는 가장 권위 있는 표준적인 비평본이라는 사실과 이 둘이 공통적인 단일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차이점은 이 둘이 각각 그 용도와 목적을 다르게 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편집 체계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GNT는 성서 번역자들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고 NTG는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래서 NTG의 비평장치에는 본문비평에 필요한 모든 다른 읽기와 그에 대한 증거들이 복잡한 기호들을 사용하여 압축적으로 거의 빠짐 없이 제시되어 있지만 GNT에는 다른 읽기가 제시되는 항목 수가 훨씬 적다.

편집 기술상의 차이점으로는 1) 철자법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 2) 구두점 표시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3) 문단 나누기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4) 구약성서 인용문을 표시하는 활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 5) GNT에는 큰 문단 단위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3. GNT 제4판의 비평장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본문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개관하는 것과 각개의 자료를 지칭하는 기호가 어떤 것인지를 익히는 것이 첫 단계의 필수 요건이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은 수많은 여러 필사본(또는 ‘수사본’[手寫本] 또는 그냥 ‘사본’이라고도 함)에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 고대 교회에서 사용하던 성서일과표 속에도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초대 교부들의 글 속에도 더러 보존되어 있다. 또 4-5세기 이전에 신약성서를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들은 그것들의 대본으로 사용된 본문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3.1. 증거 사본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방법

그리스어 사본들은 그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세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사본이요 둘째는 대문자로 기록된 대문자 사본(uncials 또는 majuscules)이요 셋째는 필기체인 소문자로 소문자 사본(minuscules 또는 cursive manuscripts)이다. 파피루스 사본은 papyrus를 뜻하는 첫 글자 p의 오른쪽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지칭한다. GNT⁴에 제시된 97개 파피루스 사본은 각각 p¹, p², p³...p⁹⁵, p⁹⁶, p⁹⁷로 표시되었다. 대문자 사본을 지칭하는 데는 그 일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히브리어 문자 첫 글자 א, 로마 문자 알파벳 대문자 26개(A에서 Z까지), 그리스어 알파벳 대문자 10개(로마 알파벳 대문자와 모양이 겹치지 않는 것은 Γ, Δ, Θ, Λ, Ε, Π, Σ, Φ, Ψ, Ω뿐이다)를 사용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0 + 아라비아 숫자로, 즉 01, 02, 03,...0298, 0299, 0300 따위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א와 01, A와 02, B와 03,...Φ와 043, Ψ와 043, Ω와 045는 동일한 대문자 사본을 지칭하는 두 가지 기호이다. א에서 Ω까지를 글자 표시 대문자 사본(lettered uncials), 046에서 0300까지를 숫자 표시 대문자 사본(numbered uncials)라 부르기도 한다. 소문자 사본은 (0을 붙이지 않고) 1, 2, 3, 4, 5,...2784, 2785 따위로 지칭한다.

성서일과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예배일의 예배 의식에서 봉독할 성경 구절을 모아 놓은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이 매일 매일 읽을 성경 구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성서일과표를 지칭하는 방법은 lectionary(=성서일과표)의 첫 글자 l의 소문자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번호를 붙여 지칭한다. 즉 l1, l2,...l1780, l1977 따위로 표시한다(GNT에는 증거 자료로 이용되는 것들만 실어 놓았다).

교부들의 글은 교부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지칭한다. 교부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한 교부들과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들로 분류된다.

고대 번역본의 사본은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로 번역된 번역본의 사본이다. 라틴어 번역본의 사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 한 부류는 고대 라틴어 번역본의 사본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불가타 번역본의 사본이다. 전자는 라틴 알파벳 소문자와 그리스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즉 a, a², ar, aur, b, β, c, com, d, dem, div, e, f, ff, ff¹, ff², g,...v, w, z 따위이다(GNT⁴, 24*-26*쪽 참조할 것). 불가타(Vulgata 또는 영어로 Vulgate)는 5세기에 제롬(Jerome)이 번역한 번역본이다. 이것은 vg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며 불가타 사본의 특수한 인쇄본을 지칭할 때에는 vg에다가 어깨 글자를 붙여서 지칭한다. 즉 vg^{cl}은 1592년에 클레멘타인이 간행한 인쇄본(Clementine Vulgate)을, vg^{mw}는 워즈워스와 화이트가 간행한 인쇄본(Wordsworth/White Vulgate)을, vgst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간행된 인쇄본(Stuttgart Vulgate)를 지칭한다.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은 총체적으로 syr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며 개개의 사본은 어깨 글자를 붙여서 지칭한다. 즉 syr^s는 시내 반도에서 발견된 사본(Sinaitic Syriac)을 지칭하며 syr^c

는 쿠레톤(W. Cureton)이 발견한 사본(Curetonian Syriac)을 지칭한다. 5세기 전반에 시리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번역본을 ‘페쉬타’(Peshitta)라 일컫는데 시리아어로 ‘페쉬타’는 ‘단순한/간단한’(=simple)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 번역본은 난외(欄外) 주를 붙이지 않은 간단한 번역임을 뜻한다. 이 번역본은 syr^p로 표기한다. syr^{ph}는 필로케누스(Philoxenus von Mabbug) 주교의 위탁을 받아 폴리갑(Polycarp)이 번역한 번역본을 지칭한다. 그리고 syr^h는 616년에 수도승 하르켈(Thomas von Harqel)이 개정한 시리아어 번역본을 가리키며 syr^{h with *}는 하르켈 번역본의 본문 안에 *표가 붙은 곳을 가리키며 이 표가 붙은 곳에는 다른 읽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syr^{hmg}는 하르켈 번역본의 난외에 기록되어 있는 읽기를 가리킨다. syr^{hgr}는 하르켈 번역본의 난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읽기를 가리킨다. syr^{pal}은 ‘에스트란젤로’(Estrangelo)라는 팔레스타인-시리아어 문서 속에 들어 있는 아람어 방언을 가리킨다.

타티안(Tatian, ca. A.D. 120-170)은 시리아 사람으로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제자였다. 그는 네 복음서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었다. 이 책을 『디아테사론』(Diatessaron)이라 하는데 ‘네 복음서를 통합한 복음서’라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통합 복음서』라고 명명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많은 신약개론서에서 이것을 『네 복음서 대조성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디아테사론』 자체는 소실되어 없어졌고 다만 시리아의 교부 에브라임(Ephraem)의 주석서 속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거나 아르메니아어(Armenian)로 번역된 번역본으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Diatessaron이라는 기호는 에브라임의 주석서 속에 시리아어로 인용된 내용과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Diatessaron^{sy}는 에브라임의 주석서 속에 시리아어 원어로 인용된 것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Diatessaron^{arm}은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의 인용이 에브라임의 주석서에 보존되어 있는 시리아어 원문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다.

콥트어 번역의 사본은 cop으로 표기한다. cop^{sa}는 사하드(Sahad) 방언으로, cop^{bo}는 보하이르(Bohair) 방언으로, cop^{pbo}는 원시 보하이르(Proto-Bohair) 방언으로, cop^{meg}는 중부 이집트어로, cop^{mf}는 중부 이집트어 파이움(Fayyum) 방언으로, cop^{fach}는 아크뮴(Achmim) 방언으로, cop^{fach2}는 하위 아크뮴 방언으로 번역된 사본을 가리키며 cop^{fay}는 잡다한 파이움 번역 사본의 파편들을 가리킨다.

아르메니아어(Armenian)로 번역된 사본은 arm라 표기한다. 게오르기아어(Georgian)로 번역된 사본은 geo로 표기한다. geo¹과 geo²는 게오르기아어 번역에 나타나 있는 두 전승을 가리키며 geo^{A,B}는 geo²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본들을 가리킨다.

에티오피아어(Ethiopic)로 번역된 사본은 eth로 표기한다. eth^{ro}는 1548-49년에 로마에서 간행한 인쇄본을 가리키며 eth^{po}는 eth^{ro}에 기초하여 펠 플라트(Pell Platt)가 간행한 인쇄본을, ethth는 타클라 하야마노(Takla Haymanot) 간행한 인쇄본을, eth^{ms}는 에티오피아어 사본을 가리킨다. 고대 슬라브어 번역은 slav라 표기한다.

교부들의 글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Irenaeus, Justin, Origen 등등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어떤 교부의 글이 다른 어떤 교부의 글 속에 인용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교부의 이름 오른쪽 어깨에 인용한 교부의 이름을 ‘according to 아무개’로 덧붙여서 표현한다. 예를 들면 Arius^{acc. to Epiphanius}는 Arius의 글이 Epiphanius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표시 방법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 Theodotus의 글이 어떤 교부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Theodotus의 글이 Clement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Clement^{from Theodotus}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하게 표시하는 이유는 Theodotus의 원래

의 글과 Clement의 편집적 가필(加筆)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Marcion^{acc. to Tertullian}은 Marcion의 글이 Tertullian 글 속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그냥 Marcion이라고 적은 기호는 하르낙(Harnack)이 편집한 인쇄본 속에 들어있는 Marcion의 글이라는 것을 뜻한다.

3.2. 같은 유형의 증거 사본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방법

어떤 사본을 증거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본의 질(質)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본의 본문은 생산 시기, 생산 지역, 유포 지역 등등에 따라 그 성격이 각각 다르다. 사본은 어떤 종류의 본문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본문 2) 서방 본문 3) 가이사랴(Caesarea) 본문 4) 비잔틴(Byzantine) 본문. (이 네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pp. xvii-xx을 참조하라.) 이 가운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비잔틴 본문이다. 소문자 사본의 거의 대다수는 비잔틴 본문 유형으로 분류된다. 비잔틴계 사본은 일명 코이네(Koine)계 사본, 또는 시리아(Syria)계 사본이라고도 한다. 비잔틴계 사본은 수적으로 모든 사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비잔틴계 사본으로 분류되는 사본의 본문은 첨가, 확대, 융합(Conflation), 내용이 거칠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삭제하기, 다른 병행 구절과의 조화, 구약인용 본문과의 조화, 문법적 또는 문장론적 개선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 GNT는 이 비잔틴 본문을 대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경우에 Byz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표시한다. Byz^{pt}는 비잔틴계 사본의 일부를 가리킨다. 비잔틴계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그 사본의 대표적 실례를 열거하는 경우에는 Byz 다음에 []를 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사본들의 기호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Byz [E F G H]로 표기한다.

성서일과표를 집단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Lect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는 대다수의 성서일과표와 희랍교회의 성서일과표(희랍교회의 성서일과표는 희랍교회의 인쇄본 성서 Apostoliki Diakonia에 들어 있는 성서일과표 본문을 가리킨다)를 함께 지칭한다. Lect^{pt}는 성서일과표에 담긴 본문 전승의 일부분(적어도 열 개 사본 이상)이 나머지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Lect^{ptAD}는 성서일과표에 담긴 본문 전승의 일부분(=Lect^{pt})이 희랍 교회의 신약성서인 Apostoliki Diakonia의 성서일과표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대 라틴어 번역본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it(=the Itala=the Old Latin)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몇몇 소문자 사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서 지칭한다. f¹은 1, 118, 131, 209, 1582번 사본과 기타 몇몇 사본을 가리킨다. f¹³은 13, 69, 124, 174, 230, 346, 543, 788, 826, 828, 938, 1709번 사본과 기타 몇몇 사본을 가리킨다.

3.3. 개별 증거에 덧붙이는 추가 정보

어깨에 붙인 *표(예를 들면 A*, B* 따위)는 그 사본의 그 곳이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되지 않은 그 사본의 본래 모습 그대로의 읽기를 뜻한다. A^c 또는 B^c는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되어 있는 읽기를 뜻한다. 어떤 곳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서 몇 번째 수정된 것인지를 표시한다. 즉 N¹, N², N³, N³, N⁴ 따위로 표현하다.

증거 사본을 ()로 묶은 것은, 예를 들면 (N), (A), (B) 따위는, 그 사본들은 각각 제시된 읽기를 증거하기는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깨에 붙인 ^{vid}라는 기호는 (예를 들면 A^{vid}) 그 사본의 보존 상태가 도저히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서 바로 그 곳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다만 짐작해서 그렇게 읽었다는 것을 뜻한다. 교부들에게 붙인 ^{vid}기호는 문체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제시된 읽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어깨에 붙인 ^{mg}라는 기호는 그 사본의 난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mg는 marginaldml 약자이다).

어깨에 붙인 ^{v.r.}이라는 기호는 ‘다른 읽기’(=variant reading)를 뜻하는 약자인데 어떤 사본에 하나의 대안적 읽기로 특별히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한다.

어깨에 붙인 ^{supp}는 그 사본의 손실된 부분이 후대 사람의 손으로 채워 넣어졌다는 것을 뜻한다(supp는 supplied의 약자이다).

[sic]는 그러한 형태로 재생했다는 것을 뜻한다(sic는 thus를 뜻하는 라틴 말이다).

?는 어떤 번역본에서 그리스어로 역번역한 것이 옳은지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교부들의 글을 인용할 때에 어깨에 붙인 ^{txt}와 ^{lem}과 ^{comm}이라는 기호(예를 들면 Origen^{txt}, Origen^{lem}, Origen^{comm} 따위)는 교부들의 성서 주석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 ^{txt}와 ^{lem}은 그들이 주석하려고 인용해 놓은 성서 본문이 제시하는 읽기를 지칭하고 ^{comm}은 그들의 해설 내용에 근거해서 구축해낸 읽기를 뜻한다. ^{supp}는 어떤 교부의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서 본문 중에 누락된 부분을 후대 사람이 채워 넣어서 읽는 곳을 가리킨다. ^{ms.}, ^{mss.}는 교부의 필사본이 인쇄본과 글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1/2}, ^{2/3}, ^{5/7} 따위는 어떤 구절이 어떤 교부의 글에 나타나는 회수와 그것이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나타낸다. 즉 분모는 어떤 구절이 나타나는 회수를, 분자는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표시한다. ^{ppp}은 어떤 교부의 글이 그 인쇄본과 달리 파피루스 단계의 전승에서 내려온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ed}는 어떤 교부의 인쇄본에서 나온 읽기를 지시한다. ^{fr}은 어떤 희랍 교부의 작품의 한 조각에서 인용한 것이 어떤 번역에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dub}은 어떤 교부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뜻한다.

3.4. 기타 몇 가지 기호와 약어들

{A}, {B}, {C}, {D}는 어떤 읽기가 GNT의 본문의 읽기로 결정되는 확실성의 정도를 네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A는 그 읽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B는 그 읽기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C는 위원회가 어느 읽기를 본문에 채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D는 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각 사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약성서 전체인지 그 가운데 어느 일정한 부분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e, a, p, c,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즉

e는 복음서를, a는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을, p는 바울서신(=바울의 13개 서신 + 히브리서)을, c는 공동서신을, r은 요한계시록을 뜻한다.

GNT의 본문에 [] 안에 묶인 부분은 본문에 넣어야 한다는 증거와 비평장치에 넣어야 한다는 증거가 본문비평상으로 똑 같은 비중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상관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GNT의 본문에 [[]] 안에 묶인 부분은 본문비평상으로는 확실히 비평장치에 실어야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교회에서 성서의 본문으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온 관례를 감안해서 본문 속에 넣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MT는 구약성서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 그리스어 본문과 다른 경우를 표시한다.

LXX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Septuagint)가 히브리 성서와 다른 경우를 표시한다.

Theodotion은 A.D. 2세기에 켈레오도티온이 번역한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의 본문을 지칭한다.

TR은 *Textus Receptus*(Oxford, 1889)를 지칭한다.

WH는 Westcott and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1881)을 지칭한다.

NA는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²⁶(7th revised printing, 1983)을 지칭한다.

M은 Merk, *Novum Teatamentum Graece et Latine* (1984¹⁰)를 지칭한다.

AD는 *Apostoliki Diakonia*(=Antoniadi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1988)를 지칭한다.

Lu는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revidierter Text, 1984)를 지칭한다.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3²)을 지칭한다.

NJB는 *New Jerusalem Bible* (1985)을 지칭한다.

RSV는 *Revised Standard Version* (1971²)을 지칭한다.

NRSV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90)을 지칭한다.

REB는 *Revised English Bible* (1989)을 지칭한다.

Seg는 *La Nouvelle Version Second Révisée* (Bible à la Colombe, 1978)을 지칭한다.

TEV는 *Today's English Version* (1976⁴)을 지칭한다.

TOB은 *Traduction Oecumenique de la Bible* (1988²)을 지칭한다.

VP는 *La Biblia: Versión Popular* (1983²)를 지칭한다.

3.5. 문단 및 단원 나누기 부호

그리스어 사본에는 오늘날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구두점(punctuations)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낱말과 낱말을 다 붙여 썼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 문장이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분간하기 애매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본문에 적절한 구두점을 기입하는 것도 본문비평 작업의 주요한 과제에 속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글의 의미는 문장을 단순히 나열해 놓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큰 단위인 문단과 단원과 대단원 따위로 나눔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GNT⁴는 이전 판들과는 달리 글을 몇 단계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장치를 새로이 도입했다. 즉 그것은 하위 문단(subparagraph), 문단(paragraph), 단원(section), 대단원(major section)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여기서 대단원이 가장 큰 의미 단위이고 하위문단이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이다. GNT⁴는 이러한 나누기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중요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들과 현대 영어, 독일어, 불어의 주요한 번역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처리해 놓았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가 사용된다.

*P*라는 글자는 지시된 자리에서 문단(paragraph)이 나뉜다는 것을 표시한다.

*NO P*라는 글자는 지시한 자리에서 문단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SP*라는 글자는 인용한 그리스어 비평본과 현대 번역본에서는 지시된 자리에서 하위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S*는 지시한 자리에 단원 제목(section heading)이 붙여져 있거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을 표시한다.

*NO S*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들은 *GNT*⁴ 본문이 하는 대로 본문을 새 단원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MS*는 지시한 자리에 대 단원 제목(a major section heading)이 붙여져 있거나 대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몇몇 번역본에서는 로마서 8장 끝과 11장 끝에 이러한 대단원 나누기가 되어 있다.

*C*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들에서는 어구 또는 낱말 사이에 단절(=구 나누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NO C*는 인용한 비평본들과 번역본에서는 어구 또는 낱말 사이에 단절(=구 나누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4. 본문비평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어 원어로 쓰여 있는 사본만 하더라도 그 수가 5,500개가 훨씬 넘는다. 여기에 고대 번역본의 사본까지 합치면 그 수는 몇 배나 늘어난다. 이 그리스어 사본끼리 서로 비교해 볼 때에 그 가운데서 본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단 두 개도 없다. 신약성서의 본문 전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곳, 즉 본문비평적 용어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는 곳은 30,000이 넘는다. 본문비평이라는 것은 사본들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읽기가 제시되는 곳에 어느 읽기가 원래의 본문(原本文)에 속하는 것인지 (더 겸허하게 표현해서: 원래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 일은 단순히 성서의 어느 곳에 어떤 사본들이 각각 무슨 다른 읽기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비평학적 결정은 증거 자료의 수(數)를 단순히 세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자료의 질(質)을 달아보고 판정해야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 *Χριστος Ιησους*라는 읽기를 제시하는 사본의 수가 4,990개이고 *Ιησους*를 증거하는 사본의 수가 10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0개 사본이 제시하는 본문의 질이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본들이 제시하는 본문의 질이 나쁜 것이라면, 그 10개의 사본이 증거하는 읽기를 본문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본의 질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질이 같은 사본끼리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칙에 의거하여 판정해야 한다. 사본의 질은 외관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본의 질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다면 같은 파피루스 사본이라 하더라도 다섯 가지 등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대문자 사본 가운데서도 5등급에 속하는 것이 있으며 소문자 사본 가운데서도 1등급에 속하는 것이 있다. 사본의 질은 어떻게 정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사본의 생산 시기와 유포 지역, 사본 본문의 문체적 특성과 신학적 경향성 등등을 근거로 사본 본문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GNT* 편집 위원회가 채택한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UBS, 1975, pp. 3^{*}-11^{*}, 15^{*}-16^{*}).

4.1.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원래의 본문(原本文)을 보존하는 데 가장 충실하며 따라서 가장 좋은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웨스트코트(Westcott)와 호르트(Hort)는 이것을 중립적 본문(neutral text)

라 일컬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특징은 간결성(brevity)과 엄밀성(austerity)이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다른 형태의 본문보다 더 짧다. 이 본문에는 문법적으로 다듬거나 문체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없다(이러한 흔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은 맨 마지막에 말할 비잔틴 본문이다). 이 본문을 증거하는 주요한 사본은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N)과 4세기 중반에서부터 생긴 양피지 사본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드머 파피루스(Bodmer Papyri)를 발견함으로써 약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필사된 p⁶⁶과 p⁷⁵ 파피루스 사본도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제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은 일찍이 2세기에 유포되었던 한 원형(archetype)에까지 소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히드어(Sahidic) 번역본들과 보하이르어(Bohairic) 번역본들도 전형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의 읽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4.2. 서방 본문(Western text)

이 본문도 역시 시기적으로는 2세기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이 본문은 이탈리아와 골(Gaul), 그리고 또한 북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유통되었다. 이 밖에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유통되었을 것이다. 약 A.D. 300년에 생산된 p³⁸과 약 3세기 말에 생산된 p⁴⁸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은 서방계 본문이 이 지역에도 유포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마르시온(Marcion), 타티안(Tatian), 이레네우스(Irenaeus), 테르툴리안(Tertulian), 키프리안(Cyprian) 등의 교부들도 이 본문을 사용했다. 이 유형의 본문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본은 5세기의 베자 사본(Dea=05: 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세기의 클라로몽 사본(Dp=06: codex Claromontanus)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장 30절까지의 읽기에 대해서는 5세기의 워싱턴 사본(W: codex Washintonianus)이다. 또한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도 서방 본문을 제시하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서방 본문의 주요한 특징은 설명어 덧붙이기(paraphrase)가 많다는 것이다. 낱말들, 어구들, 심지어는 문장 전체도 자유롭게 바뀌지거나 생략되거나 삽입되었다. 이렇게 변경한 동기는 병행 구절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며 때로는 전래적 또는 외전적(apocryphal) 자료를 삽입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변경들도 많이 있다. 서방 본문의 사도행전은 원래의 본문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10% 가량이나 더 길다. 서방 본문에서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에서는 서방 본문이 그 일반적 특성과 정반대로 다른 유형의 본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낱말과 어구들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이다.

4.3. 가이사랴 본문(Caesarean text)

이 본문은 0, 565, 700과 같은 사본들과 아르메니아어(Armenian) 번역본들과 게오르기아어(Georgian) 번역본들 안에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다. 이 본문의 특성은 서방 본문의 읽기와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읽기를 혼합했다는 데 있다. 최근에는 이 가이사랴 본문 유형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본문 유형은 안디옥에서와 안디옥 근처에서 유포되었는데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들 속에 보존되어 있다. 즉 복음서 번역본인 Syr^s와 Syr^c의 두 사본과 아프라테스(Aphraates)와 에브라임(Ephraem)의 저작 속에 들어 있는 성서 인용문들 안에 주로 보존되어 있다.

4.4.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이 본문의 명칭은 다양하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시리아 본문(the Syrian text), 폰 조덴

(von Soden)은 코이네 본문(Koine text),레이크(Lake)는 교회적 본문(ecclesiastical text), 로우프스(Ropes)는 아디옥 본문(Antiochian text)이라고 일컫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잔틴 본문은 신약성서의 여러 가지 분별 유형들 가운데서 최후에 생긴 유형이다. 이 본문의 특성은 명백성(lucidity)과 완전성(completeness)이다. 이 본문은 거친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었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읽기들을 합성시켜서 하나의 팽창된 읽기로 만들었으며(이른바 conflation) 다양한 병행 구절들을 조화롭게 만들었다(이른바 harmonizing). 이런 식으로 합성된 본문은 아마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생산되었을 터인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폴(Costantinople)로 전해져서 비잔틴 제국(Byzantine Empire) 방방곡곡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복음서 부분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A=01: codex Alexandrinus. 이것은 하나의 사본 이름이다. 사본의 본문 유형을 지칭하는 Alexandrian text와 혼돈하면 안된다), 후대의 대문자 사본들, 그리고 거대한 수량의 소문자 사본들 안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좀 더 오래된 본문 형태를 우연히 보존한 사본이 이따금 있었다는 예외 사항은 있기는 했지만, 6세기 세기 또는 7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활판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A.D. 1450-56) 전 기간 동안에 이 비잔틴 본문 유형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본문으로 간주되었으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수용되던 본문이었다.

본문비평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인쇄본을 처음으로 편집할 때에 사용한 사본이 모두 12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이 비잔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베자는 5세기와 6세기에 각각 필사된 두 개의 대문자 사본, 즉 베자 사본(=05: codex Bezae Cantabrigiensis)과 클라로몽 사본(=06; codex Claromontanus)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본의 읽기가 일찍이 에라스무스가 구축해 놓은 본문에서 빛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본의 읽기에 근거하여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감행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인쇄본의 난외에 이 두 대문자 사본의 읽기를 다른 읽기의 본보기로 조금 제시해 놓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베자는 에라스무스가 구축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이 곧 텍스트스 레셉투스로 확정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제시한 본문 유형을 증거하는 대표적 사본들이 어떤 것인지를 도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op. cit., pp. 15*-16*).

알렉산드리아 본문 증거들(Alexandrian Witnesses)

(1) 일차적(primary) 증거들:

p⁴⁵(사도행전에서), p⁴⁶, p⁶⁶, p⁷⁵, Ⲛ, B, 사히드어 번역본들(부분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젠(부분적으로), 바울의 글을 담고 있는 대다수의 파피루스 단편들.

(2) 이차적(secondary) 증거들:

복음서들에 대하여: (C), L, T, W(누가복음에서는 1:1에서 8:12까지와 요한복음), (X), Z, Δ(마가복음에서), ε, Ψ(마가복음에서; 부분적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33, 579, 892, 1241, 보하이르 번역본들.

* ()를 친 사본은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사도행전에 대하여: p⁵⁰, A, (C), Ψ, 33(11:26-28:32), 81, 104, 326.

바울서신에서: A, (C), H, I, Ψ, 33, 81, 104, 326, 1739.

공동서신에서: p²⁰, p²³, A, (C), Ψ, 33, 81, 104, 326, 1739.

계시록에서: A, (C), 1006, 1611, 1854, 2053, 2344;

좀 덜 좋은 것으로 p⁴⁷, Ⲛ.

서방 본문 증거들(Western Witnesses)

복음서에 대하여: p⁶⁹, \aleph (요한복음 1:1-8:38에서), D, W(마가복음 1:1-5:30에서), 0171, 고대 라틴어 번역들, (부분적으로 syr^s와 syr^c), 초기 라틴 교부들.

사도행전에 대하여: p²⁹, p³⁸, p⁴⁸, D, E, E, 383, 614, 1739, syr^{hmg}, syr^{palms}, cop^{G67}, 초기 라틴 교부들, 에브라임.

서신들에 대하여: 그리스어-라틴어 이중어 사본들인 D, F, G; 3세기 말까지의 그리스 교부들, 고대 라틴어 사본들과 초기 라틴 교부들.

계시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방 본문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비잔틴 본문 증거들(Byzantine Witnesses)

복음서에 대하여: A, E, F, G, H, K, P, S, V, W(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13-24:53에서), Π , Ψ (부분적으로 누가복음과 요한 복음에서), Ω , 그리고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사도행전에 대하여: H, L, P, 049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서신에 대하여: L, 049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계시록에 대하여: 046, 051, 051, 052와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

이와 관련하여 알란트(Aland) 부부가 증거의 등급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그 각 등급에 속하는 사본들의 목록을 도표로 제시해 놓았다(Kurt Aland und Barbara S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Deutsche Bibel Gesellschaft 1982, S. 167-70). 본문비평을 할 때에 참조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읽기를 본문으로 선택하는 본문비평적 판정은 증거 사본들의 성격과 그 질적 등급을 알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 동일한 등급의 사본들이 서로 다른 읽기를 증거하거나 어떤 읽기에 대하여 이른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상반되는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칙이 있다. 이것을 비평 규칙/원칙/기준(rules/principles/criteria/ canons of criticism)이라고 한다. GNT 위원회가 적용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Bruce M. Metzger, op. cit., pp. 11*-14*).

비평의 기준

A.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

1. 일반적으로 더 이른(earlier) 사본의 증거에 후대의 사본보다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서의 연령 자체보다도 그 문서가 구현하는 그 본문의 연대와 성격이 더 중요하며 사본을 산출할 때에 필사자가 기울인 조심성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2. 어떤 하나의 읽기를 지지하는 사본들의 지리적 분포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골(Gaul)에서 유래한 사본들이 어떤 하나의 읽기를 지지하는 데 일치한다면, 다른 조건들은 동일한 경우에, 한 지역이나 교회 구역을 대변하는 사본들보다도 여러 지역에 유포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읽기를 일치하게 증거하는 사본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

른 한 편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증거들이 실제로 서로 독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대 라틴어 번역본 증거들과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증거들 사이의 일치점은 타티안(Tatian)의 『통합복음서』(Diatessaron)에서 생긴 공통의 영향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3. 본문들의 계보적 관련성과 증거들의 친족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의 수가 단순히 많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읽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사본이 x 라는 읽기를 지지하고 단 한 개의 사본이 y 라는 읽기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20개의 사본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단일한 사본의 복사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본의 수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y 라는 읽기를 지지하는 그 하나의 사본과 x 라는 읽기를 지지하는 20개 사본들의 그 단일한 조상 사이에 1:1로 비교가 행해져야 한다.

4. 증거는 그 수를 셀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Witnesses are to be weighed rather than counted.) 분명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신빙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더 큰 무게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증거의 가치를 단지 기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증거들의 상대적 무게는 읽기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B.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

1. 더 어려운 읽기가 더 우수한 읽기이다(lectio difficilior est lectio potior). 특히 이 법칙은 그 의미가 겉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이 고려해 볼 때에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더 어려운 읽기’라는 표현은 ‘그 필사자에게 더 어려운 읽기’를 뜻한다. 그래서 그 필사자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더 짧은 읽기가 더 우수한 읽기이다(lectio brevior est lectio potior). 그러나 이 규칙도 다음과 두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필사자의 시각적 착각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러하다. 즉 동일한 어미로 끝나는 낱말이 인접해 있으면 필사자는 첫째 낱말까지 필사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낱말과 둘째 낱말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빠뜨리고 곧바로 둘째 낱말이 있는 자리로 뛰어 넘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2) 필사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표현을 (i) 군더더기(superfluous) 표현으로 여기거나 (ii) 거친(harsh) 것으로 여기거나 (iii) 경건한 신앙, 예배적 관용(liturgical usage), 또는 금욕적 실천에 모순된다고 여기는 것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병행 구절들(특히 신약성서 안의 구약성서 인용문과 구약성서 안의 그 본문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복음서들의 서로 다른 기술들) 사이에 언어상의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는 읽기가 언어상으로 일치하는 읽기보다 대체로 더 우수하다. 왜냐하면 필사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병행 구절들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필사자들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 (1) 친숙하지 않은 낱말을 더 친숙한 동의어로 대체하는 것.
- (2) 덜 세련된 문법적 형식이나 덜 우아한 표현을 그 당대의 점잖은 말투로 바꾸는 것.
- (3) 본문을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대명사, 접속사, 허사(虛辭) 따위를 첨가하는 것.

5. 원저자가 그렇게 썼으리라고 추측되는 내재적 계연성들(intrinsic probabilities)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 (1) 그 저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자의 문체와 어휘.

- (2) 앞뒤의 문맥.
- (3) 그 저자의 다른 곳에 나타난 어법과의 조화.

복음서에서:

- (1) 예수의 가르침의 아람어적(Aramaic) 배경.
- (2) 마가복음서의 우위성(priority).
- (3) 문제가 된 그 구절의 형성과 전승에 미친 기독교회 공동체의 영향.

매 경우에 이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경우에 어느 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기준을 덜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단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의 경우에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철칙은 없다. 어떤 증거의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어떤 읽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다. 또 위에서 제시한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더 어려운 읽기가 오직 후대의 증거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더 긴 읽기가 오직 더 이른 증거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두 별개의 사안에 대한 외적 증거의 값어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래의 본문에 관하여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비평은 엄격한 법칙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학적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비평은 엄정성이 요구되는 과학인 동시에 종합적 가치판단과 창조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예술이다.

5. 본문비평 장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GNT⁴의 매 쪽은 본문 난과 비평장치 난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문 난에는 그리스어 본문이 문단 별로 나뉘어져 실려 있고 각 문단 위에 영어 제목을 붙여 놓았고 그 밑에 병행 구절을 표시해 놓았다.

비평장치 난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본문에 채택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과 그것에 대한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해 놓은 본문비평에 관한 자료 난이요, 둘째는 본문에 인용(citation) 또는 인유(allusion)가 나오는 경우에 그 출처, 어떤 낱말과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낱말과 그것이 나오는 곳을 표시해 놓은 관련구절 참조 난이요, 셋째는 문단과 단원 나누기가 다른 주요 그리스어 비평본과 영어, 독일어, 불어 번역본에서 GNT⁴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또는 같게 처리되었는지를 표시해 놓은 문단 형성에 관한 난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5장 16절의 비평장치를 풀어보자. (다음 쪽의 GNT⁴ 11-12쪽 참조)

1) 4:22와 4:23 사이는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문단 나누기에 대한 정보는 22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붙어 있는 "이라는 기호가 지시하는 곳에 있다.

비평장치 난에 "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22 SP: WH // P: TR AD NA M Seg FC REB 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SP(하위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서는 WH(Westcott와 Hort의 그리스어 신약 성서 비평본)이다.

// 부호는 진술이 끝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표시한다.

P(보통의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ée), Lu(Luthers Bibel), FC(La Bible en Francais Courant) REB(Revised English Bible)이다.

Ministering to a Great Multitude
(Lk 6.17-19)

23 Καὶ περιῆγεν ἐν ὄλῃ τῇ Γαλιλαίᾳ διδάσκων ἐν ταῖς συναγωγαῖς αὐτῶν καὶ κηρύσσω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ῆς βασιλείας καὶ θεραπέυων πᾶσαν νόσον καὶ πᾶσαν μαλακίαν ἐν τῷ λαῷ.^α 24 καὶ ἀπῆλθεν ἡ ἀκοὴ αὐτοῦ εἰς ὄλην τὴν Συρίαν· καὶ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ῷ πάντας τοὺς κακῶς ἔχοντας ποικίλαις νόσοις καὶ βασάνοις συνεχομένους [καὶ] δαιμονιζομένους καὶ σελημιαζομένους καὶ παραλυτικούς, καὶ ἐθεράπευσεν αὐτούς.^ο 25 καὶ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ῷ ὄχλοι πολλοὶ ἀπὸ τῆς Γαλιλαίας καὶ Δεκαπόλεως καὶ Ἱεροσολύμων καὶ Ἰουδαίας καὶ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ρ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7

5 Ἰδὼν δὲ τοὺς ὄχλους ἀνέβη εἰς τὸ ὄρος, καὶ καθίσαντος αὐτοῦ προσῆλθα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2 καὶ ἀνοίξας τὸ στόμα αὐτοῦ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ὺς λέγων,^α

The Beatitudes
(Lk 6.20-23)

- 3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4 μακάριοι οἱ πενθοῦντες,
ὅτι αὐτοὶ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5 μακάριοι οἱ πραεῖς,
ὅτι αὐτοὶ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τὴν γῆν.¹

¹ 4-5 {B} 4 μακάριοι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5 μακάριοι ... τὴν γῆν. ⋈ B C W Δ Θ f¹ f¹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43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b, f, q} syr^{s,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 // 5 μακάριοι ... τὴν γῆν. 4 μακάριοι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D 33 it^{a, aur, c, d, ff¹, g¹, h, k, l} vg syr^c cop^{bo1ms} Origen Eusebian Canons Chrysostom^{1/2} Theodoret^{vid}; Hilary Ambrose Jerome Augustine

^α 23 P: NA ^ο 24 SP: NA // P: M VP ^ρ 25 SP: WH // P: AD M RSV NRSV // MS: Seg Lu NJB
^α 5.2 NO P: TR AD Seg NIV Lu NJB // P: WH NA M RSV

23 Mt 9.35; Mk 1.39 24 Mk 6.55-56 25 Mk 3.7-8
5.4 οἱ πενθοῦντες ...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Is 61.2-3 5 οἱ πραεῖς ... γῆν Ps 37.11

- 6** μακάριοι οἱ πεινῶντες καὶ διψῶντε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ὅτι αὐτοὶ χορτασθήσονται.
- 7** μακάριοι οἱ ἐλεήμονες,
ὅτι αὐτοὶ ἐλεηθήσονται.
- 8** μακάριοι οἱ καθαροὶ τῇ καρδίᾳ,
ὅτι αὐτοὶ τὸν θεὸν ὄψονται.
- 9** μακάριοι οἱ εἰρηνοποιοί,
ὅτι αὐτοὶ υἱοὶ θεοῦ κληθήσονται.
- 10** μακάριοι οἱ δεδιωγμένοι ἕνεκεν δικαιοσύνης,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b
- 11** μακάριοί ἐστε ὅταν ὀνειδίσωσιν ὑμᾶς καὶ διώξωσιν καὶ
εἴπωσιν πᾶν πονηρὸν καθ' ὑμῶν [ψευδόμενοι]² ἕνεκεν ἐμοῦ.
- 12** χαίrete καὶ ἀγαλλιᾶσθε, ὅτι ὁ μισθὸς ὑμῶν πολὺς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οὕτως γὰρ ἐδίωξαν τοὺς προφῆτας τοὺς
πρὸ ὑμῶν.^c

Salt and Light
(Mk 9.50; Lk 14.34-35)

13 Ὑμεῖς ἐστε τὸ ἅλας τῆς γῆς· ἐὰν δὲ τὸ ἅλας μωρανθῇ,
ἐν τίνι ἀλισθήσεται; εἰς οὐδὲν ἰσχύει ἔτι εἰ μὴ βληθὲν
ἔξω καταπατεῖσθαι ὑπὸ τῶν ἀνθρώπων.^d **14** Ὑμεῖς ἐστε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οὐ δύναται πόλις κρυβῆναι ἐπάνω
ὄρους κειμένη· **15** οὐδὲ καίουσιν λύχνον καὶ τιθέασιν
αὐτὸν ὑπὸ τὸν μῶδιον ἀλλ' ἐπὶ τὴν λυχνίαν, καὶ λάμπει
πᾶσιν τοῖς ἐν τῇ οἰκίᾳ. **16** οὕτως λαμψάτω τὸ φῶς ὑμῶν

² **11** {C} ψευδόμενοι **N** B C W Δ Θ f¹ f¹³ 28 33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43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m. aur. f. ff¹. l. q. vg syr^c.
p. h. pal cop^{sa}. meq.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
Nyssa Didymus Er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 // omit D it^b. c. d. g¹. h. k syr^s Origen^{1/2}; Ter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

^b **10** P: RSV TEV Seg FC NIV VP · **12** NO P: WH // P: TR AD NA M RSV REB NRSV ^d **13** P: NA RSV
TEV FC NIV VP Lu NJB REB NRSV

⁷ οἱ ἐλεήμονες ... ἐλεηθήσονται Mt 18.33; Jas 2.13 ⁸ Ps 24.3-4 ⁹ εἰρηνοποιοί He 12.14;
Jas 3.18 ¹⁰ μακάριοι ... δικαιοσύνης 1 Pe 3.14 ¹¹ Mt 10.22; 1 Pe 4.14 ¹² οὕτως ... προφήτας
2 Chr 36.16; Mt 23.30, 37; Ac 7.52; He 11.32-38; Jas 5.10 ¹⁴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Jn 8.12; 9.5;
Php 2.15 ¹⁵ Mk 4.21; Lk 8.16; 11.33 ¹⁶ Eph 5.8-9; 1 Pe 2.12

4:23 머리에 **Ministering to a Great Multitude**이 붙어 있고 그 밑에 (Lk 6.17-19)라고 병행절 표시가 붙어 있다.

23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각주 표시 기호는 같은 장 안에서는 알파베트 순으로 계속된다.

비평장치 난에 "을 찾아가 보면 "23 C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P(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성서는 NA(Nestle-Aland의 NTG²⁶)이다.

24절 맨 마지막 낱말의 어깨에 °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이 기호를 찾아가 보면 °24 SP: NA // P: M VP라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SP(하위 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성서는 NA (Nestle-Aland의 NTG²⁶)이다. //

P(문단) 나누기를 해 놓은 것은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VP(La Biblia: Version Popular)이다.

25절 맨 마지막 낱말에 ^p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p를 찾아가 보면 ^p25 SP: WH // P: AD M RSV NRSV // MS: Seg Lu NJB라고 적혀 있다.

SP(하위 문단)로 나누어놓은 것은 WH(Westcott와 Hort의 비평본)이다. //

P(문단)로 나누어 놓은 것은 AD(Apostoliki Diakonia), NA (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RSV(Revised Standard Version),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다.//

MS(major section), 즉 대단원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ee), Lu(Luthers Bibel), NJB(New Jerusalem Bible)이다. GNT⁴도 이 자리에 대단원으로 나누어 놓았다. 4:25와 5:1 사이는 보통 문단이나 문단 사이, 또는 보통 문단과 하위 문단 사이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5-7장의 '산상설교'라는 대단원과 그 앞의 문단 사이로 나누어진 것이다.

5:1 머리에 대단원(major section)의 제목이 붙어 있다. 그것은 The Sermon on the Mount이다. 그 밑에 대단원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 그 범위는 마태복음 5-7장이다.

2절 맨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가 표시되어 있다.

°를 찾아가 보면 °5.2 NO P: TR AD Seg, NIV Lu NJB // P: WH NA M RSV라고 적혀 있다.

NO P는 문단 나누기가 없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 문단을 나누지 않은 성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Seg(La Nouvelle Version Second Revisée),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Lu(Luthers Bibel), NJB(New Jerusalem Bible)이다. //

P(문단)를 나누어 놓은 성서는 WH(Westcott and Hort의 비평본),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RSV(Revised Standard Version)이다.

5:3 앞에 문단의 제목이 붙어 있다. 그것은 Beatitude이고 그 밑에 Lk 6.20-20이라는 병행절이 () 안에 표시되어 있다.

5절 맨 끝에 ¹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본문비평적 문제를 지시한다.

비평장치 난에 ¹을 찾아가 보면 긴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즉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¹ 4-5 {B}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5 μακαριοι...την νην. ⚡ B C W Δ Θ ^f ^f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s [E Σ] Lect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 // 5 μακαροι...την νην.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D 33 it^a aur. c.

d, ffl, gl, h, k, l vg syr^c cop^{boms} Origen Eusebian Canons Crystostom^{1/2} Theodoret^{vid}; Hilary Abrose Jerome Augustine라고 제시되어 있다.

¹ 은 각주 번호이고 4-5는 각주가 논의할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위치를 가리킨다. 즉 4-5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B}는 위원회가 본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확실성의 등급을 표시한다. B는 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5 μακαριοι...την νην. 이것은 각주의 본문비평이 논의할 대상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즉 4-5절 전체가 그 대상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4절과 5절 중간에 각각 생략 부호 ...를 썼다.

⊠ B C W Δ Θ ^f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Macarius/Symeon Chrysostom^{1/2}; Tertullian Chromatius는 본문에 있는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한 것이다. 증거를 나열하는 차례는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서일과표, 고대어 번역본, 교부의 순서이다. 그리스 교부와 라틴 교부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는다.

파피루스 사본은 지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B C W Δ Θ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대문자 사본들이다.

^f ^f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소문자 사본들이다. 소문자 사본의 나열 순서는 번호순이지만 다만 친족 집단(^f과 ^f³)은 맨 앞에 제시한다.

Byz [E Σ]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비잔틴 사본이다. Byz라는 기호는 비잔틴 사본의 거의 대다수가 본문의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E Σ]는 비잔틴 사본들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개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E와 Σ는 대문자 사본이지만 비잔틴 본문 유형을 담고 있는 사본이다.

Lect은 거의 모든 성서일과표(lectionaries)와 회랍 교회의 Apostoliki Diakonia의 성서 일과표가 본문의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it^{b, f, q} Syr^{s, p,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번역들이다. 번역본을 나열하는 순서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게오르기아어, 슬라브어의 순이다.

it^{b, f, q}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라틴어 번역의 사본들이다. 어깨에 붙인 ^{b, f, q}는 라틴어 번역본의 세 실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Syr^{s, p, pal}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시리아어 번역들이다. 어깨에 붙인 ^{s, p, pa}는 시리아어 번역의 세 실례이다.

cop^{sa, meg, bo}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콥트어 번역의 세 실례이다.

arm eth geo slav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게오르기아어, 슬라브어 번역을 가리킨다.

// 기호는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기술(記述)이 끝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 다음에는 새로 논의할 다른 읽기의 내용을 제시했다.

5 μακαριοι...την νην. 4 μακαριοι...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는 본문에 채택된 읽기와 다른 읽기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5절과 4절에 각각 생략 부호 ...를 사용했다. 이것은 본문란의 본문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4절과 5절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본문란의 본문은 4-5절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읽기는 5-4절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D 33 *it^a, aur, c, d, ffi, g^l, h, k, l* *vg syr^c cop^{boms}* Origen Eusebian Canons Crystostom^{1/2} Theodoret^{vid.}, Hilary Abrose Jerome Augustine는 이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이다.

D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대문자 사본이고 33은 이 읽기를 지지하는 소문자 사본이다.

*it^a, aur, c, d, ffi, g^l, h, k*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고대 라틴어 번역들이며 어깨에 붙인 *a, aur, c, d, ffi, g^l, h, k, l*는 그 실례들이다.

*vg*는 세 불가타 인쇄본(*vg^{cl}, vgst, vg^{ww}*)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syr^c*는 Cuerton이 발견한 시리아어 번역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cop^{boms}*는 콕트어 방언인 보하이르어(Bohairic) 번역의 사본(*ms*는 인쇄본이 아니고 사본 상태로 있는 것을 뜻한다)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Origen Eusebian Canons Crystostom^{1/2} Theodoret^{vid.}, Hilary Ambrose Jerome Augustine는 교부들의 글 속에 이 읽기를 지지하는 인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Crystostom^{1/2}는 크리소스톰의 글 속에 이 구절이 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이 읽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Theodoret^{vid.}는 Theodoret의 글의 보존 상태가 나빠 판독하기 어려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읽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증거에 의거하여 전체적 판단을 내리자면 본문란에 채택된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들이 더 오래된 것이고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다. 이 외적 증거에 의거하여 본문에 채택된 읽기가 원래의 본문에 가깝다고 판정 내릴 수 있다.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은 주로 서방 본문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필사자들은 3절의 *πρωτοι*(가난한 사람들)와 5절의 *πραεις*(온유한 사람들)를 밀접하게 병행시키기 위하여 4절과 5절의 순서를 바꾸었을 것이다.

관련구절 참조 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3 Mt 9.35; Mk 1.39 **24** Mk 6.55-56 **25** Mk 3.7-8

5.4 οι πενθουντες...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 Is 61.2-3 **5** οι πραεις...νην Ps 37.11

관련구절 참조 난은 번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번역자는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낱말이나 관련 있는 구절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참조해 보아야 한다. 이 참조 난은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4장 23절과 관련된 구절은 Mt 9:35와 Mk 1:39이고 24절과 관련된 구절은 Mk 6:55-56이고 25절과 관련된 구절은 Mk 3:7-8이다.

5:4의 *οι πενθουντες...παρακληθησονται*는 Is 61:2-3의 내용을 반영하며 5절의 *οι πραεις...νην*는 Ps 37:11의 내용을 반영한다. 이 둘은 인용문에 속하지는 않는다. 인용문은 볼드체(**bold-faced types**)로 인쇄한다.

10절 끝에 ^b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b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b**10** P: RSV TEV Seg FC NIV VP라고 적혀 있다. P: RSV TEV Seg FC NIV VP는 본문에 ^b가 표시된 자리에 문단 나누기를 해놓은 성서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시한 것이다.

12절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c가 붙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c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c**12** NO P: WH // P: TR AD NA M RSV REB NRSV라고 적혀 있다. 문단을 나누지 않은(NO P) 성서는 WH(=Westcott and Hort의 비평본)이고 문단(P)을 나누어 놓은 성서는 TR(=Textus Receptus), AD(=Apostoliki Diakonia), NA(=Nestle-Aland의 NTG²⁶), M(=Merk의 비평본), RSV, REB(=Revised English Bible), NRSV이다.

13절 끝에 문단 나누기 기호 ^d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이것이 표시된 곳을 찾아가 보면 ^d13 P: NA RSV TEV FC NIV VP Lu NJB REB NRSV라고 적혀 있다. 본문에 ^d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문단을 나누어 놓은 성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NA는 NTG²⁶이고 RSV TEV NUV NJB REB NRSV는 영어번역본이고 FC VP는 불어 번역본이고 Lu는 Luther의 독일어 번역본이다.

13절 머리에 Salt and Light라는 문단의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Mk 9.50; Lk 34-35)라고 병행절 표시가 되어 있다.

11절 중간에 나오는 [Ψευδομενοι]라는 낱말에 본문비평 기호 ²가 표시되어 있다. 비평장치 난에 ²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2 11 {C} Ψευδομενοι ⚭ B C W Δ Θ ^f ^f¹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a2, aur, f, ff1, l, q} vg Syr^{c,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 // omit D it^{b, c, d, g1, h, k} syr^s Origen^{1/2}; Te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이라고 적혀 있다.

{C}는 위원회가 이 읽기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 읽기를 []로 묶어서 본문에 넣어 놓았다.

Ψευδομενοι는 본문비평적 논의의 대상이다. Ψευδομενοι가 들어 있는 읽기와 그것이 빠져 있는 읽기가 있는데 들어 있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 B C W Δ Θ ^f ^f¹³ 28 157 180 205 565 579 597 700 892 1006 1010 1071 1241 1292 1342 1424 1505 Byz [E Σ] *Lect it*^{a2, aur, f, ff1, l, q} vg Syr^{c, p, h, pal} cop^{sa, meg, bo} arm eth geo slav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이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어 사본들의 증거는 5:4-5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Lect*(=거의 대다수의 성서일과표+Apostoliki Diakonia의 성서일과표)의 증거도 이것을 증거한다.

it^{a2, aur, f, ff1, l, q}는 고대 라틴어 번역을 지시하는데 어깨에 붙인 기호는 그 번역의 실례이다. ^a에 붙인 ? 기호는 a 사본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vg는 불가타 역본의 대표적 세 인쇄본을 가리킨다.

Syr^{c, p, h, pal}는 이 읽기를 지지하는 시리아어 번역들이고 cop^{sa, meg, bo}는 콥트어 가운데서 사히드어(Sahidic), 중부 이집트어(middle Egyptian), 보하이르어(Bohairic)로 번역한 사본을 가리킨다.

arm eth geo slav는 이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들이다.

Origen^{1/2} Basil Apostolic Constitutions Gregory-Nyssa Didymus Epiphanius Chrysostom Cyril Hesychius Theodoret; Chromatius^{1/2} Jerome Rufinus Augustine^{6/11}은 이 읽기를 지지하는 교부들이다. Origen^{1/2} Chromatius^{1/2} Augustine^{6/11}에 분수의 분모는 이 구절이 이들의 글 속에 나타난 회수를 가리키고 분자는 여기에 제시된 읽기를 지지하는 회수를 가리킨다. Apostolic Constitutions은 사도헌장을 뜻한다. 고대교회의 법적-의식적 질서를 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약 380년에 수집되었는데 누구의 편집인지 알 수 없다.

//는 그 앞뒤에 서로 다른 읽기에 관한 진술이라는 것을 뜻한다.

// 다음의 omit라는 말은 Ψευδομενοι라는 낱말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생략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는 D it^{b, c, d, g1, h, k} syr^s Origen^{1/2}; Te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이다.

복음서를 내용으로 하는 D는 05번 사본인 베자 사본(codex Bezae Cantabrigiensis)이다.

it^{b, c, d, g^l, h, k} syr^s는 고대 라틴어 번역과 시리아어 번역을 가리킨다.

Tertullian Hilary Lucifer Ambrosiaster Ambrose Chromatius^{1/2} Augustine^{5/11} Speculum은 이 읽기를 교부들이다. 그들의 글 속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

사본의 외적 증거에 의거해서 판단하건대 $\Psi\epsilon\upsilon\delta\omicron\mu\epsilon\nu\omicron\iota$ 가 들어 있는 읽기가 더 오래된 읽기라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생략한 사본들은 주로 서방계 사본들이다. 병행절인 눅 6:22에는 $\Psi\epsilon\upsilon\delta\omicron\mu\epsilon\nu\omicron\iota$ 가 없다. 여기에 맞추기 위하여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원래 없었던 것을 많은 오래된 사본의 필사자들이 집어넣었다고 보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다.

관련구절 참조 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한다(앞 페이지의 관련구절 참조 난 해설을 참조할 것).

6. GNT 제4판은 번역 대본으로서 성공작인가?

GNT 편집위원회가 세운 으뜸되는 목표는 성서번역자들에게 번역의 대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비평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GNT⁴가 제시해 놓은 구두점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문단과 단원 나누기에 대한 다양한 실례들, 각 단원에 제목 붙이기, 병행구절 표시, 참조구절 표시 등등은 번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장치이다. 성서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서 본문이다. GNT⁴가 NTG²⁷과 공통의 본문을 채택함으로써 번역자들이 대본 선정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GNT⁴는 그 본래적 편집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GNT는 처음부터 NTG와 분명하게 차별적인 목표를 향하여 출발했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비평본을 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과 본문에 채택된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과 그것과 다른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신약성서 사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읽기의 수는 모두 300,000이나 된다. NTG는 이 가운데서 약 10,000 개 곳에 본문비평적 증거를 제시해 놓았다. GNT는 번역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읽기에 국한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GNT는 다른 읽기에 대한 본문비평적 증거를 제시하는 곳을 약 2,500 군데로 축소했다. 이러한 조치는 GNT의 편집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GNT는 성서 번역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의 대본이 된다는 목적과 필요하면 번역자들이 스스로 본문비평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둘째 목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GNT는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했는가? GNT 편집위원회는 거의 대다수 번역자들이 본문비평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GNT 편집 위원회는 본문비평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기호가 사용된 NTG와 달리 누구도 단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채용한 이 기술(記述) 방법은 그들이 세운 목표에서 너무나 멀리 빗나갔다. 왜냐하면 \aleph^* , Byz^{pt}, syr^{hgr}, p^{66vid}, Didymus^{pal} 등등의 수많은 기호의 의미를 당장 이해할 수 있는 사

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기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문비평을 실행할 능력을 다 갖춘 것은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의 질적 등급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증거 자료가 나열되어 있더라도 그 자료들의 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본문비평을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GNT 편집 위원회가 본문비평적 전문 지식이 없는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증거 자료를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그들 사이의 질적 구별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지지하는 일등급 사본을 빨간 색으로, 서방 본문을 지지하는 2등급 사본을 초록색으로, 가이사라 본문을 지지하는 3등급 사본을 파랑색으로, 비잔틴 본문을 지지하는 4등급 사본을 회색으로 표시해 놓았다면,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 항목마다 특정한 읽기를 본문으로 결정하는 데 의거한 판단 기준/규칙을 번호로 표시해 놓았다면 본문비평 장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100%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GNT⁴의 본문비평 장치는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적 판단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GNT⁴가 가장 신용할 만한 권위 있는 비평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효력을 내는 데 더 유용한 것이다.

신약성서 번역자에게 허용된 본문비평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구두점과 문단 결정 분야 이외에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 분야조차도 공적(公的) 번역을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이 일을 위임한 공적 기관이 선정한 번역 대본으로부터 이탈할 자유가 거의 허용되어 있지 않다. 만일 사역(私譯)을 하는 번역자에게는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번역자는 GNT⁴의 비평장치를 이용하기보다는 NTG²⁷의 비평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신약성서 번역은 구약성서 번역과 비교할 때에 본문비평적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본문은 구약성서의 본문과는 달리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본문은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문비평은 신약성서 번역자보다는 구약성서 번역자에게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와 의무이다.

본문비평과 본문번역은 동맹 관계에서 출발하면서도 그 작업의 진행 방향은 정반대이다. 성서 번역이 성서의 본문비평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둘은 동맹 관계에서 있다. 그러나 본문비평은 표현이 더 세련되고 더 선명한 읽기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칠고 더 어려운 표현이라 하더라도 원본문(原本文)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더 오래된 읽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와 정반대로 번역은 번역한 말이 더 세련되고 더 선명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도록 문장을 점점 다듬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본문비평가는 $\delta\epsilon$ 라는 접속사가 본문에 들어가야 하느냐 빠져야 하느냐 또는 $\delta\epsilon$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느냐 $\nu\alpha\rho$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씨름을 벌여야 하지만 번역자는 원문에 이러한 접속사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필요 없는 접속사를 빼기도 하고 필요한 접속사를 집어넣기도 한다. 본문비평가는 본문에 대명사가 사용되었느냐 실명사가 사용되었느냐, 문장의 주어가 동사의 어미 변화 속에 표현되었느냐 주어가 별도로 표현되었느냐를 중요하게 문제삼지마는 번역자는 이해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대명사를 실명사로 대체하여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 언어의 어법상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번역자의 이러한 자유는 원문의 의미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무제한

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그림은 서툴더라도 그 어린이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창문이다. 어린이의 그림 전람회에 출품할 작품을 미술 담당 교사가 그의 전문가적 세련된 솜씨로 덧칠을 하여 완숙한 그림으로 고쳐서 전시했다면 그 그림은 어린이 그림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문이 조야한 표현으로 씌어 있다면 그 조야한 표현법을 번역문에도 그대로 살려 놓는 것이 원저자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은 돌맹이를 돌맹이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지 돌맹이를 보석으로 변화시키거나 보석을 금덩이로 변화시키는 요술이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의 해부학 강의 교실에는 미술과 학생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 인체를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을 전공으로 하려는 예비 예술가는 근육과 골격 따위의 인체의 보이지 않는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만 인체의 외관을 정말로 생동감 있게 묘사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작품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해부학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성서 번역자가 훌륭한 번역을 하는 데는 올바른 본문비평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번역의 대본을 선정하는 것은 성공적 번역의 근본 조건이다. 이것은 본문비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능한 번역자는 확실한 본문비평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서 있으면서도 그의 번역문에 본문비평적 이음새의 흔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은 이면적(裏面的)으로는 절실한 동맹 관계이어야 하지만 표면으로는 그들의 절친한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 두어야 한다.

<Abstract>

Textual Criticism for Bible Translation

Chang-Nack Kim

Good translation is based on good textual criticism. Success in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 depends upon the selection of the best critical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A translator should have full understanding of textual criticism in order to make a wise decision as to what is the best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It is not necessary, however, to become a textual critic before acting as a translator. It is sufficient to be capable of utilizing the results of professional textual critics' work.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history of the printed editions of the Greek New Testament, from the time of the Textus Receptus of the 16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s new standard text. It goes on to explain the critical apparatus of the Greek New Testament of UBS as well as the canons of textual criticism applied to this edition. In conclusion it deals with a short evaluation of the GNT⁴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ual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최근 동향

민경식*

1. 머리말

이 글은 신약성서 본문비평이 무엇이며, 또한 신약성서 본문비평 연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한 특정 분야가 비판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전체 역사와 최근의 동향이 소개될 것이다.²⁾

* 윈스터대학교 박사과정.

1) 이 글은 2002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공개 강좌에서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소 수정하고 확대한 것이다.

2) 전체적으로 본문비평의 역사에 대해서는 본문비평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개론서인 Kurt Aland u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와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nl.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부분적으로 Eldon J. Epp, “Textual Criticism,”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1992)와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에 실릴 예정이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Barbara Aland, “Textgeschichte / Textkritik (NT)”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최근의 연구 동향 가운데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과 게르트 밁크(Gerd Mink)의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는 부분은 Barbara Aland, “Die Editio critica maior des Neuen Testaments: Ihre Anlage, ihre Aufgabe, die neu entwickelten Methoden der Textkritik,” 『성경원문연구』 7호 (2000): 7-23와 Gerd Mink, “Eine umfassende Genealogie der neutestamentlichen Überlieferung,”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481-499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개론적인 글로 J. Neville Birdsall, “The Recent History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rom Westcott and Hort, 1881, to the present),”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26, 1 (Berlin / New York: de Gruyter, 1992): 99-197을 참고할 수 있으며,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자세히 본문비평을 소개하는 단행본으로서 에어만(B. D. Ehrman)과 홈즈(M. W. Holmes)가 편집하고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 엘든 엡(Eldon J. Epp), 데이비드 파커(David C. Parker), 고든 피어(Gorden D. Fee), 엘리엇 (J. Keith Elliot) 등 현대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대표주자들이 글을 기고한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2. 본문비평의 과제 및 자료

2.1. 본문비평의 과제

본문비평은 본래 아주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목적이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여 저자의 최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본문(Urtext)”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비평이란, 한 저자의 글이 여러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올 때, 사본마다 다르게 읽히는 구절(이것은 한 단락일 수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다)에서 과연 어떤 독법이 원저자의 것이었겠는가를 가려내려는 학문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본문비평은 성서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호머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원시적인 본문비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머의 서사시들은 낭독되는 과정에서 또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그 본문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이문들이 생기게 되었고, 필사되는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판본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호머의 작품들의 “원본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문비평적 작업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비평은 성서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크게 진보하였다. 물론 신약성서의 본문비평 작업은 오리겐, 제롬과 같은 교부들이 처음 시작하였으나, 이들의 작업은 과거 그리스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이고 본격적인 신약성서 본문비평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가장 오래 된 본질적인 과제는 바로 성서의 “원본문”(Original Text, Urtext), 엄밀히 말하자면 전승의 시작본문(또는 출발본문,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비평은 이 첫 번째 과제 외에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전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성서본문이 어떻게 전승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미 17세기 후반에 이문들이 대량으로 수집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이 두 번째 과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문비평의 이 두 가지 과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2장과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자료 및 사본 구분법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다소 불명료하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은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다. 사본이 기록된 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피루스 사본과 양피지 사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문자 사본이나 소문자 사본으로 부르는 사본들은 모두 양피지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또 기록된 글자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피루스 사본은 대문자 사본과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성서 사본학에서는 사본들을 용지의 종류나 문자 형태 가운데 어느 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본들을 위와 같이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편의상의 (불명료한)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파피루스는 주로 이집트의 나일 강 하류에서 만들어진 종이의 이름인데, 키가 보통 4-5미터, 크기는 6미터까지 되며 굵기는 사람의 팔뚝 정도 되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식물의 이름을 따서 파피루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파피루스 줄기를 적당한 크기의 토막으로 자르고 (대개 30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자른 토막을 다시 세로로 얇게 잘라내서 얇은 판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얇은 판을 가로 세로로 엇갈려 붙인 채 밀착시켜서 만든 종이가 파피루스인데, 이 용지에 기록된 사본을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한다. 파피루스 사본에 쓰인 그리스어 문자는 물론 대문자이다. 이 용지는 4세기경 양피지가 널리 보급되어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물론 양피지가 4세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기원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양피지는 빠르게는 2-3세기경부터 신약성서를 필사할 때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4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양피지는 소나 양, 염소, 영양과 같은 가축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이며, 파피루스에 비하면 내구성이 강한 장점과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양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들을 대문자 사본이라고 부른다. 즉, 파피루스 사본이나 대문자 사본은 모두 대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가운데 파피루스 용지에 쓰인 사본을 파피루스 사본으로 분류하고, 양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을 대문자 사본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어 대문자에는 띄어쓰기도 없었으며, 현대 그리스어에 있는 쉼표와 악센트도 없었기 때문에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원 후 7-8세기 경 그리스어 소문자가 발명되면서 성서도 소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는데, 양피지에 소문자로 기록된 사본들을 소문자 사본으로 분류한다. 소문자의 사용으로 값비싼 용지를 아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빠르게 사본을 필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서가 주로 인쇄됨으로써 필사본의 시대가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이후의 필사본도 발견된다), 이 이전까지의 필사본들이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주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요일마다 또는 주말마다 읽어야 하는 구절이 적혀 있는 성구집이 있었으며, 이상과 같은 그리스어 사본들 이외에도 고대번역본들이 본문비평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고대번역본들이 주로 직역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번역본들을 토대로 그리스어 원본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 교부들의 성서 인용문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초대 교부들의 성서 인용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첫째는 그 독법이 사용된 연대와 지역을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초기(빠르게는 2세기)의 독법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과제 하나: 전승의 시작본문 재구성에 대한 관심

원본문(Urtext)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엄밀히 말해서 가능해 보이지 않으나,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원본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약성서 본문비평은 ‘성서 저자들의 원본문’과 ‘전승의 시작본문’ 사이의 단절과 이 단절이 결코 본문비평적인 방법으로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문비평은 “원본문”이 아닌 “전승의 시작본문”(der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 또는 간단히 “시작본문”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본문은 원본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본문이 원저자가 실제

로 쓴, 혹은 받아 적게 한 본문을 가리킨다면, 전승의 시작본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들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다. 따라서 이 전승의 시작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본보다도 원본문에 최소한 한 단계 가까운 본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본들의 뿌리가 되는 최초의 본문이기는 하지만, 결코 원본문은 아닌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작본문은 추상적인 또는 가상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비평 이론과 방법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초기의 사본들이 많이 발견될수록, 또한 사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원본문에 더욱 더 가까운 시작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가상적인 시작본문이 잠정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어 신약성서(특히 네스틀레-알란트판 또는 『대비평본』)의 본문에 실려 있는 “(재)구성된 본문”(der konstituierte Text)이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표준본문”(Standardtext)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재구성된 본문을 “가설적 시작본문”(der hypothetische Ausgangstext)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3.1. 본문비평 이전 시기: 수용본문(textus receptus)의 시대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년 경-1468)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 처음으로 출판된 책이 바로 『42행성서』로 알려진 라틴어 성서이다 (1455년경 완성). 반세기 이상이 지나 16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판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수많은 라틴어 성서와 히브리어 성서가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의 당시 현대어 번역성서들이 출판되었음을 볼 때,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뒤늦은 출현은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드디어 1516년 3월 1일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1469-1536)가 편집한 신약성서가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출판되었다. 이미 1514년 1월 10일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 de Cisneros, 1437-1517)가 먼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작업을 마쳤으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였던 그는 교황의 출판 승인을 얻는 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실제로 1520년에 재가되었으며 아마도 1522년 이후에야 반포됨),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출판본이라는 영예는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에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 하나는 히메네스가 자신의 작업을 출판하는데 6년여를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라틴어 신약성서보다 약 60년 늦게 출판된 것과는 일맥상통

하는 것 같다. 바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서였던 라틴어 신약성서가 그리스어 성서로 인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두 성서가 상대적으로 후기의 소문자 사본들을 중심으로 중세에 유행하던 비잔틴 계열의 본문을 자신들의 본문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라스무스의 경우, 당시에 성행하던 라틴어 성서의 본문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을 변경시켰으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계 22:16-21)의 그리스어 사본을 얻을 수가 없어서 라틴어 대본을 그리스어로 거꾸로 번역하여 실었다.

이 두 종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출판된 이후 몇몇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성서를 기본 골자로 해서 각기 다른 그리스어 성서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스테파누스(Stephanus 또는 Robert Estienne, 1503-1559)와 엘제비어 형제(Bonaventure & Abraham Elzevier, 17세기)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이다. 스테파누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 3판(1550)에서 처음으로 본문비평장치를 사용하였으며, 4판(1551)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전해지는 형태대로의 장·절 구분을 하였는데, 이 장·절 구분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성서에 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은 이 당시 스테파누스가 절 표시를 한 이후에 본문비평적 작업으로 인해 그 절이 후대의 추가적 삽입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라이텐의 출판업자였던 엘제비어 형제는 자신들의 그리스어 성서 2판(1633)의 서문에서 성서를 많이 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본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수용본문”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시기까지의 모든 그리스어 성서들은 에라스무스의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수용본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된 비잔틴 계열의 본문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편, 이 시기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라틴어 신약성서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서서히 라틴어 성서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고전적 본문비평의 시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련의 학자들이 다양한 사본을 사용하면서, 이문(Varianten)이 폭넓게 수집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본문에 대한 도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존 펠(John Fell, 1625-1686)은 1675년에 이미 100여 개의 사본들을 사용하였으며, 독일의 요한 자우버트(Johann Saubert, 1638-1688)는 이미 1672년부터 다양한 이문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도전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발전되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존 밀(John Mill, 1645-1707), 리차드 벤틀리(Richard Bentley, 1662-1742), 에드워드 웰스(1724년, Edward Wells) 그리고 다니엘 메이스(1729년, Daniel Mace) 등이 본문비평장치에 이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수용본문을 교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어떠한 독법들이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우수한지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 요한 야콥 벅쉬타인(Johann Jakob Wettstein, 1693-1754) 그리고 요한 야콥 그리스박흐(Johann Jakob Griesbach, 1745-1812)가 당시 여전히 지배적이던 수용본문의 아성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였다. 먼저 벵엘은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의 본문으로 수용본문을 받아들였지만, 본문비평장치에 나타나는 모든 독법들을 그 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함으로써(예를 들면, 알파(α)는 수용본문의 독법이 아니면서 원독법이 확실한 독법을 가리키며, 베타(β)는 수용본문의 독법이 아니면서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나은 독법을 가리키고, 감마(γ)는 수용본문의 독법과 비슷한 수준의 독법이며, ...) 어떤 독법들이 수용본문의 독법보다 우수한 독법들인지를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필사가들이 어려운 본문 또는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쉽게 풀어쓰는 경향에 착안하여, ‘어려운 독법이 쉬운 독법에 우선한다’는 본문비평의 고전적 원칙을 고안해내었다. 한편 벅쉬타인은 100여 개의 사본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성서본문으로는 엘제비어 형제의 본문, 즉 수용본문을 실었으며, 단지 난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법들을 표기하였다. 그리스박흐 역시 자신의 그리스어 성서에서 수용본문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수용본문 전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수용본문을 더 우수한 본문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영국과 대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본문에 대한 강한 도전이 일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본문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자신들의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보였다.

3.3. 현대적 본문비평의 시기: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후반

까지

19세기 초엽이 지나고 중엽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수용본문의 권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성서무오설의 중심에 서 있던 수용본문을 처음으로 완전히 극복한 학자는 독일의 칼 락흐만(Karl Lachmann, 1793-1851)이었다. 고대언어학 교수였던 그는 후기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근거로 구성된 본문인 수용본문을 극복하고, 4세기말경 동방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본문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판된 성서가 1831년 베를린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 출판본은, 그 사용된 사본들이 매우 빈약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용본문을 자신의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그리스어 성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락흐만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의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시킨 학자는 독일의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Konstantin von Tischendorf, 1815-1874)이었다. 티센도르프는 신약성서의 원본문(Urtext)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오직 본문비평에만 헌신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는 시내사본(ℵ)을 발견하고 해독한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에브라임재생사본(C)의 지워진 본문을 복원해서 읽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재생사본(Palimpsest)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양피지 위에 원래 쓰인 본문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롭게 다른 것을 쓴 사본을 말한다. 위에 새롭게 쓰여진 본문은 원래 쓰였던 것보다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는 지워진 본문을 찾아 읽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자외선을 사본에 비추어서 원래의 본문을 읽지만(자외선을 쏘이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잉크, 즉 지워진 본문의 흔적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티센도르프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본에 화학약품을 발라서 원래 처음 쓰였던 본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두 권으로 된 자신의 최종 비평본(*editio octava critica maior*, 1869-1872)에서 대략 64개의 대문자사본들과 하나의 파피루스 그리고 많은 소문자사본들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고대번역본과 교부 인용문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은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콧(Brook Foss Westcott, 1825-1901)과 호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의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1881)이다. 제1권에서 이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우수한 사본

으로 알려진 바티칸사본(B)과 시내사본(Σ)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을 구성하였으며 (시내사본보다는 바티칸사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였음), 제2권에서는 역시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신들의 본문비평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로는 파피루스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4세기 후반의 두 사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과, 둘째로는 사본들을 직접 해독하거나 대조분석(Kollation/collation)하지 않고 다른 비평본들의 이문연구에 의존하여 연구하였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본문비평장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평본은 19세기 본문비평의 두 가지 과제(“원본문” 재구성 / 본문사 연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berhard Nestle, 1851-1913)는 아주 간단하고 비학문적인 방식으로 본문이 결정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편집하였다(Novum Testamentum Graece, 1898). 즉, 티센도르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웨스트콧-호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제3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처음에는 R. Fr. Weymouth의 2판(1892)을, 1901년부터는 B. Weiß의 그리스어 성서(1894-1900)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의 본문을 비교하여, 다수결 원칙으로 본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스틀레판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수용본문을 포기하고 네스틀레판을 공식적인 그리스어 성서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그의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Erwin Nestle, 1883-1972)는 아버지의 네스틀레판을 더욱 발전시켜 13판(1927)에서부터는 본문비평장치를 첨부하였으며, 1950년경부터는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1915-1994)를 본문비평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네스틀레-알란트판(이로 인해 이 비평본의 명칭도 네스틀레판에서 네스틀레-알란트판이 되었다)을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 1993)은 현재, 그 본문과 편집자들이 동일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y)의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 4판(1993)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의 각국 성서공회들은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을 대본으로 신약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 이전에 20세기 초(1902-1913)에 나온 헤르만 폰 조텐(Hermann von Soden, 1852-1914)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폰 조텐의 본문비평장치는 오히려 네스

틀레-알란트판의 것보다 더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본문비평학자들은 폰 조텐의 비평본을 늘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본 명명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비평장치를 해독하려면 해독표(또는 해설서)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그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비평본을 사용할 때에는 늘 주의가 요망되며 항상 확인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레그(S. C. E. Legg), 포겔스(H. J. Vogels),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같은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네스틀레-알란트판의 권위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평본이 요구되는 것은 네스틀레-알란트판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인데, 바로 이 새로운 작업이 지금 독일의 뮌스터 시에 있는 신약성서본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4.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 21세기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에서 작업 중인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네스틀레-알란트판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 판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관련자료를 폭넓게 개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네스틀레-알란트판은, 그것이 회중판(Handausgabe)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장치에 모든 이문이 수록되지 못하고 편집자들의 판단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문만이 선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는 본문비평장치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대한 자료를 제한된 지면에 실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기호화하였는데, 이 때문에 해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문들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편집되는 것이 바로 『신약성서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이다. 현재까지 『대비평본』은 야고보서(1997)와 베드로전후서(2000)만 출판되었다. 요한서신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현재 신약성서본문연구소에서는 사도행전 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다. 이 『대비평본』에는 검증된 모든 자료가 수록될 것이며, 그 수록된 자료들은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관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비평에 있어서 외적판단기준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와 더불어 본문의 전승사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네스틀레-알란트 28판이 한참 준비되고 있다. 이 28판(die

digitale Nestle)은 전산화되어 씨디(CD)로 나올 계획인데, 이 씨디에는 본문과 본문비평장치 이외에도 몇몇 과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 등 중요한 사본들이 함께 수록될 것이다. 또한 출판본에 비하여 이문들을 비교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되나, 기본적으로 이 씨디는 출판본과 병행하여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27판을 대치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과제 둘: 본문사에 대한 관심

4.1. 본문유형 연구

수많은 이문들의 수집됨에 따라 신약성서 본문의 역사, 또는 본문전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본문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과연 이 수많은 이문들이 왜 생겼으며,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이문을 가지는 사본들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문 증거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사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상위 그룹 및 하위 그룹으로 구분한 최초의 학자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로도 잘 알려진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이다. 그는 사본들을 그 본문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일대에서 만들어진 후기의 사본들로서 “아시아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초기의 사본들 그룹인 “아프리카 그룹”이었다. “아프리카 그룹”은 다시 “알렉산드리아 그룹”과 “베투스 라티나(Vetus Latina) 그룹” 즉 “옛 라틴 그룹”으로 세분되었다.

요한 잘로모 쟈머(Johann Salomo Semler, 1725-1791)는 벵엘의 사본그룹을 조금 더 발전시켜 사본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기원을 연구하였다. 먼저 그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기원을 오리겐에게 돌렸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동방교회에서 주로 유포되었던 본문을 “동방본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에서 주로 유포되었던 본문을 “서방본문”으로 규정하였다.

요한 야콥 그리스박흐(Johann Jakob Griesbach, 1745-1812)는 쟈머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는 쟈머를 따라 사본들을 세 그룹(“알렉산드리아 그룹”, “서방 그룹”, “비잔틴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켈러보다는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사본 및 교부들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예속시켰다는 것이다.

브룩 포스 웨스트콧(Brook Foss Westcott, 1825-1901)과 펜턴 존 안쏘니 호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는 기존의 세 그룹인 “알렉산드리아본문”, “서방본문”, “시리아(비잔틴)본문”에 “중립본문”(neutral text)이라는 그룹을 하나 덧붙였다. “중립본문”을 추가한 이유는 이 두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바티칸사본(B)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바티칸사본(B)과 시내사본(N)으로 대표되는 “중립본문”이야말로 원본문(Urtext)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중립본문”은 더 이상 하나의 본문형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중립본문”의 개념은 이 본문유형에 속하는 이 두 사본(B, N)이 원본문에 가장 가깝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실제로 4세기 후반의 두 사본이 원본문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전제가 초기 파피루스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중립본문”의 개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들의 또 다른 이론인 이른바 “서방 비삽입구절”(western non-interpolation) 이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 이론 자체가 스스로 “중립본문”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증거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문유형 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가장 크게 공헌한 점은 비잔틴본문이 후기의 열등한 본문임을 확립시킴으로써 비잔틴본문의 시대에 결정적인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어느 정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비잔틴본문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헤르만 폰 조덴(Herrmann von Soden, 1852-1914)은, 독자적인 사본명명법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유형에도 다소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는 사본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코이네본문(K-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비잔틴본문과 일치하며, 둘째는 “이집트본문 또는 헤지키우스본문(H-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중립본문”과 “알렉산드리아본문”을 포함한다. 셋째는 “예루살렘본문(I-Text)”으로 웨스트콧-호트의 “서방본문”을 포함하며, 추가로 차후에 “가이사랴본문”으로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사본들을 포함한다. 폰 조덴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코이네본문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분법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코이네본문이 다른 그룹의 본문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점과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독립적인

본문유형이 생성되거나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본문을 하나의 독립적인 본문유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1930년대 이후에 본문유형에 있어서 “가이사라본문”이 독립적인 본문유형으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사분법으로 정착되었다:

1) \wp ⁷⁵, B로 대표되며 또한 그 외에도 \wp ⁶⁶, \aleph , L(019), 33, 1739 등을 포함하는 “알렉산드리아본문”,

2) \wp ³⁸, \wp ⁴⁸ 등 몇몇 파피루스와 D, 그리고 옛 라틴어 번역본들(Vetus Latina)로 대표되는 “서방본문”,

3) “알렉산드리아본문”과 “서방본문”의 중간쯤 되는 본문유형으로 \wp ⁴⁵, W, Θ , 565, 700 등으로 대표되는 “가이사라본문”

4)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피루스 증거가 없고 A로 대표되며 대다수의 소문자사본들을 포함하는 비잔틴본문.

소위 “서방본문”이 실제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서방본문”이라는 말 앞에 항상 “소위”라는 말을 붙이거나 따옴표 안에 넣어서 쓰게 되었다.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가이사라본문” 앞에도 “소위”를 붙여서 쓰거나 따옴표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가이사라본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본들이 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본문형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본문” 역시 같은 이유로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 본문형태를 지닌 사본들을 각 그룹의 대표적인 대문자 사본의 명칭을 따라 B 계열 사본들, D 계열 사본들, C 계열 사본들, A 계열 사본들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법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다. 위의 구분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째는 비잔틴 그룹을 제외하면, 다른 그룹들은 실제로 그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이사라본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본들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본문” 유형을 대표한다는 사본들도 실제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사본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각 그룹에 속하기 어려운 사본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초기 파피루스들은 어느 그룹에도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4.2. 연구 방법론

이에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은 사본들을 그룹으로 묶기보다는 각각의 사본들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면서 각각의 사본이 본문의 전승 역사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독일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게르트 밁크(Gerd Mink)가 개발한 이 방법은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이라 불린다. 이 방법론은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과 비슷하면서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이라고 불린다. 이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절충(주의)적 방법론과 합리(주의)적 또는 이성(주의)적 방법론을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웨스트콧-호트의 계보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외적증거 또는 외적판단기준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외적판단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내적판단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비평작업을 수행할 독법들이 정해지면, 내적판단기준 및 외적판단기준에 따라 어느 독법이 원본문(Urtext)의 독법을 반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외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어느 사본들이 우수한 사본들이며, 각 사본들의 특징 및 성격은 어떠한가, 한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내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원저자의 신학과 문체, 필사가들의 습관, 독법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웨스트콧-호트는 물론 내적판단기준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머지 독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법이 원독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내적판단기준의 가장 훌륭한 지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으로 외적판단기준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원본문의 독법을 가장 잘 보존하는 “중립본문”으로 규정하였고, 이 두 사본의 독법이 일치하는 경우 거의 그 독법을 자신들의 본문의 독법으로 선택하였다. 어느 독법을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그 사본들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중요시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사본들을 네 종류의 본문유형으로 나누고 각 대표적인 사본들을 각 본문유형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계보도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계보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웨스트콧-호트의 외적판단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만을 우수한 사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적판단기준이 도외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자들은 다른 방법론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론이 바로 절충(주의)적

방법론(eclecticism)이다. 이 방법론은 웨스트콧-호트가 강조하는 소위 “중립 본문”이 과연 실제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두 사본이 “서방본문”보다 우수하다는 그들의 전제가 과연 옳은가를 질문하면서, 이 전제는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도전이 일기 시작하였다. 절충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외적판단기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외적판단기준보다는 내적판단기준을 더 중요한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극단적으로 이 방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외적판단기준을 완전히 무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모든 독법은 그 독법을 포함하는 사본의 문헌적 가치에 관계없이 모두 원본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본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직 그 독법만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합리적 절충주의(reasoned eclecticism)라는 방법론으로 그 강도의 수위가 교정되었다.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방법론으로도 불리는 이 방법론은 원칙적으로는 내적판단기준과 외적판단기준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본문비평의 실제에 들어가게 되면 내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과 외적판단기준에 따른 분석 사이에 종종 긴장이 나타나며, 본문비평가는 이 긴장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함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이 방법론은 두 판단기준 사이의 균형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본들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이유로 외적판단기준보다는 내적판단기준을 여전히 더 우월하게 취급하여왔다. 따라서 이 방법론 역시 기본적으로 나머지 독법(들)의 발생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법이 원독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한편 밍크의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은 외적판단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계보적 방법론의 목적은 전승의 구조 또는 전체적인 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장 위에 전승의 시작본문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각각의 사본들이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마치 피라미드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시도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사본이 어느 사본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또 사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원칙은 웨스트콧-호트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웨스트콧-호트는 소수의 대문자사본들만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본들을 포함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것에 실패하였다. 웨스트콧-호트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밍크는 『대비평본』의 도움으로 이 밑그림을 작성하였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 그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새롭다. 이 새로운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지엽적 계보도를 그리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 즉 내적, 외적판단기준에 따라서 모든 이문들을 분석하는데, 우선 “확실한” 것들만을 가지고 이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계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엽적 계보도를 그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지엽적 계보도를 확대시켜나간다. 이렇게 하여 증거들(또는 사본들) 상호간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최초의 전체적 밑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정하기 어려워져서 처음에 유보했던 이문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계보도를 수정하거나 보충한다. 이 결과,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원본문에 가까운 사본들(즉, *Ausgangstext*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사본들은 본문구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밉크의 새로운 방법은 각각의 사본을 본문유형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승에서 각각의 사본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각각의 사본의 외적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밉크의 방법은 『대비평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증된 모든 독법에 대한 전체적 개관이 없이는 밉크의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밉크의 방법은 다시 거꾸로 『대비평본』의 본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각각의 사본에 대한 강화된 외적판단기준)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과 『대비평본』은 서로 보완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적판단기준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던 경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적판단기준을 위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비평본』이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어서 완성되기까지 장시간(적어도 수 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대비평본』은 야고보서(1997)와 베드로전후서(2000)만 나왔다. 이 두 편의 짧은 서신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이미 야고보서에서 두 군데, 베드로전후서에서 열다섯 군데의 본문이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방법론은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이 대폭 줄었음은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다. 심지어는 본문비평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더 이상 본문비평적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본문비평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웨스트콧-호트(1881) 이후 이미

120여 년이 지나도록 다양한 신약성서 비평본들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크게 변경되지도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문비평을 통해서 신약성서의 본문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아주 사소한 변경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존의 기독교신학이나 교리에 영향을 끼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서의 본문을 변경시키는 것을 마치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문에 대한 연구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비평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아직도 여전히 발견되고 출판되는 사본들로 인해서 본문이 변경될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일련의 파피루스(파피루스 100번부터 116번까지)가 새롭게 출판되었으며, 실제로 본문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문이 변경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실제로 『대비평본』에서 네스틀레-알란트판의 본문이 적지 않게 변경되었다. 비록 사소한 변경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본문주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아직도 불확실한 본문들(예를 들면 네스틀레-알란트판 본문 가운데 꺾쇠로 묶인 본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밖에도 본문 전승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Kyoung Shik 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ot to make a critical investigation of problems or topic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but to introduce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tself and its history up to the present.

The task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s not only to reconstruct the “text” (Ausgangstext der Überlieferung), but also to research its history. Although these two tasks can hardly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practice, they will be dealt with separately in chapters 2 and 3 for convenience’ sake. The article will also introduce recent trends in moder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which include the new project of the Institute of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in Münster Germany, and the method newly developed by G. Mink of the same Institute.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박동현*

필자는 『성경원문연구』 제8호(2001년 2월), 106-157쪽에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¹⁾. 이 과정에서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 명사 음역 방식에 일관성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특히 같은 이름이 두 가지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음역된 경우가 적지 않음²⁾이 눈에 띄었다. 이리하여,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에 대한 전면 개정의 합의에 이르자면 아직 여러모로 어렵지만³⁾, 우선 개역한글판의 음역 방식을 존중하면서, 다만 한 고유명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한 음역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로 통일하고, 그 결과를 개역한글판 성경의 개정 작업이나 그 후 성서 개정 번역 작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 대한성서공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해 온 성서 개정 번역 작업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아 둔 자료⁴⁾를 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 전문용 차장을 통해 1998년 6월에 필자에게 전해 왔다. 이제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 자신이 찾아본 자료와 성서공회에서 전해 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름에 대한 음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통일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기준으로 삼은 개역한글판 성경은 1997년에 나온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의 본문이다⁵⁾.

*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1) 이 줄고를 아래에서는 “음역 시안”으로 줄여 적기로 한다.

2) “음역 시안”의 항목 0.3, 특히 0.3.(1)을 보라.

3) “음역 시안”에서 필자 나름대로는 한글개역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음역 방식을 살린 히브리어 자음 음역의 원칙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4) 200자 원고지 65장 분량의 이 자료에는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에서 통일성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약 전서에 그러한 경우도 모아 놓았다.

5) 한글개역판(1961년 7월10일 초판)이라 하더라도 언제 나온 성경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와 이성호 편, 『새성구대사전』(서울: 성지사, 1993년판), 1022쪽에서는 예레미야 47장 5절과 7절의 יִצְחָק 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아스겔론’으로 음역했다고 하나, 1997년 9월 20일에 나온 『관주

라가 골짜기’(대하20:26)로, **עמק עכוּר**를 ‘아골 골짜기’(수7:24,26; 15:7; 사 65:10; 호2:15)로, **עמק רפאים**(수18:16; 삼하5:18,22; 23:13; 대상11:15; 14:9)이나 **עמק־רפאים**(수15:8)을 ‘르바임 골짜기’로 옮긴 것에 맞추어 ‘그 시스 골짜기’로 번역하면 더 나을 것이다⁷⁾. 그렇지만, 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고유명사이어서 같은 낱말을 여러 가지로 음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② 느헤미야 11장 29절의 ‘에느림몬’(עִינוֹ רַמּוֹן)은, עִינוֹ이 앞에 나오고 뒤에 다른 낱말이 와서 그 둘이 한 지명을 가리킬 때 ‘엔...’이라고 음역하는 일반 전통에 어긋나므로, ‘엔림몬’으로 고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지명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고유명사이어서 같은 낱말을 여러 가지로 음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 한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철자법 때문에 음역에 차이가 나는 경우

한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철자법이 있다고 해서 개역한글판에서 그 이름의 음역을 늘 달리 적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야훼의 이름이 뒤에 붙는 사람 이름의 경우에는 יה־와 그 긴 풀인 יהו־을 구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음역하는 수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철자법 때문에 음역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이 그런 보기이다.

① 여호수아 15장 24절의 **מִלְכָּם**(멜렘)을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는 **מִלְכָּם**(들라임)으로 적는다. 이 경우에는 이 둘을 굳이 통일하여 음역할 필요가 없다.

②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을 역대상(6:14[5:40]⁸⁾; 6:15[5:41])과 학개(1:1,12, 14; 2:2,4)와 스가랴(6:11)에서는 ‘여호사닥’(יהוֹשָׁדָק)이라 하고, 에스라(3:2,8; 5:2; 10:18)와 느헤미야(12:26)에서는 ‘요사닥’(יְהוֹשָׁדָק)이라 한다. 이럴 경우에도 이 둘을 굳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③ **יְרֵמוֹת**(여레못’, 대상7:8; 8:14; 23:23; 25:22; 27:19; 스10:26,27,29)이나 **יְרֵימוֹת**(여리못’, 대상 7:7; 12:5[6]; 24:30; 25:4; 대하11:18; 31:13)은 각각

7) 마찬가지로 **עמק המלך**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왕곡’으로 옮긴 것은 사무엘 하 18장 18절의 경우처럼 ‘왕의 골짜기’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

8) [] 안에 들어 있는 숫자는, 성경장절 표시가 개역한글판과 다른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 성경의 장절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다. 그 가운데서 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만 역대상 23장 23절의 ‘여레못’과 24장 30절의 ‘여리못’, 또 역대상 25장 4절의 ‘여리못’과 22절의 ‘여레못’의 두 경우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모음 하나가 아예 다르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④ 구약 성경에서 **מִסְבֵּה**나 **מִסְבָּה**라 불리는 곳은 다섯 군데 있고 **מִסְבֵּה**나, **מִסְבָּה**라 불리는 곳은 세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두 이름을 다 쓰는 경우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들 수 있다. 이 성읍을 여호수아 18장 26절에서는 **מִסְבָּה**(미스베)라고 하고 다른 여러 구절(삿20:1,3; 21:1,5,8; 삼상7:5-16; 10:17; 느3:7,15,19; 왕상15:22; 왕하 25:23,25; 대하16:6; 느3:15,19; 렘40:6-15; 41:1-16)에서는 ‘미스바’(מִסְבָּה나 **מִסְבֵּה**)라 한다. 사사기 11장 29절의 ‘길르앗 미스베’는 10장 17절, 11장 11절, 34절, 호세아 5장 1절에서 말하는 길르앗 땅의 미스바라기보다는 여호수아 13장 26절의 ‘라맛 미스베’인 것으로 보인다⁹⁾. 이 경우도 모음 하나가 아예 다르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4)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표기된 이름을 문맥에 따라 통일하여 음역한 경우

① 레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게르손’(גֵּרְשׁוֹן, 창46:11; 출6:16,17; 민 3:17,18,21,25; 4:22,38,41; 7:7; 10:17; 26:37; 수21:6,27; 대상 6:1[5:27]; 23:6)은 또한 ‘게르숨’(גֵּרְשֻׁם이나 גֵּרְשֻׁם, 대상6:16[1], 17[2], 20[5], 43[28], 62[47], 71[56]; 15:7)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역대상 6장 16[1]-71[56]에 나오는 **גֵּרְשֻׁם**이나 **גֵּרְשֻׁם**을 한결같이 ‘게르손’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 앞 6장 1절[5장 27절]의 **גֵּרְשׁוֹן**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독자들에게 혼란이 오더라도 히브리 본문을 따라 처음에는 ‘게르손’이라 하고 그 뒤로는 ‘게르숨’으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역한글판에서 하듯이 히브리 본문의 ‘게르숨’을 ‘게르손’으로 바꾸어 적을 것인지는 번역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단 개역한글판의 입장에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¹⁰⁾.

9) L.Köhler / W.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Leiden: E.J.Brill, 1967-1995), 590쪽.

10) 이와 비슷한 경우로 다음 보기를 들 수 있다. 히브리 낱말의 발음을 따르며, **יְהוֹנָדָב**은 열왕기하 10장 15절, 15절, 23절에서 하듯이, ‘여호나답’으로 적고, 그 짧은 풀인 **יְהוֹנָדָב**(삼하13:3,3,32,35; 렘35:6,10,19)만 ‘요나답’으로 적는 것이 좋다. 그런데,

② 다윗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도와주었던 두로 왕을 사무엘하(5:11)와 열왕기상(5:1[15],1[15],2[16],7[21],8[22]¹¹),11[25],11[25]¹²,12[26];9:11,11,12,14,27; 10:11,22)에서는 ‘히람’(חִירָם)이라 하고, 역대하(2:3[2], 11[10],12[11]¹³),13[12]; 8:2,18; 9:10,21)에서는 ‘후람’(חִירָם)이라고 한다. 열왕기상 5장에서 두 번(5:10[24],18[32])은 חִירָם으로 불리어서, 그 발음대로 따른다면, ‘히롬’으로 적어야 했으나, 그 앞뒤에 나오는 ‘히람’에 맞추어 이 경우는 모두 ‘히람’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역대상 14장 1절을 개역한글판에서는 히브리 자음 본문을 따라 ‘히람’으로, <크레>(קרי)를 따른다면 ‘후람’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두로의 눈점장도 열왕기상(7:13,40 후,45)에서는 ‘히람’ (חִירָם)으로 나오는데, 역대하(4:11,11, 16)에서는 ‘후람’(חִירָם)으로 나온다. 이 경우도 열왕기상 7장 40절 전반절의 חִירָם은 그 앞뒤에 나오는 ‘히람’에 맞추어 ‘히람’으로 적었다. 이 모든 경우에 한글개역판의 음역은 그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굳이, 어느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③ 히브리 본문에서 홍해 아카바만의 항구를 네 번(신2:8; 왕하16:6,6; 14:22)은 אֵילֹת이라 하고, 세 번은 אֵילֹת(왕하16:6; 대하8:17; 26:2), 한 번은 אֵלוֹת(왕상9:26)이라 한다. 개역한글판에서 אֵילֹת은 ‘엘랏’으로, אֵילֹת과 אֵלוֹת은 ‘엘롯’으로 음역했는데, 다만 열왕기하 16장 6절 전반절 마지막 낱말로 나오는 אֵילֹת은 그 앞 6절 전반절 앞부분과 그 뒤 6절 후반절의 אֵילֹת에 맞추어 ‘엘롯’으로 적지 않고 ‘엘랏’으로 적었다. 이 경우에도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디의 발음과 달리 앞뒤의 경우에 맞추어 통일해서 음역한 한글개역판의 입장에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굳이 고쳐 적을 필요는 없다.

(5) 종족을 표시하는 어미 י.를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경우

יְבוּסִי나 יְבוּסִי를 ‘여부스 사람’(출13:5; 수9:1; 샅1:21; 삼하5:6; 왕상9:20; 슥9:7; 스9:1; 대상21:15; 대하3:1 등), ‘여부스인’(민13:29), ‘여부스 족속’(창

사무엘하 13장 5절, 예레미야 35장 8절, 14절, 16절, 18절에서 긴 풀인 יְבוּסִי까지 ‘요나답’으로 적은 까닭은 사무엘하 13장과 예레미야 35장에서 짧은 풀이 먼저 나온 사실을 번역자가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는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3) ②와 견주어 보라.

11) 개역한글판 열왕기상 5장 8[22]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2) 개역한글판 열왕기상 5장 11[25]절 후반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3) 한글개역판 역대하 2장 12[11]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0:16; 출3:8,17; 신7:1; 수3:10; 대상1:14; 대하8:7; 느9:8 등), 그냥 ‘여부스’(수15:8; 18:16,28)로 적기도 했다.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 ‘여부스’ 다음에 ‘족속’, ‘사람’, ‘인’ 가운데 어느 것을 붙일 것인지, 또는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을 것인지는 음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음역을 통일해야 할 경우

(1)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לִיָּא (삼하11:3; 왕상15:5; 왕하16:10; 대상11:41; 스8:33; 느3:4; 사8:2 등 모두 36번)와 그 긴 끝인 אֱלִיָּא (렘26:20,21,23)을 한편으로는 ‘우리야’(삼하11:3,6,6,7,8,8,9,10,10,11, 12,12,14,15,16,17,21,24,26,26; 12:9,10,15; 23:39; 왕상15:5; 대상11:41; 스8:33; 느3:4)로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야’(왕하16:10,11,11¹⁴),15,16; 느3:21; 8:4; 사8:2; 렘26:20, 21,23)로 적는다. 특히 느헤미야 3장 4절과 21절에서는 한 사람을 두고 앞에서는 ‘우리야’로, 뒤에서는 ‘우리야’로 적어 통일성이 없다. ‘리아’는 רִיאָ 나 רִיָּא 를 떠올리게 하므로, ‘우리야’를 ‘우리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 אֱהִיָּו 를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에서는 ‘아효’로 적었는데, 그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7절에서는 ‘아히오’로 적었다.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8장 14절에서는 ‘아히요’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8장 31절과 9장 37절에서는 다시 ‘아히오’로 적었다. 개역한글판에 나오는 세 가지 음역 가운데서는 ‘아효’가 가장 좋다. ‘히오’는 אֱהִיָּו 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3) אֱלִיָּא 를 사무엘하 5장 16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상 3장 8절에서는 ‘엘라다’로, 열왕기상 11장 23절과 역대하 17장 17절¹⁵)에서는 ‘엘리아다’로 적었다. ‘리아다’는 אֱלִיָּא 나 אֱלִיָּא 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다’를 ‘엘라다’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 אֱלִיָּא 또는 끝에서 둘째 음절의 장모음이 불완전표기 된 끝인 אֱלִיָּא (스10:27)를 역대상 4장 36절과 7장 8절, 에스라 10장 22절(//느12:41), 10장 27절에서는 ‘엘료에내’로, 역대상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에

14) 개역한글판 열왕기 16장 11절에는 ‘우리야’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אֱלִיָּא 가 두 번 들어 있다.

15) 그 평행구절인 역대상 14장 7절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אֱלִיָּא (브엘라다)로 나온다.

료에내'의 두 가지로 적었다. 개역한글판에서 음절 끝의 **נ**은 보통 끝소리 **ר**과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 **ר**로 나누어 적는 것이 보통이므로¹⁶⁾, '에료에내'를 '엘료에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 **אֱלִיָּאִים**을 열왕기하 18장(18,26,37절)과 19장(2절)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지만, 그 평행 본문인 이사야 36장(3,11,22절)과 37장(2절)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사야 22장 20절에서도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열왕기하 23장 34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하 36장 4절과,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느헤미야 12장 41절에서도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리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김'을 '엘리아김'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6) 구약 성경에 74번이나 나오면서 서로 다른 일곱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לִישָׁא**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만 '엘리아살'로 적고 나머지 경우, 이를테면 출애굽기 6장 23절, 25절, 28장 1절에서는 '엘르아살'로 적는다. '리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살'을 '엘르아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7)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מַרְיָא**나 그 긴 풀인 **אֲמַרְיָא**(왕하14:1; 대상3:12; 대하24:27 등)를 역대상 4장 34절과 6장 45[30]절(두 번)과 역대하 17장 16절에서는 '아마시야'로 적지만, 나머지 경우(왕하 12:21[22]; 13:12; 14:8; 15:3; 대하25:1; 26:1 등)에는 '아마샤'로 적는다. '시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마시야'를 '아마샤'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8) 사사기 1장 31절의 **אֲבִיָּא**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아빅'으로 음역했으나, 이것이 여러 사본에서 **אֲבָא**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 **אֲבָא**이 나오는 여러 구절(수12:18; 13:4; 19:30; 삼상4:1; 29:1; 왕상20:26,30; 왕하13:17)을 고려한다면, '아벡'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9) **אֲבְרָהָא**를 창세기 35장 16,19절, 48장 7절 전반절, 룻기 4장 11절에서는 '에브랏'으로, 미가서 5장 2[1]절과 시편 132편 6절과 역대상 2장 24절, 50절, 4장 4절에서는 '에브라다'로 적는다. 이 가운데에서 역대상 2장 50절과 4장 4절은 실제로 2장 19절의 **אֲבְרָהָא**와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볼 수 있으므로¹⁷⁾, '에브랏'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אֲבְרָהָא**가 나머지 경우에는 장소 이름이므로, **אֲבְרָהָא**를 **אֲבְרָהָא**에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꼴로 볼

16) "음역 시안"의 항목 2.2.12.(1-2) ①을 보라.

17) L.Köhler/W.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Leiden: E.J.Brill, 1967-1995), 78쪽.

수 있다. 이 점은 창세기 48장 7절 후반절에 나오는 אֶפְרַיִם이 전반절의 אֶפְרַתָּה를 뜻한다는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אֶפְרַתָּה는 ‘에브랏’으로 통일하여 음역할 수 있다.

(10) אֶפְרַתָּה를 역대하 34장 8절에서는 ‘아살랏’로 적고, 그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는 ‘아살리아’로 적는다. ‘리아’는 לֵ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살리아’를 ‘아살랏’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1) בַּבְּלִי 또는 강세로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길어진 꼴인 בַּבְּלִי(에2:11; 10:28; 느10:15[16])를 에스라 2장 11절과 그 평행구절인 느헤미야 7장 16절에서는 ‘브배’로, 에스라 8장 11절, 10장 28절, 느헤미야 10장 15[16]절에서는 ‘베배’로 적었다. 이 경우는 히브리 낱말의 첫 모음이 장모음 ‘에’인 만큼 ‘베배’로 통일할 수 있다.

(12) בָּבֶל 또는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꼴인 בָּבֶלְיָא이 구약 성경에 256번이 나오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이를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9절에서만 ‘바벨’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적었다. 그런데, בָּבֶלְיָא이 한편으로는 도시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또는 왕국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한편으로 도시를 가리킬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창세기의 두 구절을 뺀 나머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든 나라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으로 적었다. 따라서, 도시를 가리킬 때는 ‘바벨’로, 지역 또는 왕국을 가리킬 때는 ‘바벨론’으로 두 경우를 구별해 적을 수도 있겠으나, 당분간은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벨론’으로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¹⁸⁾.

(13) בְּדָן을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는 ‘베단’으로, 역대상 7장 17절에서는 ‘브단’으로 적었다. 소리가 나는 단순 불명료모음(אָוּא)을 개역한글판에서는 보통 모음 ‘ㅡ’로 적으므로¹⁹⁾, ‘베단’은 ‘브단’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4) בֵּית־צֹר을 여호수아 15장 58절에서는 ‘벵술’로, 역대하 11장 7절과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는 ‘벵술’로, 역대상 2장 45절에서는 ‘벵술’로 적는다. בֵּית가 앞에 붙는 지명을 한글개역판에서 음역하는 일반 방식을 따라²⁰⁾, ‘벵술’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15) בֵּית־רְחוֹב을 사사기 18장 28절에서는 ‘베드르홉’으로,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는 ‘벵르홉’으로 적었다. 이 경우도 בֵּית가 앞에 붙는 지명을 한

18)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도시는 ‘바빌론’으로, 지역 또는 나라는 ‘바빌로니아’로 적는다.

19) “음역 시안”의 항목 1.3.(1)을 보라. 아래 2.(33), (39), (46), (63)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20) “음역 시안”의 항목 2.2.23.(2)①을 보라.

글개역판에서 음역하는 일반 방식을 따라, ‘베드르훅’은 ‘벤르훅’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6) שָׁן בְּיַחַד이나 שָׁן בְּיַחַד(삼하21:12)을 사무엘상 31장 10절과 12절에서는 ‘벤산’으로,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는 ‘벳산’으로 적었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처럼 בְּיַחַד가 앞에 붙는 지명의 일반적인 음역 방식을 따라, ‘벳산’은 ‘벤산’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한편 이와 같은 곳을 가리키는 שָׁן בְּיַחַד(수 17:11,16; 삿1:27; 왕상4:12; 대상7:29)을 ‘벤 스안’으로 적었는데, 이는 위 1(3)에서 말한 철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굳이 앞의 두 경우에 맞추어 음역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벤스안’으로 붙여 적는 것이 좋다.

(17) מַרְשִׁימָה나 마지막 모음이 강세 때문에 길어진 꼴인 מַרְשִׁימָה(삼하 19:34)를 사무엘하 17장 27절, 19장 32절, 33절, 34절, 35절, 40절에서는 ‘바르실래’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열왕기상 2장 7절과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는 ‘바실래’로 적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에스라 2장 61절과 그 평행 구절인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는 ‘바르실래’로 적었다. ‘바실래’에는 ㄹ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한글개역판에서는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의 ㄹ은 ‘르’로 표시하여 ㄴ과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²¹⁾, ‘바실래’는 ‘바르실래’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8) מַרְשִׁימָה나 그 짧은 꼴인 מַרְשִׁימָה를 열왕기하 25장 22-25절에서는 ‘그달리야’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예레미야 39장 14절, 40장 5-9절, 41장 1-18절, 43장 6절에서는 ‘그다랴’로 적었다. 이와는 각각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예레미야 38장 1절, 스바냐 1장 1절에서도 ‘그다랴’로, 역대상 25장 3절과 9절에서는 ‘그달리야’로, 에스라 10장 18절에서는 ‘그달랴’로 적었다. 그런데, ‘그다랴’는 מַרְשִׁימָה나 מַרְשִׁימָה를, ‘그달리야’는 מַרְשִׁימָה나 מַרְשִׁימָ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이 모두를 ‘그달랴’로 통일하여 적는 것이 가장 좋다.

(19) 모세의 아들(출2:22; 18:3; 삿18:30; 대상23:15,16; 26:24) ‘게르솜’(גֵּרְשֹׁם/ גֵּרְשֹׁם)과 비느하스의 자손(스8:2) ‘게르솜’(גֵּרְשֹׁם)은 레위의 아들인 ‘게르솜’²²⁾과는 달리 ‘게르손’으로 불리지 않는데도 개역한글판 사사기 18장 30절에서 גֵּרְשֹׁם을 ‘게르손’으로 적은 것은 잘못이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20) 사무엘하 23장 9절의 דָּדִי(‘도대’)를 마소라 학자들은 뒤이어 24절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דָּדִי(도도)인 점을 고려하여 דָּדִי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른바 <크레>(קרי)의 한 보기이다. 개역한글판에서는 9절의 경

21) “음역 시안”의 항목 2.2.20.(2)②를 보라.

22) 위 1.(4)①을 보라.

우 마소라 자음 본문 그대로, 곧 <크팁>(כתיב)을 따라 읽어 ‘도대’로 음역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24절의 וְהָאֵלֹהִים와 어긋나므로 차라리 <크레>를 따라 ‘도도’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²³⁾.

(21) וְהָאֵלֹהִים나 그 긴 풀인 וְהָאֵלֹהִים(왕하15:8; 대상15:18; 대하5:7; 시8:2 등)를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는 ‘스가리야’로 적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하 29장 1절과 그밖에 여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경우(왕하 14:29; 대하21:2; 24:20; 26:5; 스8:3; 느8:4; 사8:2; 숙1:1 등)에는 ‘스가랴’로 적는다. ‘리야’는 וְהָאֵלֹהִים를 떠올리게 하므로, ‘스가리야’를 ‘스가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2) וְהָאֵלֹהִים를 여호수아 19장 34절에서는 ‘혹곡’으로, 역대상 6장 75[60]절에서는 ‘후곡’으로 적었다²⁴⁾. 그런데, ‘혹곡’은 וְהָאֵלֹהִים를 떠올리게 하므로, ‘혹곡’을 ‘후곡’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3) וְהָאֵלֹהִים를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 ‘후르’로 적지만, 그 평행 구절인 여호수아 13장 21절에서는 ‘홀’로 적는다. 이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후르’로 음역하나, 그밖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구절(출17:10,12; 24:14; 31:2; 35:30; 38:22; 대상2:19,20,50; 4:1,4; 대하1:5)에서는 한결같이 ‘홀’로 적는다. 그런데, 한글개역판에서는 낱말 끝이나 음절 끝의 ㄱ을 ㄴ과 구별하여 ‘르’로 적는 수가 많다²⁵⁾. 그리하여, וְהָאֵלֹהִים를 וְהָאֵלֹהִים와 구별하려면²⁶⁾, ‘홀’은 ‘후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또한 이에 맞추어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וְהָאֵלֹהִים(וְהָאֵלֹהִים의 아들)를 ‘벤홀’로 음역한 것도 ‘벤후르’로 고치는 것이 좋다.

(24) וְהָאֵלֹהִים와 관사가 붙은 풀인 וְהָאֵלֹהִים(민14:45)를 여호수아 15장 30절과 사무엘상 30장 30절에서만 ‘홀마’로 적고, 나머지 경우(민14:45; 21:3; 신 1:44; 수12:14; 19:4; 삿1:17; 대상4:30)에는 ‘호르마’로 적는다. 바로 앞 항목 (23)에서 언급했듯이, 음절 끝의 ㄱ를 ㄴ과 구별하려면, ‘르’로 적는 한글개역판의 일반 경향을 따라, ‘홀마’는 ‘호르마’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5) וְהָאֵלֹהִים이나 그 복수형인 וְהָאֵלֹהִים(시42:6[7])을 신명기 3장 9절, 4장 48절, 여호수아 11장 3절, 17절, 12장 1절, 5절, 13장 5절, 11절, 역대상 5장

23) 이는 역대상 6장에서 첫머리 וְהָאֵלֹהִים에 맞추기 위해 뒤이어 나오는 וְהָאֵלֹהִים이나 וְהָאֵלֹהִים를 한글개역판에서 ‘게르손’으로 적은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우이다.

24) BHS 비평판에서는 평행 구절인 여호수아 21장 31절에 맞추어 וְהָאֵלֹהִים를 וְהָאֵלֹהִים으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25) “음역 시안”의 항목 2.2.12.(2)①과(3), 또 2.2.20.(2)②와 (3)을 보라.

26) 아래 2.(24), (25), (34), (38), (54), (57),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23절, 시편 42편 6[7]절, 89편 12[13]절, 아가 4장 8절에서는 ‘헤르몬’으로,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헬몬’으로 적었다. 우리말 모음 ‘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모음이 없고 음절 끝의 𐤂는 ‘르’로 적는 일반 경향을 따라, ‘헬몬’은 ‘헤르몬’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6) 𐤀𐤃𐤁𐤏를 사무엘하 23장 35절에서는 ‘헤스래’로 적지만, 역대상 11장 37절에서는 ‘헤스로’로 적는다. 사무엘하 23장 35절의 경우에만 그 <크레>를 따라 읽은 것이다. 역대상 11장 37절의 𐤀𐤃𐤁𐤏가 칠십인역과 수리아역에는 ‘헤스래’로 되어 있어, 이 경우도 사무엘하 23장 35절의 <크레>처럼 ‘헤스래’로 적을 수 있다.

(27) 𐤀𐤁𐤁𐤏𐤏를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는 ‘야아사니야’로²⁷⁾, 에스겔 8장 11절에서는 ‘야아사냐’로 적었다. ‘니야’는 𐤏𐤏를 떠올리게 하므로, ‘야아사니야’를 ‘야아사냐’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8) 𐤀𐤏𐤏𐤏(슥6:10)와 그 긴 풀인 𐤀𐤏𐤏𐤏(왕상13:2; 왕하21:24; 대상3:14; 대하35:19; 램1:2; 슥1:1 등 모두 52번)을 스바냐 1장 1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서만 ‘요시아’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한결같이 ‘요시아’로 적는다. ‘시아’는 𐤏𐤏나 𐤏𐤏를 떠올리게 하므로, ‘요시아’를 ‘요시아’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9) 𐤀𐤁𐤁𐤏를 사사기 19장 10절과 11절에서는 ‘여부스’로, 역대상 11장 4절과 5절에서는 ‘여브스’로 적었다. 히브리 낱말의 둘째 모음이 장모음 ‘𐤀’이므로 ‘여부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또, 𐤀𐤁𐤁𐤏나 𐤀𐤁𐤁𐤏(삼하5:6,8; 24:16,18; 대상 21:18)를 역대상 11장 4절과 6절에서는 각각 ‘여브스 토인’과 ‘여브스 사람’으로 적었는데, 이 때의 ‘여브스’는 그 각각의 평행 구절인 사무엘하 5장 6절과 8절의 경우처럼 ‘여부스’이라고 고쳐 적는 것이 좋다²⁸⁾.

(30) 𐤀𐤁𐤁𐤏를 역대상 26장 2절에서만 ‘여디아엘’로 옮기고, 나머지 경우(대상7:6,10,11; 11:45; 12:20[21])에는 모두 ‘여디아엘’로 적는다. ‘야엘’은 𐤀𐤁𐤁𐤏이나 𐤀𐤁𐤁𐤏를 떠올리게 하므로, ‘여디아엘’을 ‘여디아엘’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1)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𐤀𐤏𐤏를 한결같이 ‘요하난’(왕하25:23; 대상3:15,24; 6:9[5:35]; 6:10[5,36]; 12:4[5],12[13]; 스8:12; 느

27) 그 평행 구절인 예레미야 40장 8절과 42장 1절에서는 𐤀𐤁𐤁𐤏(여사냐)로 되어 있다.

28) 역대상 11장 4절과는 달리 사무엘하 5장 6절과 8절에서 종족을 나타내는 어미 𐤀를 한결 같이 ‘사람’으로 옮긴 것은 위 1.(5)에서 말한 바처럼 번역의 문제이지, 음역의 문제는 아니다.

12:22,23; 렘40:8,13,15,16; 41:11,13,14,15,16; 42:1,8; 43:2,4,5)로, 또 그 긴 풀인 **קָנִיָּהוּ**을 대체로(스10:6, 28; 느6:18; 12:13,42; 대상26:3 ; 대하17:15; 23:1) ‘여호하난’으로 적는다. 이 둘은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²⁹⁾, 한 군데 역대하 28장 12절의 **קָנִיָּהוּ**을 특별한 까닭 없이 ‘요하난’으로 적은 것은 ‘여호하난’으로 고쳐 적어야 한다.

(32) **אֶסְכֵּל**을 에스겔 1장 3절과 24장 24절에서는 ‘에스겔’로,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24장 16절에서는 ‘여혜스겔’로 적었다. ‘여혜스겔’이 히브리 낱말의 발음에 더 가깝지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에스겔’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3) **אַשְׁמֵל**을 창세기 46장 24절에서는 ‘야스엘’로, 민수기 26장 48절에서는 ‘야셀’로 적었다³⁰⁾. **אֲשַׁמְשָׁם** 아래의 불명료모음(**אֲשַׁמְשָׁם**)의 소리값³¹⁾을 살리자면 ‘야스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민수기 26장 48절의 **אַשְׁמֵלִי**를 ‘야셀 가족’으로 적은 것도 ‘야스엘 가족’으로 고쳐 적어야 한다.

(34) **אֲדָמָה**을 창세기 25장 15절과 역대상 1장 31절에서는 ‘여둘’로, 역대상 5장 19절에서는 ‘여두르’로 적는다. 이 이름을 **אֲדָמָה**과 구별하려면³²⁾, ‘여두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5) **נִינְוָה**와 그 긴 풀인 **נִינְוָהוּ**(렘24:1)를 역대상 3장 16절, 17절, 에스더 2장 6절,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는 ‘여고냐’로, 예레미야 27장 20절, 28장 4절, 29장 2절에서는 ‘여고니야’로 적는다. ‘니야’는 **נִי**를 떠올리게 하므로, ‘여고니야’를 ‘여고냐’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6) **אֲבִיָּא**를 역대상 3장 7절에서는 ‘야비아’로 적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5장 15절과 또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여호수아 10장 3절과 19장 12절에서는 ‘야비아’로 적는다. 낱말의 마지막 모음은 ‘도입 파타흐’(patach furtivum)이고 그 앞 모음은 완전표기된 장모음 ‘|’이므로, ‘야비아’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7) **אֶתֶל**을 사사기 8장 20절에서만 ‘여텔’로 적고, 나머지 경우(왕상2:5, 32; 대상2:17³³⁾; 4:17)에서는 모두 ‘예텔’로 적는다. ‘여텔’의 ‘여’는 **י**를 떠올리게 하므로³⁴⁾, ‘예텔’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³⁵⁾.

29) 위 1.(3)②와 견주어 보라.

30) 역대하 7장 13절에서는 이 이름이 **אַשְׁמֵלִי**(야시엘)로 나오는데, 몇몇 사본에서는 이것이 **אַשְׁמֵל**로 되어 있다.

31) 위 2.(13)와 아래 2.(39), (46), (63)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32) 위 2.(23), (24), (25), 아래 2.(38), (54), (57),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33) 열왕기상 2장 5절과 32절과 역대상 2장 17절의 **אֶתֶל**를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는 **אֶתֶלָּה**(이드라)라고 부른다.

(38) **גַּרְמִי**를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여호수아 7장 1절과 18절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창세기 46장 9절, 출애굽기 6장 14절, 민수기 26장 6절(두 번), 역대상 5장 3절에서는 ‘갈미’로 적었다. 음절 끝의 **ר**을 **ל**과 구별하여 ‘르’로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 경향을 따라서³⁶⁾, ‘갈미’를 ‘가르미’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9) **רֹדֵבַל**(삼하17:27)이나 **רֹדֵבַל** **לִוִּי**(삼하9:4,5)을 사무엘하 9장 4절, 5절에서는 ‘로드발’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는 ‘로데발’로 적었다³⁷⁾. 소리는 단순 불명료모음을 보통 ‘-’로 적는 한글개역판의 전통을 따라³⁸⁾, ‘로데발’은 ‘로드발’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0) **חַלְרוֹחֶסֶת**를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는 ‘할로헤스’로, 10장 24[25]절에서는 ‘할르헤스’로 적었다. 둘째 모음이 장모음 ‘-’이므로, ‘할로헤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1) **מַדְבָּר**나 그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붙어서 모음이 길어진 꼴인 **מַדְבָּרִי**(사 13:17; 렘25:25; 단9:1)를 보통은 ‘메대’로 적지만(왕하17:6; 사21:2; 렘25:25; 단8:20 등),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서는 ‘마대’로 적었다. 히브리 발음에는 ‘마대’가 더 가깝지만, ‘메대’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메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2) **מִישָׁא**를 창세기 36장 13절과 17절에서는 ‘미사’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1장 37절에서는 ‘밋사’로 적었다. **י**에 찍힌 **dagesh forte**를 음역하는 개역한글판의 일반 전통에 따라서³⁹⁾, ‘미사’를 ‘밋사’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⁴⁰⁾.

(43) **מַחְלִי**를 ‘마홀리’(출6:19; 대상23:21,23; 24:26,28,30)나 ‘말리’(민 3:20,33; 26:58; 대상6:19[4], 29[14], 47[32]; 스8:18)로 적는다. 첫 음절 끝 소리 **ח**의 소리값을 살려 적으려면, ‘마홀리’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4) “음역 시안”의 항목 2.2.10 (1-1) ⑥을 보라.

35) 위 2.(23), (24), (25), (34), 아래 2.(38), (54), (57), (61)의 경우에 맞춘다면, **רֹ**도 ‘에테르’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제시하려는 것은 한글개역판 구약 전서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음역의 전면 개정안이 아니고, 그저 한 고유명사를 여러 가지로 음역하는 경우의 통일안이므로, **רֹ**는 ‘에테르’로 통일하여 음역할 것을 제안할 따름이다.

36) 위 2.(23), (24), (25), (34), 아래 (54), (57),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37) 여호수아 13장 26절에 나오는 **רֹדֵבַל**을 BHS 비평란에서는 **רֹדֵבַל**-(**ל**) **לֹא**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또 아모스 6장 13절의 **רֹדֵבַל** **לֹא**를 개역한글판에서는 ‘허무한 것’으로 옮겼다.

38) 위 2.(13), (33), 아래 (46), (63)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39) “음역 시안”의 항목 2.3.(4)를 보라.

40) “음역 시안”의 항목 2.2.7.(4) ①을 보라.

(44) מַלְאָךְ(왕상11:7)이나 관사가 붙은 풀인 מַלְאָכִים을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절, 3절, 4절, 5절,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는 ‘몰렉’으로, 열왕기상 11장 7절과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몰록’으로 적었다.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 ‘에’이므로, ‘몰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5) מְעוֹנִים을 역대상 4장 41절 <크레>(크팁: מְעוֹנִים)에서는 ‘모우님 사람’으로, 역대하에서는 26장 7절에서는 ‘마온 사람’으로, 에스라 2장 50절 <크레>(크팁: מְעוֹנִים)와 느헤미야 7장 52절에서는 ‘므우님’으로 번역했다. 에스라 2장 50절의 경우에 개역한글판이 이미 <크레>를 따라 ‘므우님’으로 음역했다면 역대상 4장 41절의 경우에도 <크레>를 따라 ‘므우님 사람’으로 고쳐 적어도 괜찮겠다. 다만 역대하 26장 7절의 ‘마온 사람’도 ‘므우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46) מְשֻׁלְמוֹת을 느헤미야 11장 13절에서는 ‘므실레못’으로, 역대하 28장 12절에서는 ‘무실레못’으로 적는다⁴¹⁾. 소리나는 단순 불명료모음은 ‘ㅡ’로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⁴²⁾, ‘므실레못’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7) מַתְנָה나 그 긴 풀인 מַתְנָהוּ(대상25:4,16; 대하29:13)을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는 ‘맛다니야’로 적고, 나머지 경우(대상9:15; 25:4,16; 대하20:14; 29:13; 스10:26,27,30,37; 느11:17,22; 12:8,8,25,35; 13:13)에는 ‘맛다냐’로 적는다. ‘니야’는 מַתְנָהוּ를 떠올리게 하므로, ‘맛다니야’를 ‘맛다냐’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8) מַתְנֵה나 그 긴 풀인 מַתְנֵהוּ(대상15:18,21; 25:3, 21)을 역대상 15장 18절, 21절, 25장 3절, 21절, 에스라 10장 43절에서는 ‘맛디디아’로, 역대상 9장 31절과 느헤미야 8장 4절에서는 ‘맛디다’로, 역대상 16장 5절에서는 ‘맛디디아’로 적었다. ‘디아’와 ‘디아’는 각각 תֵּאָה 또는 תֵּעָה와 תֵּ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이 모두를 ‘맛디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9) מְעוֹרִיָּה나 그 긴 풀인 מְעוֹרִיָּהוּ(왕상4:2; 왕하15:6; 대하26:17 등)가 구약 성경에 모두 49번 나오고 서로 다른 열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 이름을 보통은 ‘아사랴’로 적지만(왕하14:21; 대상6:36[21]; 대하22:6; 느3:23; 렘43:2; 단1:6 등), 열왕기상 4장 2절과 5절에서는 ‘아사리아’로 적었다. ‘리아’는 מְעוֹרִיָּה나 מְעוֹרֵ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사리아’는 ‘아사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0) מְעוֹרִיָּים이나 두 낱말 사이에 이음줄을 친 풀인 מְעוֹרִיָּים(수19:21)을

41) 역대상 9장 12절에는 ‘므실레밧’(מְשֻׁלְמִיָּת)으로 나온다.

42) 위 2.(13), (33), (39), 아래 (63)도 그런 경우이다.

여호수아 15장 34절에서는 ‘엔간님’으로, 이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19장 21절과 21장 29절에서는 각각 ‘언간님’과 ‘언 간님’으로 적었다. 첫 낱말의 모음이 장모음 ‘ַ’이고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장소를 가리키므로, ‘엔간님’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1) **עֵינֵי רָגֵל**을 여호수아 15장 7절에서는 ‘엔로겔’로, 18장 16절에서는 ‘엔 로겔’로, 사무엘하 17장 17절과 열왕기상 1장 9절에서는 ‘에느로겔’로 적었다. 첫 낱말의 마지막 자음인 **ג**은 우리말 끝소리 ‘ㄴ’으로 옮기면 충분하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장소를 가리키므로, ‘엔 로겔’과 ‘에느로겔’은 ‘엔로겔’로 고치는 것이 좋다.

(52) 사무엘하 13장 37절의 **עַמִּיהוּרָה**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암미홀’로 음역했으나, 이는 여러 사본과 <크레>를 따라 ‘암미훗’(민1:10; 2:18; 7:48,53; 10:22; 34:20,28; 대상7:26; 9:4)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3) **עַמְשֵׁי**나 그 마지막 모음이 강세 때문에 길어진 풀인 **עַמְשֵׁי**(대상6:20)을 역대상 6장 25[10]절, 35[20]절, 12장 18[19]절, 역대하 29장 12절에서는 ‘아마새’로 적고, 역대상 15장 24절에서는 ‘아미새’로 적는다. 히브리 낱말의 둘째 모음이 ‘א’이므로, ‘아미새’는 ‘아마새’로 바로잡아야 한다.

(54) **עֵר**를 창세기 38장 3절, 6절, 7절, 46장 12절(두 번)에서는 ‘엘’로, 같은 사람을 민수기 26장 19절(두 번)과 역대상 2장 3절(두 번)에서는 ‘에르’로 적는다. 또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4장 21절에서도 ‘에르’로 적는다. **עֵר**를 **עַל**과 구별하려면⁴³⁾, ‘에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5) **עַרְבֵי**를 이사야 13장 20절에서는 ‘아라비아 사람’으로, 예레미야 3장 2절에서는 ‘아라바 사람’으로 번역했다. 이 두 구절의 경우에는 **עַרְבֵי**가 종족 개념보다는 광야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의 생활방식을 암시하므로, ‘아라비아 사람’보다는 ‘아라바 사람’으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아라비아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로는 **עַרְבֵי**가 있다⁴⁴⁾.

(56) 장소 이름으로나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בְּנוֹאֵל**을 보통은 ‘브누엘’로 적는데(삿8:8,8,9,17; 대상4:4; 8:25),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는 ‘부느엘’로, 창세기 32장 31[32]절에서는 ‘브니엘’로 적었다. 마지막 경우는 그 바로 앞 절인 30[31]절의 ‘브니엘’(בְּנוֹאֵל)과 맞추기 위해 개역한글판에서 그렇게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히브리 모음으로 보면, ‘브누엘’로 통일할 수 있다.

43) 위 2.(23), (24), (25), (34), (38), 아래 2.(57), (61)도 같은 경우이다.

44) **עַרְבֵי**(느2:19; 6:1)나 그 복수형인 **עַרְבִים**(대하21:16; 22:1; 26:7; 느4:7[1])을 개역한글판에서 한결같이 ‘아라비아 사람’(대하17:11; 21:16; 22:1; 26:7; 느2:19; 4:7[1]; 6:1)으로 옮겼다.

45) 이는 위 1.(4)의 또 다른 보기이다.

(57) 사람 이름 שׂוּר을 민수기 25장 15절과 31장 8절에서는 ‘수르’로, 여호수아 13장 21절과 역대상 8장 30절과 9장 36절에서는 ‘술’로 적는다. 이 이름을 שׂוּר과 구별하려면⁴⁶⁾, ‘수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8) רָבָּה나 ‘방향의 헤’가 붙은 풀인 רָבָּה(삼하12:29)나 관사가 붙은 풀인 רָבָּה(수15:60)를 그것이 암몬의 수도를 가리킬 때는 ‘랍바’로 적는데, 이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여호수아 15장 60절에서는 ‘라빠’로 적었다. 한글개역판에서는 히브리 고유명사 음역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라빠’를 ‘랍바’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9) רָבָּה나 관사가 붙은 풀인 רָבָּה(민34:11)나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풀인 רָבָּה(왕하25:6,20; 렘39:5; 52:9,10,26⁴⁷⁾)을 민수기 34장 11절에서만 ‘리블라’로 적고, 나머지 경우(왕하23:33; 25:6,20,21; 렘39:5,6; 52:9,10,26,27)에는 모두 ‘립나’로 적었다. ‘립나’로 음역할 수 있는 지명 רָבָּה는 따로 있으므로⁴⁸⁾, 위의 경우는 모두 ‘리블라’로 바꾸어 통일하는 것이 좋다.

(60) רָבָּה를 열왕기하 15장 25절, 27절, 30절, 32절, 37절, 16장 1절, 5절, 역대하 28장 6절에서는 ‘르말라’로 적고, 이사야 7장 1, 4, 5, 9절, 8장 6절에서는 ‘르말리야’로 적었다. ‘리야’는 רָבָּה를 떠올리게 하므로, ‘르말리야’를 ‘르말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61) שׂוּר나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풀인 שׂוּר(삼상27:8)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수르’로 적지만, 나머지 경우(창16:7; 20:1; 25:18; 삼상15:7; 27:8)에는 ‘술’로 적는다. 그렇지만, 이를 שׂוּר과 구별하려면⁴⁹⁾, ‘수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2) שׂוּר을 창세기 36장 36절과 37절에서는 ‘삼라’로, 역대상 1장 47절과 48절에서는 ‘사물라’로 적었다. 낱말의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ל가 불명료모음(이 경우에는 ‘무성 <쉬와>’임) 바로 뒤에 있을 때에는 받침 <ㄹ>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⁵⁰⁾, ‘사물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3) 지역 또는 사람의 이름인 שׂוּר을 예레미야 6장 20절에서는 ‘시바’⁵¹⁾

46) 위 2.(23), (24), (25), (34), (38), (54), 아래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47) 에스겔 6장 14절의 רָבָּה를 더러 רָבָּה로 고쳐 읽기도 한다. BHS 비평판을 보라.

48) 민수기 33장 20절과 21절, 여호수아 10장 29절 등에 나온다.

49) 위 2.(23), (24), (25), (38), (54), (57)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50) “음역 시안”, 2.2.12. (1-2)를 보라.

51) 예레미야 6장 20절의 שׂוּר말고 개역한글판에서 ‘시바’로 음역하는 히브리 고

로 적지만, 다른 경우(창10:7후, 28; 왕상10:1; 대상1:32; 대하9:1; 욥1:15; 시 72:10⁵²); 사60:6; 겔27:22 등)에는 모두 ‘스바’로 적는다⁵³). 소리나는 단순 불명료모음을 개역한글판에서는 보통 ‘-’로 음역하므로⁵⁴), ‘스바’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4) שָׁבָא를 사사기 9장 50절(두 번)에서는 ‘데베스’로,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는 ‘데벳스’로 적었다. ‘베’에 굳이 받침 ‘ㅅ’을 붙일 까닭이 없으므로, ‘데베스’로 통일할 수 있다.

3. 한글개역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통일 제안 일람표

아래 교정 제안 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의 개정 제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미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개정판이나 개역개정판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어느 번역본도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는 공동번역이 그래도 통일된 음역 표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위에서 다룬 64 경우에 공동번역의 음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개역한글판의 음역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표준새번역과는 달리,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공동번역을 참고하면서 여러 경우에 표준새번역의 음역을 교정하고 있다.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이 한글개역판의 음역을 고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유명사로는 שָׁבָא(대상4:16)와 שָׁבָאָה나 שָׁבָא (삼하9:2,2,3,4,9,10,11,12; 16:1,2,2,3,4,4; 19:17[18],29[30])과 שָׁבָא(시72:10절)이 있다.

52) 시편 72편 10절의 ‘스바’ 다음에 나오는 ‘시바’는 히브리 지명 שִׁבָּא의 음역이다. 이 שִׁבָּא가 창세기 10장 7절 전반절과 역대상 1장 9절 전반절과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 ‘스바’로 음역되어 있다.

53) שָׁבָא라고 개역한글판에서 ‘스바’로 음역하는 히브리 고유명사로는 바로 앞 각주에서 언급한 שָׁבָא가 있다. 창세기 10장 7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상 1장 9절에는 각각 전반절에 שָׁבָא가, 후반절에 שָׁבָא가 나오는데, 개역한글판에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스바’로 옮김으로써, 분명히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우연히도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는 히브리 자모 ש와 ט를 마찬가지로 ‘ㅅ’으로 적는 개역한글판 음역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54) 위 2.(13), (33), (39), (46)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장절 개역한글판의 표기 교정 제안 다른 공인한글번역본의 개정 내용⁵⁵⁾

1. 창10:2	마대	메대	공*: 메대
2. 창10:10	바벨	바벨론	표*: 바빌론
3. 창11:9	바벨	바벨론	표*: 바벨56)
4-5. 창16:7; 20:1	술	수르	공*/표개: 수르
6. 창25:15	여둘	여두르	표개: 여두르, 공*: 여틀
7. 창25:18	술	수르	공*/표개: 수르
8-9. 창36:13,17	미사	밋사	표개: 밋사, 공*: 미짜
10-11. 창36:36,37	삼라	사물라	공*: 사물라
12-14. 창38:3,6,7	엘	에르	공*/표개: 에르
15. 창46:9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6-17. 창46:12,12	엘	에르	공*/표개: 에르
18. 출6:14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9-24. 출17:10,12; 24:14; 31:2; 35:30; 38:22	홀	후르	공*: 후르
25-26. 민3:20,33	말리	마홀리	공*/표*: 마홀리
27-28. 민26:6,6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29-30. 민26:48,48	야셀	야스엘	표개: 야스엘, 공*: 야하스엘
31. 민26:58	말리	마홀리	공*,표*: 마홀리
32-33. 수7:1,18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34. 수13:21	술	수르	공*/표*: 수르
35. 수13:21	홀	후르	공*: 후르
36. 수15:30	홀마	호르마	공*/표개: 호르마
37. 수15:58	벧 술	벧술	공*/표*: 벧술
38. 수15:60	랍바	랍바	개개/표개: 랍바
39-40. 수17:11,16	벧 스안	벧스안	공*/표: 벧스안, 표개: 벧산
41. 수18:16	엔 로겔	엔로겔	공*/표*: 엔로겔
42. 수19:21	엔간님	엔간님	개개: 엔 간님, 공*: 엔간님
43. 수19:34	후곡	후곡	공*: 후곡
44. 수21:29	엔 간님	엔간님	개개: 엔 간님, 공*: 엔간님

55) ‘개개’, ‘표’, ‘표개’, ‘공’, ‘공개’는 각각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판, 공동번역, 공동번역개정판을 가리키고, ‘표표*’는 표준새번역과 표준새번역개정판이 같은 경우를, ‘공*’는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이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대조에 이끌어 쓴 번역본은 『굿뉴스스터디 바이블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 광주: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95), 『공동번역성서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이다.

56) 난하주에 ‘바빌론을 가리킴’이라 적어 놓았다.

45. 사1:27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46. 사1:31	아빅	아백	표개: 아백
47. 사8:20	여텔	예텔	공*/표개: 예텔
48. 사18:28	베드르흙	벤르흙	공*: 벳르흙
49. 사18:30	게르손	게르숨	개개/공*: 게르숨
50. 삼상7:1	엘리아살	엘르아살	공*: 엘르아잘
51. 삼상12:11	베단	브단	공*: 바락
52-53. 삼상15:7; 27:8	술	수르	공*/표개: 수르
54. 삼상30:30	홀마	호르마	공*/표개: 호르마
55-70. 삼하11:3,6,6,7,8,8,9,10,10,11,12,12,14,15,16,17			
	우리아	우리아	공*: 우리아 ⁵⁷⁾
71. 삼하11:21	테벳스	테베스	공*: 테베스
72-78. 삼하11:21,24,26,26; 12:9,10,15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79. 삼하13:37	암미홀	암미훗	공*/표개: 암미훗
80. 삼하17:17	에느로겔	엔로겔	공*: 엔로겔, 표개: 엔 로겔
81. 삼하17:27	로데발	로드발	공*: 로드발
82. 삼하21:8	바실래	바르실래	개개/표*: 바르실래, 공*: 바르질래
83. 삼하21:12	벳산	벤산	
84. 삼하23:9	도대	도도	공*/표*: 도도
85. 삼하23:39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86. 왕상1:9	에느로겔	엔로겔	표개: 엔 로겔, 공*: 엔로 샘터
87-88. 왕상4:2,5	아사리아	아사라	표개: 아사라, 공*: 아자리아
89. 왕상4:8	벤홀	벤후르	공*: 후르의 아들
90. 왕상4:12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91. 왕상11:7	몰룩	몰렉	표개: 몰렉
92. 왕상11:23	엘리아다	엘라다	공*: 엘리아달
93. 왕상12:25	부느엘	브누엘	공*/표개: 브누엘
94. 왕상15:5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95. 왕하18:2	스가리아	스가라	공*/표개: 즈가리아
96-99. 왕하18:18,26,37;19:2			
	엘리아김	엘리아김	공*: 엘리아김
100. 왕하22:3	아살리아	아살라	표개: 아살라
101. 왕하23:10	몰룩	몰렉	공*/표개: 몰렉

57)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히브리 본문 사무엘하 11장 8절에 두 번 나오는 ‘우리아’를 한 번밖에 번역하지 않는다.

102. 왕하23:33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03. 왕하24:17	맛다니아	맛다나	공*: 마따니아
104-106. 왕하25:6,20,21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07. 왕하25:23	야아사니아	야아사나	표개: 야아사나, 공*: 야자니아
108. 대상1:5	마대	메대	
109. 대상1:31	여둘	여두르	표개: 여두르, 공*: 여틀
110-111. 대상2:19,20	홀	후르	공*: 후르
112. 대상2:24	에브라다	에브랏	
113. 대상2:45	벳술	벨술	
114. 대상2:50	에브라다	에브랏	
115. 대상2:50	홀	후르	공*: 후르58)
116. 대상3:7	야비아	야비아	개개/공*/표개: 야비아
117-118. 대상3:23,24	엘료에내	엘료에내	표개: 엘료에내, 공*: 엘요애내
119-120. 대상4:1,4	홀	후르	공*: 후르
121. 대상4:4	에브라다	에브랏	
122. 대상4:34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자, 공*: 아마지야
123. 대상4:41	모우님	므우님	공*/표개: 므우님
124. 대상5:3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25-126. 대상6:19[4],29[14]	말리	마홀리	공*/표개: 마홀리
127-128. 대상6:45[30],45[30]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자, 공*: 아마지야
129. 대상6:47[32]	말리	마홀리	공*: 마홀리
130. 대상7:29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131. 대상8:14	아히요	아효	공*: 아효
132. 대상8:30	술	수르	공*/표개: 수르
133. 대상8:31	아히오	아효	공*: 아효, 표개: 아히요
134. 대상9:36	술	수르	공*/표개: 수르
135. 대상9:37	아히오	아효	공*: 아효
136-139. 대상11:4,4,5,6	여부스	여부스	개개/공*59)/표*: 여부스
140. 대상11:37	헤스로	헤스래	
141. 대상11:41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42. 대상13:7	아히오	아효	공*: 아효, 표개: 아히요
143-144. 대상15:18,21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45. 대상15:24	아미새	아마새	공*/표개: 아마새

58) 히브리 본문 역대하 2장 50절의 רִבְלָא 가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51절에 번역되어 있다.

59)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 역대상 11장 4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두 번 나오는 ‘여부스’를 한 번만 번역했다.

146. 대상16:5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47. 대상24:16	여헤스겔	에스겔	공*: 에헤즈겔
148-149. 대상25:3,21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50. 대상26:2	여디아엘	여디아엘	공*/표개: 여디아엘
151. 대하1:5	홀	후르	공*: 후르
152. 대하17:16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샤
153. 대하17:17	엘리아다	엘라다	
154. 대하28:12	요하난	여호하난	공*: 여호하난
155. 대하28:12	므실레못	므실레못	공*/표개: 므실레못
156. 스2:11	브배	베배	공*: 베배
157. 스8:18	말리	마홀리	공*/표개: 마홀리
158. 스8:33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59. 스10:43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60. 느3:4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61. 느7:16	브배	베배	공*: 베배
162. 느10:24[25]	할르헤스	할로헤스	공*: 할로헷
163. 시132:6	에브라다	에브랏	
164. 시133:3	헬몬	헤르몬	공*/표개: 헤르몬
165-169. 사7:1,4,5,9; 8:6	르말리아	르말라	
170. 사13:20	아라비아	아라바	공*/표*: 아랍
171. 렘6:20	시바	스바	표개: 스바, 공*: 세바
172-173. 렘27:20; 28:4	여고니아	여고냐	표개: 여고냐
174. 렘29:2	여고니아	여고냐	표개: 여고냐, 공*: 여호야긴
175-176. 렘39:5,6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77-178. 렘52:9,10	립나	리블라	개개/공*/표개: 리블라
179-180. 렘52:26,27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81. 미5:2[1]	에브라다	에브랏	
182. 습1:1	요시아	요시아	개개/공*/표개: 요시아
183. 습6:10	요시아	요시아	공*/표개: 요시아

<Abstract>

A Proposal for Coherent Transliteration of Hebrew Proper Nouns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Dong-Hyun Park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offer a table of coherent transliteration in 64 cases covering 183 verses, and in which a Hebrew proper noun is transliterated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in two or more different ways. Each case has been reviewed and evaluated on the basis of my own observations on the transliteration system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cf. JBTS 8 [Feb., 2000], pp.16-157) and on the related materials of the Korean Bible Society.

구약의 악기에 대한 소고와 우리말 번역에 대한 고찰

이성실*

1. 들어가는 말

구약 성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구약 성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악기 이름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사한 악기의 이름에 대응이 되도록 번역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의 악기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잊혀지고 중세의 유럽어로 번역될 때에는 유럽인들이 경험한 악기의 이름에 한정되어 버렸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서의 악기들은 20세기에 들어서 고대 이스라엘이 자리했던 지역과 그 인근에서 발굴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새로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히브리어 성서에 나타나는 악기의 실체에 대한 규명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¹⁾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성서의 원문에 충실히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성서의 악기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좀더 구체적이며 명확한 모습을 찾아내고, 아울러 우리말 번역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구약 성경의 악기들

2.1. 킨노르와 네벨

2.1.1. 킨노르(rANKi ; 리라, 기타라)

창4:21, 창31:27, 삼상10:5, 삼상16:16, 삼상16:23, 삼하6:5, 왕상10:12, 대상13:8, 대상15:16, 대상15:21, 대상15:28, 대상16:5, 대상25:1, 대상25:3, 대상25:6, 대하5:12, 대하9:11, 대하20:28, 대하29:25, 느12:27, 읍21:12, 읍30:30, 시33:2, 시43:4, 시49:4, 시57:8, 시71:22, 시81:2, 시92:3, 시98:5(2회), 시108:2, 시137:2, 시147:7, 시149:3, 시150:3, 사5:12, 사16:11, 사23:16, 사24:8, 사30:32, 겔26:13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과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현악기들의 모습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그 현

* 한양대학교 졸업, 현재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에서 음악학을 공부 중.

1) 성서의 악기를 학문적으로 규명한 괄목할 만한 첫 번째 성과는 1940년에 출판된 Curt Sachs의 저서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로 볼 수 있다.

악기들은 악기의 구조상 모두 리라²⁾에 속하는데 킨노르 역시 리라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킨노르는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서기 500년경까지 근동 지역에서 폭넓게 쓰인 악기로 판명된다.³⁾

구약에서 킨노르는 42회 나타난다. 창4:21에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 유발에 대한 기사가 처음 나오고, 족장들의 시대에서부터 왕국 시대, 포로기 이후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등장한다. 또 성전의 예배에서부터 세속적인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대 번역 성서를 살펴보면, 그리스어 칠십인역(Septuaginta)에서는 kithara (20회), kinura(19회), psalterion(5회), organon(1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번역되어 있다. kithara는 리라의 일종이고 kinura는 킨노르를 가리키는 셈족의 언어가 그리스어로 표기된 것이다. 라틴어역 불가타(Vulgata)에서는 cithara (37회), lyra(2회), psalterium(2회), organum (1회)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cithara와 lyra는 모두 리라의 종류이다. 시리아어역 페쉬타(peshita)에서는 36회를 kinora로, 아람어역 타르굼(Targum)에서는 27회를 kinora로 표현하고 있다.⁴⁾

고대어 성경에서는 킨노르를 분명히 리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근동 지역에서 리라의 쓰임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리라와 하프⁵⁾가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왕역(*The King James Versions*, 1611)에서는 킨노르를 모두 하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왕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어개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85), 미국표준역(*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새제임스왕역(*The New King James Version*, 1979/82)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영어 번역본에서 킨노르를 하프로 번역하고 있다.

미국 개역표준성서(*The Revised Standard Version*), 미국 새개역표준성서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는 대체로 킨노르를 리라로 번역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하프도 사용했고, 새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78)은 대부분 하프로 번역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리라도 쓰고 있다. 이외에 류트, 싹터, 기타라, 찌터 등 다양한 현악기의 이름들이 사용되었다.

2.1.2. 네벨(lb,nE ; 리라, 기타라)

삼상10:5, 삼하6:5, 왕상10:12, 대상13:8, 대상15:16, 대상15:20, 대상15:28, 대상25:1, 대상25:6, 대하5:12, 대하9:11, 대하20:28, 대하29:25, 느12:27, 시57:8, 시81:2, 시108:2, 시150:3, 사5:12, 사14:11, 암5:23, 암6:5, 대상16:5, 시71:22,

네벨 아소르; 시33:2, 시92:1-3, 시144:9

네벨의 모양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네벨이 현악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Sachs(1940), Sendrey(1969)를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Seidel(1989)까지 많은 음악학자들은 네벨을 하프로 평가했지만⁶⁾,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에서 하프 종류로 생각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네벨이 하프라는 평가는 더 이상 지지를

2) 리라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U자 형의 틀 윗 부분에 횡목을 대고 그 횡목과 아래 부분의 틀에 현을 매거나 받침대에 두 개의 틀을 세우고 그 틀 위에 횡목을 대고 그 횡목과 아래의 틀에 여러 줄의 현을 맨다. 악기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들고 탈 수 있는 크기가 많이 보인다.

3) E. Werner, *Die Musik im alten Israel*, from *Neues Handbuch der Musikwissenschaft* Bd.1, ed by Carl Dahlhaus; Laaber-Verlag, 1989, Wiesbaden, 77쪽.

4) 칠십인역과 불가타, 페쉬타, 타르굼에 번역된 악기 이름에 대한 자료는 A. Sendrey의 *Musik in Alt-Israel*에서 인용했다.

5) 하프는 리라와는 달리 몸체를 가로지르는 횡목을 대지 않고 틀의 한쪽에서 맞은편에 줄을 이어서 손가락이나 골무 혹은 그 외 도구를 이용하여 연주한다. 하프의 틀 형태는 원형이나 삼각형 등 다양하다.

6) MGG 2판 Sachteil1, 1521쪽.

받지 못한다. 네벨은 킨노르와 함께 왕국 시대 이전부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악기들은 모두 리라의 형태인 것으로 보아 네벨 역시 킨노르와 유사한 리라의 일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킨노르와 어떤 세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네벨은 킨노르보다 큰 악기로 간주된다.⁷⁾ Bayer의 연구에 따르면 네벨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던 악기이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악기로 평가된다.⁸⁾

네벨은 구약에 모두 28회 나오는데 23회는 킨노르와 짝을 이룬다. 칠십인역에서는 *nabla*(14회), *psalterion*(8회), *organon*(2회), *kithara*(1회) 등으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psalterium*(17회), *lyra*(4회), *nablium*(3회), *cithara*(1회) 등으로 번역했다. *nabla*는 네벨이 그리스어화한 것이고 *psalterion*는 그리스 시대에는 현악기를 가리키는 일반적 명칭이라고 고증된다.⁹⁾ 이 명칭이 불가타역에서 *psalterium*로 나타났고 이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럽어 번역 성경에서는 네벨의 번역으로 쉘터를 자주 사용했고, 그 외 리라, 하프, 쥘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2.1.3. 네벨 아소르(*rAf*[' lb,nE])

네벨 아소르는 구약에서 모두 세 번 나온다. 아소르의 어원은 '10, 열'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번역 성경들은 이 단어를 현의 수를 나타내는 수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아소르가 단순히 수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니라 독립적인 악기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¹⁰⁾ 아직 구체적 모습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 번역 성경에서는 아소르를 독립적인 악기 이름으로 보지 않고 네벨의 줄 수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은 시33:2, 시144:9의 네벨 아소르를 아소르를 네벨의 수식으로 보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예이다.

열 줄 악기 *an instrument of ten strings*(제임스왕역, 새제임스왕역)

열 줄 쉘터 *the psaltery of ten strings*(미국표준역)

열 줄 리라 *the ten-stringed lyre*(새국제역,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열 줄 하프 *a harp of ten strings*(새미국표준성서, 미국개역표준성서, 미국새개역표준성서)

킨노르와 네벨이 자주 짝을 이뤄 나오지만 시92:3처럼 현악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은 없다. 시95:3은 다른 두 곳과는 달리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소르와 네벨이 서로 두 개의 악기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부분의 번역들은 아소르를 개별적 악기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시92:3

열 줄 악기, 쉘터 *an instrument of ten strings, the psaltery* (제임스왕역, 미국표준역)

열 줄 류트, 하프 *the ten-stringed lute, the harp*(새미국표준성서)

류트 음악, 하프 *the music of the lute, the harp*(미국개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열 줄 악기, 류트 *an instrument of ten strings, the lute*(새제임스왕역)

7) A. Sendrey, *Musik in Alt-Israel*, Deutscher Verlag für Musik, Leipzig, 1970, 264쪽.

8) MGG 2판 Sachteil1, 1521쪽.

9) Sendrey, 261쪽.

10) MGG 2판 Sachteil1, 1521쪽. Sendrey, *Musik in Alt-Israel*, 270쪽.

리라, 열 줄 리라 the lyre, the ten-stringed lyre (새예루살렘성서)

그러나 새국제역과 새 미국성서, 개정 루터역, 독일어 공동번역에서는 시33:2, 시144:9처럼 아소르를 수식으로 보고 네벨 아소르를 하나의 악기로 번역하고 있다.

열 줄 리라 the ten-stringed lyre(새국제역)

열 줄 하프 the ten-stringed harp(새미국성서)

2.1.4. 현악기를 연주하다(!gn)

삼상16:18, 삼상18:10과 삼상19:9, 왕하3:15, 사38:20, 합3:19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모두 여섯 곳이다. 개역에서는 두 곳(삼상 16:18, 왕하3:15)을 제외한 네 곳에 수금을 넣어서 번역했다. 삼상16:18에서는 악기 이름을 넣지 않고 ‘탈 줄을 알고’로 번역했으며 왕하3:15에서는 거문고를 넣어 번역하였다. 구약에서 거문고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삼상16:18에 수금을 넣어 ‘수금을 탈 줄을 알고’로 바꾸었고 왕하3:15를 포함하여 다른 곳은 개역과 같다. 공동번역에서는 사38:20에는 거문고를 넣어 번역하였고 나머지는 수금을 넣어 번역하였다. 표준새번역은 다섯 군데에서 수금을 넣어 번역했고 왕하3:15에는 거문고를 부가하여 번역했다.

유럽의 번역 성경에서도 악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연주하다(영어;played, 독일어;spielte, 프랑스어;jouait, 이탈리아어;suonava)’라는 표현만 써서 번역한 성경은 제임스왕역, 독일어 공동번역, 독일어 엘버펠더역, 프랑스어 새제네바역, 이탈리아어 새성경상파울루분 등이고 대부분은 우리말 성경처럼 하프나 리라를 부가하여 번역했다. 새제임스왕역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다(played music)’라고 번역하였다.

2.1.5. 한국어 성경 속의 킨노르와 네벨

개역과 개역개정판은 킨노르를 42회 모두 수금(豎琴)으로, 네벨은 28회 모두 비파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킨노르를 비파로, 네벨은 거문고로 번역하였지만 개역만큼 일관적이지 못하다. 여섯 군데에서는 킨노르를 거문고로 번역하였고,¹¹⁾ 시98:5에는 수금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 한 번은 거문고로 한 번은 수금으로 번역했다. 킨노르를 비파로 네벨을 거문고로 번역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킨노르와 네벨이 같이 나오는 구절 중 세 곳(대하29:25, 시81:2, 시57:8)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 외 대하5:12에서는 거문고가 아닌 칠현금으로 번역했고, 대상16:5에서는 네벨이 소구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의 예를 따라 거문고로 번역했지만 왕상10:12에서는 하프로 번역했다.

네벨 아소르가 나오는 세 곳을 살펴보면, 개역은 시33:2과 시144:9을 ‘열 줄 비파’로 시92:3을 십현금과 비파로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열 줄 비파(시33:2), 열 줄 거문고(시144:9)로, 시92:3은 ‘열 줄 비파’와 거문고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에는 시33:2과 144:9을 ‘열 줄 거문고’, 시92:3은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로 번역되었다.

2.2. 우가브와 할릴

11) 거문고로 번역한 곳 : 창4:21, 욥21:12, 시57:8, 시108:2, 사30:32, 겔26:13.

2.2.1. 우가브(bg"W[; 파이프¹²⁾, 플루트¹³⁾)

창4:21, 욥21:12, 욥30:31, 시150:4

우가브(또는 abub)는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하여 인근의 근동 지역에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두루 쓰이고 있는 보편적인 관악기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 악기는 어원이나 모양, 쓰임새는 명확하지 못하다. 악기의 종류가 관악기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명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Sachs는 리드가 없이 세로로 부는 긴 관악기로 간주했는데¹⁵⁾ 그 외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¹⁶⁾ 그러나 Sendrey는 우가브를 특정한 형태의 관악기가 아닌, 관악기를 총칭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보았다.¹⁷⁾ 시150:4에서 우가브가 현(絃), 줄을 의미하는 민남과 대구로 나오는데, 이것을 방증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창세기와 욥기에서도 현악기를 대표하는 킨노르와 같이 쓰여 관악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욥기와 시편에서는 타악기를 대표하는 토프, 현악기를 대표하는 킨노르와 같이 쓰여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가브에 대한 번역 또한 현악기들의 경우처럼 일정하지 않은데, 칠십인역에서는 세 가지(kithara, psalmos, organon)로 번역되어 있고 불가타에는 organum으로만 번역되어 있다. 페쉬타에서도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고, 타르굼에서는 abbuba로 번역되었다. 우가브는 abub로 대체되었고 그 이후로는 abub가 여러 랍비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가브가 금속으로 된 마우스피스나 리드를 꽂아 연주하는 관악기임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¹⁸⁾ 그러나 이 자료에서 우가브(또는 abub)가 특정한 구조의 관악기를 지칭한다 해도 창세기와 욥기 시편에서 쓰인 관악기의 모양이 모두 같거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어 성경 중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플루트와 파이프를 번역했는데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경우는 드물다. 프랑스어 성경 중(루이 세공역, 새제네바역) 샬뤼모(Chalumeaux)¹⁹⁾로 번역한 것이 있고, 독일어 엘버펠터역(1905)에선 샬마이(Schalmei)²⁰⁾로 번역했다.

2.2.2. 할릴(lylix' ; 오보에, 더블오보에)

삼상10:5, 왕상1:40, 사5:12, 사30:29, 렘48:36

할릴 역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관악기이다. 여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이는 관악기들이 할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리드가 있는 쌍으로 된 관악기이다. 그러나 홀리드인지 겹리드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²¹⁾ 테라코타나 여러 가지 유적, 유물에 새겨진 모습만으로는 겹리드인지 홀리드인지 밝혀내기 어렵지만 일반

12) 파이프(pipe)는 리드 없이 입김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대롱 형태의 관악기를 가리킨다.

13) 플루트(flute)는 리드 없이 입김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대롱이나 통 형태의 관악기를 가리키는데, 훈(埴)과 오카리나도 플루트의 종류에 속한다.

14) MMG 2판 Sachteil I 1529쪽. Werner, 76쪽.

15) C.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06쪽.

16) Sendrey, 287쪽.

17) Sendrey, 289쪽.

18) And they did not play on a pipe of bronze, but on a reed-pipe, since its sound was sweeter (Mishnah, Arakin, II:4) Sendrey, 영문판 393쪽에서 재인용.

19) 유럽 중세시대의 홀리드 악기로, 클라리넷의 전신.

20) 리드를 쓰는 악기를 가리키는 말.

21) 홀리드 관악기는 클라리넷에 속하고, 겹리드 관악기는 오보에에 속한다.

적인 악기 발달 과정을 감안하면 꺾리드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약에는 할릴이 다섯 군데에 여섯 번 등장하는데, 축제나 기쁨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레미아에서는 정 반대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왕상1:40(en chorois; 춤을 추며)을 제외하고는 aulos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tibia로 번역했다. 페쉬타에서는 한 번은 생략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 번역하였으며 타르굼에서도 명칭에 혼동을 보이고 있다.

칠십인역에 번역된 aulos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관악기로써 더블오보에에 해당한다. 칠십인역에 aulos로 번역되던 시기에는 할릴이 이와 유사한 악기였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악기의 명칭은 고정되어 있어도 악기의 구조는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리고 칠십인역이 번역되는 시기보다 훨씬 오래 전에 기록된 구약의 문서에 쓰인 할릴이 aulos와 구조가 유사한 악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삼상과 왕상의 시대적 배경은 서로 가까운 만큼 할릴이 동일한 악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기록된 시기와 배경이 다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할릴은 이전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가브와 마찬가지로 플루트와 파이프를 일관성 없이 번역했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성경에서도 플루트와 파이프를 섞어서 번역했다.

2.2.3. 한국어 성경 속의 우가브와 할릴

우가브는 구약에 네 번 등장한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통소(창4:21, 시150:4)와 피리(욥 21:12, 욥30:30)로 번역되었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창4:21만 통소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피리로 번역되었다.

할릴은 모두 다섯 군데에서 여섯 번 등장하는데 피리(왕상1:40, 렘48:36에 2회)와 저(삼상 10:5, 사5:12, 사30:29)로 번역되었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모두 피리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판에서는 삼상10:5을 제외하고 모두 피리로 바꾸었다.

2.3. 하초츠라와 쇼파르

2.3.1. 하초츠라(hr'c.Acx] ; 트럼펫²²⁾)

민10:2, 민10:8, 민10:9, 민10:10, 민31:6, 왕하11:14, 왕하12:14, 대상13:8, 대상15:24, 대상 15:28, 대상16:6, 대상16:42, 대하5:12(3회), 대하5:13, 대하13:12, 대하13:14, 대하15:14, 대하 20:28, 대하23:13(2회), 대하29:26, 대하29:27, 대하29:28, 스3:10, 느12:35, 느12:41, 시98:6, 호 5:8

하초츠라는 구약에서 축제, 군중의 소집, 각종 제의 등에서 폭넓게 쓰인다. 또한 성전의 중요한 악기이며 제사장의 악기로써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초츠라는 금속으로 만든 나팔로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게 구약 본문에(민10:2) 나와 있다. 이런 종류의 금속 나팔, 즉 트럼펫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칠십인역은 스물 일곱 군데를 salpinx(트럼펫에 해당하는 악기)로 번역했고 한 군데(대하 5:13)를 누락시켰다. 쇼파르와 하초츠라가 함께 등장하는 호5:8에서는 하나의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salpisate salpingi; 트럼펫을 불다). 불가타 역에는 스물 일곱 군데에서 tuba로 번역하였

22) 트럼펫(trumpet)은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를 가리킨다.

고 두 군데에서는 잘못 번역했다. 유럽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초츠라와 쇼파르를 구분하지 않고 트럼펫으로 번역하고 있다.

2.3.2. 쇼파르, 쇼파르 하요벨(rp'Av, lbeAYh; rp'Av; 호른²³⁾)

출19:16, 출19:19, 출20:18, 레25:9, 수6:4, 수6:5, 수6:8, 수6:9, 수6:13, 수6:16, 수6:20, 삿3:27, 삿6:34, 삿7:8, 삿7:16, 삿7:18, 삿7:19, 삿7:20, 삿7:22, 삼상13:3, 삼하2:28, 삼하6:15, 삼하15:10, 삼하18:16, 삼하20:1, 삼하20:22, 왕상1:34, 왕상1:39, 왕상1:41, 왕하9:13, 대상15:28, 대하15:14, 느4:18, 느4:20, 욥39:24, 욥39:25, 시47:5, 사81:3, 시98:6, 시150:3, 사18:3, 사27:13, 사58:1, 렘4:5, 렘4:19, 렘4:21, 렘6:1, 렘6:17, 렘42:14, 렘51:27, 겔33:3, 겔33:4, 겔33:5, 겔33:6, 호5:8, 호8:1, 율2:1, 율2:15, 암2:2, 암3:6, 습1:16, 습9:14

쇼파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이며 오늘날까지 외형의 변화 없이 유대교의 제의에 사용되는 유일한 악기이다. 또한 어느 악기보다 쇼파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쇼파르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이 악기의 쓰임이나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는 편이다. 쇼파르는 숫양이나 숫염소 같은 동물의 뿔로 만든다.

쇼파르가 나오는 곳은 모두 예순 여섯 곳이지만 고대역이나 유럽의 번역 성서에서는 하초츠라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번역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마흔 두 군데를 salpinx로 스물 다섯 군데를 keratine(호른에 해당하는 악기)로 번역했다. 한 군데는 누락되었고 네 군데에서는 오역을 했다. 불가타에서는 서른 여덟 군데를 buccina로 스물 아홉 군데를 tuba로 번역했으며 시98:6에서는 하초츠라와 쇼파르를 tuba cornea로 함께 묶어 번역을 했고, 네 군데는 누락이 되었다. 그 외 타르굼에서는 예순 세 군데를 schofara로 세 군데를 karna로 번역했고 한 군데는 누락되었으며 페쉬타에서도 karna와 schifura란 명칭을 썼는데 지속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모세 오경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하초츠라와 동물의 뿔로 만든 쇼파르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점차 하초츠라와 쇼파르의 구분이 줄어들면서 하초츠라보다는 쇼파르가 더 자주 쓰이기 시작한다.

2.3.3. 케렌 하요벨(lbeAYh; lr,q; 호른)

수6:5

케렌 하요벨은 한 번 등장하는데 쇼파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인다.²⁴⁾ 보통 숫양의 뿔로 해석하는데, 케렌은 특정한 악기의 이름이 아니라 동물의 단단한 부분 즉 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는 악기의 이름으로 쓰였다.

2.3.4. 한국어 성경 속의 하초츠라와 쇼파르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트럼펫에 해당하는 나팔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네 곳에서는 하초츠라와 쇼파르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 경우에 용어 선택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민10:2의 하초츠라는 은이란 재료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은나팔로 번역했고 그 외의 하초츠라는 모두 나팔로 번역했다. 쇼파르의 경우도 대부분 나팔로 번역했는데, 왕상1:34, 39, 41에서는 양각으로 번역했고 쇼파르

23) 호른(horn)은 짐승의 뿔로 만든 관악기를 가리킨다.

24) Sendrey, 228쪽.

하요벨림이란 표현이 나오는 수6:4-8에서는 ‘양각 나팔’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사6:34, 7:8, 7:16, 미1:11 등 네 곳에서 뿔피리로 번역했고, 대하13:12, 렘42:12, 호8:1, 암3:6 등 네 곳에서는 ‘비상 나팔’로 번역했다

구약에서 하초츠라와 쇼파르가 동시에 나오는 곳은 모두 네 곳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금속으로 된 하소르라와 뿔로 된 쇼파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나팔로 번역을 했는데, 동시에 등장하는 곳에서 사용된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대상15:18	쇼파르	각	뿔나팔	뿔나팔
	하초츠라	나팔	새납	나팔
대하15:14	하초츠라	피리	쇠나팔	쇠나팔
	쇼파르	나팔	뿔나팔	뿔나팔
시98:6	하초츠라	나팔	은나팔	나팔
	쇼파르	호각	뿔나팔	뿔나팔
호5:8	쇼파르	나팔	뿔나팔	나팔
	하초츠라	호각	은나팔	비상 나팔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 대하15:14의 하초츠라를 피리로 번역했는데 하초츠라나 쇼파르를 피리로 번역한 곳은 이곳 뿐이다. 개역에서는 피리를 목관악기인 우가브와 할릴의 번역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금속으로 된 나팔의 번역 용어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 외에 각과 호각이 한 번 씩 쓰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명칭이 쓰이지 않았다. 공동번역에서는 은나팔이란 용어를 두 번 썼는데, 고대어 성경이나 유럽어 성경에서 ‘은’이란 재료의 명칭을 넣어서 번역한 예는 없다. 대상15:18에서 뿔나팔과 새납을 쌍으로 사용했는데, 오보에 종류에 속하는 관악기 새납을 하초츠라에 대응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2.4.토프(@To; 트롬멜, 템버린)

창31:27, 출15:20, 사11:34, 삼상10:5, 삼상18:6, 삼하6:5, 대상13:8, 욥21:12, 시68:25, 시81:2, 시149:3, 시150:4, 사5:12, 사24:8, 사30:32, 렘31:4

토프는 여인들이 손에 들고 춤을 출 때 쓰이는 타악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충분히 고증되어 토프의 대략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다. 또 구약에 기록을 통해 사용법, 용도 등이 잘 드러나 있다.

토프의 지름은 25-30cm 정도로 템버린과 유사하지만 둘레에 장식이 없고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타악기이다. 재료는 나무로 만들고 모양은 대체로 둥글지만 삼각이나 사각 형태의 것들도 발견된다. 구약에서는 16군데에서 토프가 등장한다. 칠십인역에서는 timpanon으로, 불가타어에서는 tympanum으로 번역하였는데, 유럽어 성경에서는 트롬멜이나 템버린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열다섯 군데를 소고로 번역했고 창31:27은 북으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열세 군데에서 소고로 번역했고 시149:3, 시150:4, 사30:32에서는 북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은 창31:27만 북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고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의 대상16:5에도 소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오역으로써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이름은 현악기인 킨노르이

다.

2.5. 메칠타임과 첼첼림(~yIT;l.cim., ~ylic.l.c.; 심벌즈cymbals)

메칠타임 대상13:8, 대상15:16, 대상15:19, 대상15:28, 대상16:5, 대상16:42, 대상25:1, 대상25:6, 대하5:12, 대하5:13, 대하29:25, 에스라3:10, 느12:27

첼첼림 삼하6:5, 시150:5(2회)

메칠타임과 첼첼림이 심벌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고대어 번역 성서에서도 명칭상의 혼동이 없고 고고학적 증거도 충분한 편이다. 삼하6:5에서 보인 첼첼림이 평행구인 대상13:8에서는 메칠타임으로 교체되었다. 그 외 첼첼림은 시150:5에서 다시 등장하지만 첼첼림과 메칠타임은 거의 유사한 타악기로써 메칠타임이란 용어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메칠타임과 첼첼림은 동의어인지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악기에 해당하는 발굴품은 대체로 풍부한 편이어서 형태를 고증하기는 어렵지 않다. 발굴된 심벌즈는 지름 3-6cm 짜리와 지름 7-12cm 짜리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며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kimbalon으로 불가타에서는 cymbala로 번역하고 있는데 모두 심벌즈를 가리키는 말이며 대부분의 유럽 번역 성서에서도 심벌즈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제금으로 번역했고 대상15:19만 놋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의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 ‘제금(提琴)’의 한자어가 모두 잘못되었는데, ‘제금(提金)’이 올바르다. 공동번역에서는 대부분 바라로 번역했지만 시150:5에 나오는 두 번의 첼첼림을 한 번은 자바라, 한 번은 징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은 대부분을 심벌즈로 번역했고 스3:10은 자바라로 시150:5는 두 번 다 제금으로 번역했다.

2.6. 파아몬(!mo[]P;; 시스트럼²⁵⁾, 래틀)

출28:34, 출28:35, 출39:25, 출39:26

파아몬은 출애굽기의 두 곳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다. 이 소리 나는 금속 기구는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쓰이고 있다. 파아몬은 고고학적 발굴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구 형태의 방울, 작은 종이다. 칠십인역에서는 kobon으로 불가타에서 tintinnabulum이라고 번역했는데, 소리나는 작은 물건이란 뜻으로 방울, 종이란 뜻인데 반원이나 반구 형태의 딸랑이를 가리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네 가지 번역 모두 출28:33,24은 금방울로 출39:25,26은 방울로 번역했다.

2.7. 메나아님(~y[in>;n:m.; 시스트럼, 래틀)

삼하6:5

메나아님은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데, ‘흔들다’라는 어원을 지녔고 복수로 쓰였다. 칠십인역에서는 kimbalon으로 불가타에서는 sistra로 번역되었는데, 모두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25) 시스트럼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악기로, 손잡이가 달린 딸랑이, 요령이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시스트림(요령, 방울), 진흙 래틀, 뼈로 만든 래틀, 금속 래틀 등으로 엇갈린다.²⁶⁾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흔들어 소리 내는 기구를 발굴했지만, 그 중 어느 것이 구약의 이 기구와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양금으로 잘못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땡땡이, 표준새번역에서는 땡과리로 번역하고 있다. 양금은 울림판 위에 철사줄을 매고 채로 치는 현악이고 땡땡이는 종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땡과리는 오목한 철판을 쳐서 소리 내는 타악기이다.

2.8. 아체 브로십(~yviArb. yce[];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삼하6:5

이 표현은 삼상6:5에 한 번 등장하는데 복수 형태로 쓰였다. 일반적인 의미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이란 뜻이다. 이 표현을 구체적인 악기로 간주하여 번역한 성경은 없지만 음악학자들은 대체로 잣나무로 만든 딱딱이(케스터네츠)로 이해하고 있다.²⁷⁾ 삼하6:5의 평행구인 대상 13:8에서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라는 구절로 대체되어 있다. 여러 유럽어 성경들은 삼상6:5을 평행구인 대상13:8의 예를 따라 대체하여 번역했고,²⁸⁾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그 예를 따르고 있다.

개역,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은 각기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로 번역하였다.

2.9. 샬리쉬(viliv', 3)

삼상18:6

샬리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악기 이름으로 쓰인 곳은 삼상18:6 뿐이다.

샬리쉬는 ‘3’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에 따라 샬리쉬가 가리키는 악기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가지가 셋인 시스트림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 외 현이 세 줄인 현악기(킨노르 혹은 네벨), 트라이앵글, 삼각 모양의 킨노르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라서 유럽의 성경들도 막연히 악기, 현악기,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 등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1) 악기들(instrument of music, musical instruments)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제임스왕역, 새국제역, 새미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미국표준역

개역표준성서, 새제임스왕역

이탈리아어: 새디오다티역

프랑스어: 현대프랑스어성서

(2) 시스트림으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이탈리아어: 새성경 상파올로본

26) MGG 2판 Sachteil1, 1517쪽.

27) MGG 2판 Sachteil1, 1513쪽.

28) 새국제역, 개역표준성서, 새미국성서, 새제임스왕역, 새예루살렘성서, 루터역, 독일어 공동번역, 슬라흐터역, 프랑스 예루살렘성서, 새성경 상파올로본 등이 이 예에 속한다.

프랑스어: 예루살렘성서, 공동번역

(3) 트라이앵글로 번역한 성서들

독일어: 개정 엘버펠더역, 솔라흐터역

프랑스어: 새제네바역

이탈리아어: 새개역성서

(4) 심벌즈로 번역한 성서들

독일어: 개정 루터역, 공동번역

(5) 류트로 번역한 성서들

영어: 새국제역

(6) 그 외 독일어 루터역은 현악기로 번역(Geige; 바이올린)

개역과 개역개정판에는 ‘경쇠(磬-)’로,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는 ‘뽕과리’로 번역되었다.

2.10. 다니엘서의 악기들

단3:5, 7, 10, 1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단3:5)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악기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악기가 아닌 바빌론의 악기들이다.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세기 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빌론 시대이지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2세기 경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때이다. 또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악기 이름이 나오는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악기들은 바빌론의 악기이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악기 이름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섞여 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여섯 가지 악기 이름이 차례로 반복되어 나온다. 5절과 10, 15절에는 여섯 가지 이름이 순서대로 반복되고 7절에서는 마지막 이름이 생략되었다. 유럽의 번역 성경 중에는 7절에 생략된 마지막 이름을 보충해서 번역한 것도 있다.²⁹⁾

(1) 케렌(!r,q,)

케렌은 동물의 뿔을 가리키는 말로 수6:5에서 악기 이름으로 한 번 쓰였는데 쇼파르가 이에 해당한다. 개역과 공동번역에는 나팔로 번역되었다.

(2) 마쉬로키(yqiArv.m;)

‘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관악기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 명칭이 이스

29) 새미국표준성서, 미국개역표준성서, 새개역표준성서, 새미국성서, 새예루살렘성서, 독일어 공동번역, 프랑스어 예루살렘성서.

라엘에서도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악기의 형태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더블오보에로 추정할 수 있다. 개역과 공동번역에 피리로 번역되었다.

(3) 기타로스(srot'yqiii)

그리스어 kithara에서 유래한 말로써 리라를 가리킨다. 기타로스는 리라의 일종으로 그리스 시대에는 기타로스와 리라라는 명칭이 구분되어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리라로 통칭한다. 개역에는 수금, 공동번역에는 거문고로 번역되었다.

(4) 사쁘카(ak'B.f;)

그리스어 sambyke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sambyke로 번역했고 불가타에서는 라틴어 형식인 sambuca로 번역하였다. sambyke는 삼각틀에 네 줄로 된 고음의 하프인 것으로 평가된다.³⁰⁾ Sachs는 하프의 일종으로 생각했고³¹⁾ Kolari와 Bayer³²⁾는 리라로 여겼다. 바빌론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리라로 인정되지만 기록된 시기에 쓰인 용어는 바빌론에서 쓰던 악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악기를 이르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논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역에서는 삼현금으로 번역했지만 유럽어 성경 중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성경은 미국 개역표준성서(*The Revised Standard Versin*)과 새미국개역표준성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trigon이라고 표현했는데 trigon을 번역한다면 삼현금(三絃琴)이 아니라 삼각금(三角琴)에 해당된다. 그 외의 유럽 성서들은 리라, 하프, 쥘터 등으로 번역했다. 공동번역에서는 사현금으로 번역했다.

(5) 페싼테린(!yrlTen>s;P.)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psalterion에서 유래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하프나 리라로 혹은 쥘터로 평가한다.³³⁾ Sendrey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쓰였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네벨로 부르던 리라의 일종으로 평가하고 있다.³⁴⁾ 개역에는 양금, 공동번역에는 칠현금으로 번역되었다.

(6) 솜포네야(hy"n>Pom.Ws)

Sachs³⁵⁾와 Kolari³⁶⁾는 악기 이름이 아닌 ‘전체 앙상블’을 가리키는 말로 고증하였지만³⁷⁾ 유럽의 성경에는 관악기인 백파이프, 파이프를 비롯하여 현악기인 류트, 들시머, 타악기인 드럼 등 매우 혼란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새제임스왕역에서는 ‘전체 앙상블’을 나타내는 ‘in symphony’로 번역하였다. 개역에는 생황, 공동번역에는 통수로 번역되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악기들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으로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에서는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은 공동번역의 예를 따르고 있지만, 여섯 번째 악기의 이름을 풍수로 표현했는데 이는 통소의 오타로 보인다

30) Sendrey, 277쪽.
 31)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83쪽.
 32) MGG 2판 Sachteil1, 1530쪽.
 33) MGG 2판 Sachteil1, 1529쪽.
 34) Sendrey, 277쪽.
 35)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84쪽.
 36) Kolari, 82쪽.
 37) Sendrey, 304쪽.

다. 사현금과 칠현금은 만들어낸 용어이고 통수의 표준어는 통소이다

3. 우리말 성경에서 구약의 악기 명칭 번역에 대한 재고

개역의 나타난 악기 명칭의 문제점은 수금과 같이 임의로 만들어낸 추상적 명칭이 자주 등장하고 나팔과 같이 표준어가 아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선 거론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구약에 나타난 악기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공동번역은 개역과는 다른 문체로 번역을 했지만 악기 이름에서는 문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개역보다는 더 구체적인 악기 이름을 사용했지만, 표준어가 아닌 용어(소구, 통수, 나팔 등)를 더 많이 사용했고 한 가지 악기를 통일감 없이 번역하는 문제가 개역보다 더 많아졌다.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은 각기 개역과 공동 번역의 예를 따랐을 뿐 새로운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다.

3.1. 킨노르와 네벨

킨노르와 네벨은 개역에서는 수금과 비파 공동번역에서는 비파와 거문고 등으로 번역되었다. 비파와 거문고가 현악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금은 악기 자체가 존재했던 적이 없는 추상적인 명칭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수금이 하프르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개역의 오류가 국어사전에 반영된 결과이다. 비파³⁸⁾는 1900년대 초까지 사용되었던 국악기의 일종이고 거문고는 지금도 널리 쓰이는 악기다. 비파는 류트³⁹⁾에 해당하는 악기이고 거문고는 쥘터⁴⁰⁾에 해당한다.

킨노르와 네벨에 해당하는 악기를 우리말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 악기에 해당하는 리라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악기로 하프의 일종인 공후라는 악기가 있었지만 문헌에만 나올 뿐, 고려 이후에는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없다.⁴¹⁾ 실체가 없는 수금과 잊혀진 악기인 비파 대신에 구체적인 이름을 찾는다면 가야금과 거문고를 들 수 있다.

3.2. 우가브와 할릴

이 두 악기의 구조학적 명칭은 플루트 또는 오보에(혹은 더블오보에)에 해당한다. 개역에서는 통소, 저, 피리 등 세 가지 이름을 사용했고 공동번역에서는 피리와 통소를 사용했다. 통소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용되는 관악기이고 피리는 널리 사용되는 관악기이다. 저는 대금의 속칭이다. 통소와 피리를 사용한다면 우가브와 할릴에 적절히 대응시켜 사용해야 하는데, 통소보다 피리가 더 일반적인 악기인 만큼 할릴에 피리를 대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하초츠타와 쇼파르

38) 비파는 1910년 원구와 사직 등의 제의와 궁중 연례악이 폐지되면서 연주되지 않아서 주범이 상실되었다.(장사훈, 국악총론, 세광출판사, 214쪽) 90년대 들어서 다시 복원하여 연주하고 있지만 연주자가 매우 적다.

39) 류트는 울림통과 울림통에 연결된 운지판을 질러 현을 맨 악기로써, 안고서 도구나 손가락으로 탄다.

40) 쥘터(zither)는 울림통 위에 여러 줄의 현을 매고 무릎이나 탁자에 놓고 연주한다.

41) 장사훈, 국악총론, 241쪽.

금속으로 만드는 하초츠라는 트럼펫에 해당되고 뿔로 만드는 쇼파르는 호른에 속한다. 개역에는 나팔, 뿔나팔, 양각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팔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나팔은 나팔의 사투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서양의 금관악기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하초츠라와 쇼파르와 같은 악기를 보통 나팔이라고 하는데, 나팔은 통용되고 있는 국악기의 명칭이다. 좀더 명확히 분류하면 하초츠라는 나팔과 매우 유사하고 쇼파르는 각(角), 호각(號角), 대각(大角) 등으로 바꿀 수 있다. 하초츠라를 나팔로 번역하는 것은 자명하고 쇼파르는 각 혹은 호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4. 토프

토프는 작은북 즉 소고(小鼓)에 해당한다. 개역에서는 소고로 공동번역에서는 소구로 번역했다. 소구의 표준어는 소고이다.

3.5. 메칠타임, 첼첼림

메칠타임과 첼첼림은 심벌즈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개역에서는 제금으로, 공동번역에서는 바라, 자바라로 번역하였다. 제금(提金)과 바라, 자바라는 향발 등과 더불어 심벌즈에 해당하는 악기인데 이 중 바다가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다.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는 제금(提金)의 한자가 제금(提琴)⁴²으로 잘못 쓰여서 제금이 타악기가 아닌 현악기로 오해되고 있다.

3.6. 파아몬

파아몬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옷에 다는 장신구 방울로 나온다. 개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방울, 금방울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방울보다는 작은 종에 가깝다. 방울로 번역할 수 있지만 작은 종이나 요령 등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다.

3.7. 메나아님

메나아님은 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로 개역에서는 양금, 공동번역에서는 땡땡이로 번역되었다. 양금은 덜시머(dulcimer)에 해당되는 악기로 울림판 위에 금속 줄을 매고 채로 치는 악기인데 메나아님과는 거리가 멀다. 딸랑이나 요령 등이 메나아님에 해당된다.

3.8. 샬리쉬

샬리쉬가 가리키는 악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어 성경들에서는 악기들, 시스트럼(요령, 딸랑이), 트라이앵글, 심벌즈(바라, 향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에서는 경쇠(磬)로 공동번역에서는 썰과리로 번역되었다.

3.9. 다니엘서의 악기들; 케렌, 마쉬로키, 기타로스, 사쁘카, 페산테린, 숨포네야

42) 제금(提琴)이란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악기 이름으로 쓰인 적이 없다. 장사훈의 국악대사전에는 중국의 일후나 우리나라의 해금에 해당하는 악기로 설명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약기가 아닌 바빌론의 약기가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어 약기들은 바빌론 시대와 시기적으로 다른 헬레니즘 시대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크다. 이스라엘의 약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된 명칭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개역과 공동번역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없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용어와 새로운 용어를 섞어 쓰고 있다.

다니엘서의 약기들을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명칭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여섯 번째의 솜포네야만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케렌은 쇼파르와 상응하는 명칭을 쓰고, 현악기인 키타로스과 사쁘카는 킨노르와 네벨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마쉬로키는 우가브와 할릴 중 할릴에 상응하는 약기를 쓰면 될 것이다. 솜포네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명확한 명칭을 찾기 어렵다. 불가타역과 새제임스왕역의 예에 따라 ‘모든 약기들 혹은 관현악’으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번역들의 예에 따라 임의로 약기를 선택해서 번역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히브리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약기들의 구조적 특징과 고대어와 유럽어 성서에 번역된 용어, 그리고 한국어 성서에 번역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고대어 번역 성서에서는 약기 이름에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의 번역 성서에서는 점차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약기의 구조적 특징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번역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 외에 약기 이름의 선택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서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어든 한국어든 언어가 한 사회의 문화와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기 이름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약기 이름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어 채워 넣는 일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성서

(1) 한국어 성서

개역한글판, 개역간이국한문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2) 원어 성서와 고대역

Biblia Hebraica Stuttgartentia, edited by K. Elliger and W. Rudolph of the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Fourth Corrected Edition, 1966/1977/1983/1990.

LXX Septuaginta, edited by Alfred Rahlfs,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35.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edited by R. Weber/B. Fischer/J. Gribomont, H.F.D. Sparks/W. Thiele,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69/1975/1983.

(3) 영어 성서

제임스왕역 *The King James Versions*, 1611.

미국 표준역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미국 개역 표준 성서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새 영어 성서 *The New English Bible*, 1970.

새 미국 표준 성서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95.

새 제임스왕역 *The New King James Version*, 1982.

새 국제역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새 예루살렘 성서 *The New Jerusalem Bible*, 1985.

개역 영어 성서 *The Revised English Bible*, 1989.

새 개역 표준 성서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새 미국 성서 *The New American Bible*, 1991.

(4) 독일어 성서

구 엘버펠더역 *Unrevidierte Elberfelder*, 1905.

슐라흐터역 *German Schlachter Version*, 1951.

공동번역 *Die Bibel Einheitsübersetzung*, 1980.

개정 루터역 *Revidierte Lutherbibel*, 1984.

개정 엘버펠더역 *Revidierte Elberfelder*, 1993.

(5) 프랑스어 성서

루이 세공역 *French Louis Segond*, 1910.

예루살렘 성서 *La Bible de Jérusalem*, 1973.

새 제네바역 *Nouvelle Edition Geneve*, 1979.

공동번역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 1988.

현대 프랑스어 성서 *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e*, 1997.

(6) 이탈리아어 성서

새 디오다티역 *La Nuova Diodati*, 1991.

새 개역 성서 *La Sacra Biblia Nuova Riveduta*, 1994.

새 성경 상파울로본 *San Paolo Edizion*, 1995.

2. 성서 외 참고 문헌

MGG 2판 :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dited by Ludwig Finscher, Bärenreiter, Kassel, 1994.

MGG 1판 :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dited by Friedrich Blume, Bärenreiter, Kassel, 1958.

Grove 2판 :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Macmilan Publishers Limited, London, 1980.

Grove 3판 :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executive editor John Tyrrell, Macmilan Publishers Limited, London, 2001.

Alfred Sendrey, *Musik in Alt-Israel*, Deutscher Verlag für Musik, Leipzig, 1970.

Alfred Sendrey, *Music in Ancient Israel*, Vision, New York, 1969.

Antonius H. J. Gunneweg, 문희석 옮김,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신학연구소, 1996.

Bathja Bayer, *The Material Relics of Music in Ancient Israel and its Environs*, Tel-Aviv, 1963.

Carl Engel, *The Music of the Ancient Nations*, London, 1964.

Curt Sachs,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Frits A. M. Knuf, 1965.

Curt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1940.

Emanuel Tov,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Berlin/Köln, 1992.

Eric, Werner, *Die Musik im alten Israel*, from Neues Handbuch der Musikwissenschaft Bd.1, edited by Carl Dahlhaus; Laaber-Verlag, 1989.

Hans Renner, *Geschite der Musik*,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65.

Julius Willhausen, *Music of the Ancient Hebrew*, from The Book of Psalms, New York, 1898.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995.

Ronald E. Clements, 문동학/강성렬 옮김, 구약성서 해석사, 나눔사, 1976.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1996.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장사훈, 증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Abstract>

A Survey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ir Translation in the Korean Bible

Seong-sil Yi

Musical instruments in the Old Testament have not been known in detail for very long.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y gradually became better known, with the development of archaeological evidence in ancient Israel and other Middle East areas. The efforts of many musicologists has also given us more concrete information about them.

In my work I surveyed the systematic shapes of the instruments with the help of documents among the early translations of the Bible, especially *Septuaginta*, *Vulgate*, *Targum* and *Peshitta*, along with archaeological evidence.

I also reviewed the names of the instruments that appeared in European languages (English, German, French and Italian) in the central Middle Ages and tried to point out problems with their translation in Korean versions (*The Korea Revised Version* 1911/38, *Common Translation* 1977,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77,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98),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solution toward a better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전무용*

1. 들어가는 말

오래 전부터 어린이 성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동안 이런 저런 모양의 어린이 성경이 나왔다. 어린이 성경으로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은, 읽을거리로서 출판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성경을 주어야 하는가?

이 글은 어린이 성경을 만든다고 할 때에, 어린이 성경의 기본 문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제 1의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해 줄 필요가 있는 말들을 찾아내고, 그 말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제 2의 과제로 삼는다.

이 글은 대답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이 문제들을 과제로 삼고 논의를 출발한다.

2. 성경이 어려운 이유

2.1. 낱말의 차원

2.1.1. 한자어 문제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어린이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읽고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이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이 어려운 것은 어린이들에게만이 아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어렵고, 어른들에게도 어렵다. 『개역한글판』을 간이국한문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읽기 어려운 성경이다. 그저 한글을 따라서 읽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뜻을 알 수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 조건으로 제시한 ‘블레셋 사람의 양피(陽皮) 일백’을 ‘양피(羊皮) 일백’으로 오해하는 것이나,** 이는 예수님의 구속(救贖)을 ‘예수님이 나를 구속(拘束)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나, ‘유월절(逾越節)’을 ‘유월절(六月節)’이나 ‘유월절(滄月節)’로 오해하는 것이나, 모두 다 잘못된 이해이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본문을 한글로만 읽으면서 “총애를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

*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시인.

** 전무용,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성서한국』 1999년 여름, 제 45권 2호, 21-23쪽.

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찾아보기라도 하지만, 처음부터 “총명”으로 틀리게 이해해 버리면, 죽는 날까지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틀리게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쳤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창 29:31) 주님께서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역개정판』만 해도 한자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위의 『표준새번역』(개정판)과 대조해 보면, 문제가 한자어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이 『개역개정판』보다 뜻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다.

“제사장, 유월절” 등의 낱말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성경의 특성상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말들이다. 이런 말들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본문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낱말 사전은 필요하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경우에, 이 말이 어떤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인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한자어로 어떻게 적는지, 그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추석’이라는 말을 어떤 한자어로 쓰는지 모르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안다. 어린이 성경은, 성경을 읽는 어린이들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상당한 양의 난하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낱말 사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어린이용 편집판을 전제로 하여 난하주를 확장하는 방식이나, 낱말사전을 뒤에 따로 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여 어려운 낱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성경의 문화적 배경 이해와 관련된 문제

다른 예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 “犧牲(희생)”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천지나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산 짐승 특히 소나 양이나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던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뜻을 다 알 수 있는 말이다. 또 은나라의 탕왕이 자기 몸을 희생으로 바쳐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 고사를 알아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까지 다 알고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그것을 전혀 모르더라도, “희생하였다, 희생되었다, 희생 정신, 희생적이다” 등의 말은 흔히 쓰기 때문에, 한글로만 적어도 대개의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말이다. 의미의 배경이 아주 어렵다 하더라도 일상어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뜻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희생”이,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물, 또는 그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래서 『개역개정판』이 나왔고,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나왔다. 『개역개정판』의 본문은 이

부분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개역개정판』에서는 『개역한글판』보다는 의미상 보완이 되어서, “희생”의 본 뜻을 모른다 해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다음의 『표준새번역』(개정판)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판』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쉽다.

(창 46:1)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이 잘 되도록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번역한 성경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의미를 옮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읽어도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나왔다. 이제는 이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희생제사” 같은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을 알려고 국어사전이나 옥편이나 한문 자전을 찾아가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길로 가서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희생: ①신명에게 바치는 산 짐승. ②뜻밖의 재난 따위로 헛되이 목숨을 잃음. ③[납이나 어떤 일을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 따위 귀중한 것을 바침.*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테디바이블들의 한계 속에는 바로 이러한 문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국어사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반쪽 짜리이다. 고대 중국에서 이 용어가 생긴 배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서 사전을 찾아서 보아야 한다. 다음 낱말의 해설은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용어 해설”에 실려 있는 설명이다.

제사(식사) : 제사는 옛날의 모든 민족들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중요하고 성대하게 거행했던 예배 형식인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거나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으로 드렸다. 이스라엘에서는 초기에 숲한 지방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렸다(<신명기> '안내' 참조). 제사에는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가 있다. 피 없는 제사에는 과일과 빵과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이 속하고, 피 있는 제사에는 소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알맞다. 아주 중요한 제사인 번제*는 보통 하루에 두 번(출29:38-41)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렸다. 가장 일반적인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본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죽였다. 내장은 한데 모아 번제단 위에 바치지만, 잡아죽인 짐승의 고기는 제사 식사 때 성소에서 가족이나 회중*이 나누어 먹었다. 이 식사를 통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교제의 제사'로 옮기면 가장 그럴 듯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한 무리가 특별한 일(병이나 곤경에서 벗어난 것 같은)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일정한 경우에 드리기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감사제(이를 더러는 '찬양제'라고도 한다)를 구별할 수 있다. 뒷 경우에는 피 없는 제사 예물도 덧붙는다(레7:12-13).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무거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때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 『동아새국어사전』(동아일보사 편집국, 1994).

** 『해설관주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7, 독일성서공회판 해설.

집승의 피*로써 일정한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기름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레4장).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다(레6:17-23). 이 제사는 고의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속하는 효력이 있었다.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는 제사를 넘어서서 배상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고 또 알고서 일부러 지은 일정한 잘못들도 이 제사로 속할 수 있었다(레5:14-6:7). 소제(레2장)는 밀가루나 기름으로 구운 것이나 땅의 첫 열매 같은 천연물로 드렸다.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레5:11; 6:13-16; 민5:15)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제사와 결부시켜 드리기도 한다(민28-29장). 소제물 한 줌은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린다. 붉은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전제는 늘 다른 제사, 특히 번제와 결부된다(민28-29장). 향은 유향과 여러 다른 구성 요소들을 특별히 섞어 만들었는데, 이는 특정한 제사장 가문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했다(*향품*). 유향 섞은 것은 향로(레10:1)나 성소 안 쪽에 있는 분향단(눅1:9-10) 위에서 불살랐다. 예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다(그렇지만 마5:23-24; 8:4; 9:13; 12:7 참조).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구약 성경의 제사 의식보다는 사52:13-53:12에 나오는 하나님 종의 노래에 비추어 생각하시고 풀이하셨다(막10:45; 14:22-24병).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사 제도의 종말이자 완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했다(롬3:25; 엡5:2; 히9:14,26; 10:10,14; 13:10-13 참조). 그리스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배로 재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살아간다(고전11:23-26).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이 구원 행위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교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롬12:1, 15:16 참조). 이로써 새로운 제사장 직책과 새로운 제사가 생겨났다(벧전2:5,9; 계1:5-6; 5:9-10). 이 제사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벧전2:9; 히13:15; 계5:8; 8:3-4) 온 세상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이고(딤후2:1-6),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갈6:10; 빌4:18; 히13:16; 약1:27). 관련용어 : 번제, 화목제, 감사제, 속죄제, 소제.

어려운 한자어라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한자를 교육하고 있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어려운 한자어를 쓴 성경이라 하더라도, 잘 가르치면 어린이들이 배우지 못할 까닭이 없다. 5세나 8세에 한시를 썼다는 조선조의 한학자들을 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백 년 전의 한학자들이 배워서 썼던 문장들을, 지금 사람들이 배우지 못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따로 한자어들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낱말 차원의 문제 가운데서 한자어 문제만이 아니다. 번역어의 의미와 그 말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와, 이 말의 원어 곧 번역되기 이전에 사용된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문화적 배경까지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성경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이 언제나 부딪치는 과제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사용된 낱말을 설명하려면,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원어의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2.1.3. 전문 용어

어떤 말이든지 일상 생활에서 그 낱말을 늘 접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말이 어려운 한자어에서 온 말이든지, 영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반대로, 한 번도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결국 아무리 쉬운 말을 쓰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든지, 매번 새로 가르쳐 주어야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 어려운지,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 쉬운지도, 모든 사람에게 매양 같지가 않다. 매월당 김시습은 5세에 한시를 썼다고 한다.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가르쳐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수준으로 공부를 한 어린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은 그 속에 사용한 용어들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낱말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쉽거나 어렵다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접할 수 없는 낱말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추상어보다 사물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 또 사물어라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은 어렵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해 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어려울 것이 없다.

전문적인 용어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의 음역이기 때문도 아니고, 어려운 한자어나 라틴어 같은 말에서 온 말이기 때문도 아니다. 낱말 차원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데도 어려운 말들이 있다. 그 예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이다.

(행 27: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행 27: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 본문들에서, “고물, 닻, 이물, 거루, 킷줄, 돛” 들은 한자어가 아니라 토박이 말들인데도,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바닷가에 살면서 배를 생활의 도구로 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가 뱃사공이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접하면서 사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배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희생제사”와 같은 말은 성서 사전으로 찾아 들어가서 뜻을 알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물, 닻, 이물, 거루, 킷줄, 돛” 들은 성서사전을 보아야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다. 국어사전의 설명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들이다. 국어사전의 설명으로 뜻을 알 수 있는 말들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말의 뜻을 아는 일은 독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의 경우에는, “이물, 고물”과 같이, 더 쉬운 다른 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경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성경에서 낱말 사전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린이용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배의 그림을 넣고 거기에 각 부분의 이름을 적어 넣는 정도의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그림이라면 정밀 묘사의 성격이 있는 단색 펜화가 적합할 것이다.**

위 두 범주에서 살펴본 대로, 낱말의 층위에서의 쉽고 어려움의 문제는, 말 자체의 쉽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하는 문제와

*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호(2000), 김희자. 68-70 참조.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설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삽화가 있는 성경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 *The Learning Bible*에서는 ‘겨자’(1768쪽) ‘낙타’(1782쪽) 등의 동식물을 가는 선으로 처리한 펜화를 넣어서 보여 주고 있고, 332쪽에서는 신 6:8의 ‘손에 매거나 이마에 붙이는’ 경문 띠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언어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말은 따로 없다.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어렵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은 쉽다.

2.1.4. 어려운 낱말에 대한 해결책

쉽고 어려움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더라도 같은 여건 안에서 같은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GNB가 나름대로 성경 내용을 쉽게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쓴 성경인데, CEV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쉽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righteousness”라는 낱말을 살펴보면, KJV에서는 로마서에서만 33회를 사용하였는데, CEV에서는 로마서에서 이 말이 6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그 맥락에 맞도록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Therefore if the uncircumcision keep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shall not his uncircumcision be counted for circumcision? (KJV Ro 2:26)

If the Gentile, who is not circumcised, obeys the commands of the Law, will not God regard him as though he were circumcised? (CEV Ro 2:26)

여기서 보면, KJV에서 “the righteousness of the law”로 번역했던 말을 CEV에서는 “the commands of the Law”로 번역하였다. “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사물어가 추상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표준새번역의 번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용 성경의 편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더 쉬운 번역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쉬운 번역을 어린이용 성경의 설명 부분에 포함시켜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의미의 쉬운 표현으로 본문을 바꾸는 방법으로 어린이용 성경의 출판을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 새로 번역 과정을 처음부터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계획이고, 새로운 성경의 번역이 또 다시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계획으로, 결정된 번역 본문의 쉬운 표현을 찾아서 『표준새번역 어린이판』을 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문을 그대로 두고 난하주의 확장으로 ‘어린이용 편집’을 계획할 수도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는 이미 많은 난하주가 있어서, 어려운 말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에만 100개, 마태복음에만 192개의 난하주가 있다. 이들은 이미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낱말 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난하주를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다.

① 낱말 풀이인 경우.

경문 곱 “성경 구절이 들어 있는 곱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님”

표징 “12:38-38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복음 “또는 ‘기쁜 소식’”

② 그 낱말의 배경을 안내하는 경우.

유월절 “출 12:143, 21-28을 볼 것”

무교절 “출 12:15-20을 볼 것”

③ 원어를 밝혀 주는 경우.

일점 일획도 “그, ‘한 이오타’”

은전 “그, ‘스타테르’. 두 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함”

반석 “그, ‘페트라’

④ 음역된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경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달란트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십오년 품삯”

⑤ 달리 번역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경우.

계보는 “또는 나심은”

마태복음에서 어린이 성경을 염두에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들을 임의로 뽑아 보았다. 이러한 낱말에 설명을 더 붙이는 편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용 편집에 192개의 난하주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난하주를 더 확대한 ‘어린이용 편집’이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합심하다, 모태, 잉태하다, 태중, 고을, 유향, 몰약, 식물, 곳간, 의, 금식하다, 박해, 계명, 공의회, 자선, 엉경귀, 무화과, 희생제물, 혈루증, 정죄하다, 인자, 회당,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징조, 누룩, 겨자씨, 성전세, 맷돌, 완악하다, 보좌, 분개하다, 확, 제단, 제물, 불법이 성하여, 광야, 방주, 달란트, 창세 때, 옥합, 향유, 무화과나무, 방중, 세례, 등경, 들보, 희생제물, 정죄하다, 열두 군단, 인자, 보좌, 관저, 봉인하다, 예비일, 미혹하다.

마태복음에서 뽑은 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았다.

- 1) “확, 맷돌”과 같이, 기본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낱말들. 이 사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맷돌”과 성경에서 말하는 “맷돌”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 2)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낱말들. 이 말들은 배경까지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이므로 어렵다.
- 3) “음행하다”와 같이, 어린이들의 환경에서 접하기 어려운 낱말들.
- 4) “엉경귀, 무화과, 백향목, 녹보석, 당아새” 등, 동식물 광물의 이름들.
- 5) “사사, 선지자” 등 특별한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들. 이 말들도 그 일까지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 6) “救贖(구속), 人子(인자)” 등의 말들은 한자어로 적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있다.
- 7) “열두 군단, 봉인하다”와 같이 당시의 사회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
- 8) “나병, 혈루증, 중풍병” 등과 같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병.
- 9)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과 같이, 음역된 말 중에서 뜻을 알면 도움이 되는 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려운 낱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 낱말 사전을 실어 주는 방법

둘째, 사진 자료를 실어 주는 방법

셋째, 그림 자료를 실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낱말도 접하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를 확장해 가야만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찾아낸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르쳐서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르는 말도 배워서 알고 나면 그 순간 아는 말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본질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린이들이 읽을 성경을, 따로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한다면, 이는 복음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본문에 짐을 잔뜩 실어서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을 찾아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를 교육할 성경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일차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낱말의 경우에는 낱말 사전을 따로 붙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낱말 사전은 국어의 의미를 쉽게 밝혀주는 기능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이다.

2.2. 문장의 차원

표준새번역을 읽은 분들은, 이 성경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들의 말 속에는,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던 뜻을 알 수 있게 된 기쁨과, 잘못 알았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기쁨이 가득 담겨 있다.

“읽기 쉽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성경에서 사용한 낱말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낱말의 층위에서 생각한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사용한 적지 않은 한자어들은, 한자를 알아야 뜻을 알 수 있는 말들이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인자”나 “유월절”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않고 쉬운 말로 번역하였다. 이것이 『표준새번역』(개정판)이 어렵지 않은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머리) 속에 들어 있는 “독자 자신의 토박이 문장”과 일치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다. 자기의 방언이 있다. 자신의 ‘토박이 말’이 있는 것이다. 서울 사람에게는 서울 사람의 토박이 말이 있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의 방언이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토박이 말로 말하고 들을 때 가장 편하고 쉽고 자연스럽다. 우리 집에 놀러 온 아내의 친구가, 깨끗한 서울 말로 우리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자기 친정 엄마와 전화를 할 것이 생겼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느닷없이 본토박이 경상도 부산 사투리가 튀어 나왔다. 그 사람의 뇌에 기억된 언어 체계 속에 서울 말과 경상도 말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랭귀지가 독자적으로 살아서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2개의 랭귀지 체계가 토박이 말로 학습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랭귀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사춘기 전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와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을 데리고 이민을 가면,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는 3개월이면 새로운 언어를 완전하게 토박이 말로 배운다. 그 이후의 나이에 이민을 간 어린이는 3년이나 30년이 지나도 새로운 언어를 완전하게 배우지 못한다. 한 언어가 완전하게 자기의 토박이 언어로 고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배우는 언어는 영원히 외국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상도 어린이가 강원도로 이사하여 강원도 방언을 배우는 것이나, 서울 어린이가 전라도로 이사를 가서 그 지방 방언을 배우는 원리도 외국어의 학습 능력과 같다. 이미 그 이전의 언어가 토박이 언어로 고착된 다음에는, 새로운 언어는 영원히 2차 언어 또는 외국어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토박이 말이 가장 친밀하고 친숙하다. 그 말은 엄마의 헛바닥으로부터 배우는 말이다.

문장에도 이러한 차원의 ‘토박이 문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읽고 써 온 문장이 사람들의 토박이 문장이다.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는 그들의 토박이 문장이 있다.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읽고 써 온 문장이 그것이다. 편지를 쓸 때, 읽기를 쓸 때, 사람들은 이 문장으로 자기의 글을 쓴다. 그 문장이 자기의 ‘토박이 문장’이다. 사춘기 이전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문장언어가 그 어린이의 ‘토박이 문장언어’가 되는 것이다. 개역한글판의 문장언어를 가장 많이 접하게 하면, 어린이라도, 『개역한글판』 성경의 문장언어가 1차 토박이 문장언어로 머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한 어린이에게는 개역한글판의 문장언어가 전혀 낯설지 않게 된다.

젊은 세대에게 『개역개정판』은 문체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현재 학생 청년들이 학교에서 읽고 배우는 문장과는 문법적인 특징이 다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체적인 특징의 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또 하나의 랭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다.

언어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양상을 띄고 있는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중국어도 오랜 역사를 두고 변화해 왔다. 그 결과, 이천여 년 전에 기록된 논어나 맹자 대학 중용 등 고전 한문 문장들은 그 기록 자체로 내용이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읽히고 쓰여 왔다. 그 문장들은 유교 경전들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사용되던 당시의 일상어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일상어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차이는 두 언어 표현이 상당히 다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조차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고전 한문 문장들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물론 똑같은 한자를 사용하는데도 그렇다. 읽을 수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다. 반대로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논어 맹자를 배워서 고전 한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이 현대 중국어를 읽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현대중국어를 배운 사람은 물론 고전한문을 읽지 못한다. 이는, 서로 다른 랭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이다. 고전한문을 잘 읽을 수 있고, 그 한문으로 문장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입말이 없는 문장언어를 하나의 랭귀지로 습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한문을 입말이 없는 문장언어로만 읽고 쓸 수 있었다. 입말이 없는, 글말만 있는 랭귀지이다. 그 문장으로 논문도 적고, 신변 잡기도 적고, 역사 기록도 적고, 무엇이든 적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현재 어린이들이 배워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적어야 한다. 교회교육 안에서, 개역한글판 성경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개역개정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그 문장언어를 암송시키고, 아주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그 문장언어가 그 어린이의 머리 속에 토박이 문장언어로 자리잡도록,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

2.2.1. 백년 전의 토박이 문장

백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우리 말을 배우면서, 글말과 입말을 동시에 배웠다. 그 차이는 적지만, 그 당시의 글말들은 그 당시의 입말과 문법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으로 적던 문장 언어들은 그 당시의 입말을 그대로 반영한 글말들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 나름대로의 문법 형식을 갖추면서 내려온 문장언어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문장이라 해도 그 이전 시대의 오랜 삶이 녹아 들어가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입말이 그대로 글말(문장언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문장언어에는 두 가지 층위의 문장언어가 있었다. 당시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이 두 가지 층위의 문장언어들을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경전언해체*의 문장언어들을 배워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고,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으로부터 내려온 고소설의 문장들, 곧 순 한글 문체의 문장을 익혀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당시의 성경이 두 가지 문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다. 그 하나가 『구역』이고, 다른 하나가 『국한문(선한문) 성경』이다. 이 두 가지 문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둘 다 현실 입말의 반영은 아니다. 국한문 성경의 경전언해체 문체는 한문 유교 경전의 번역으로부터 형성된 문체로서, 개념어는 모두 한자어이고, 조사 어미만 한글을 사용하는 문장이다. 구역의 문장은 전통적인 순한글 문체로서, ‘-라 종결형’ 문장인데, 우리말 보통의 입말은 ‘-라 종결형’을 사용하는 입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말도 있다. 어떤 지역의 방언들은 입말의 종결형으로 “아이라, 기라, 아니어라, 기(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지라” 등, ‘-라’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종결형이 오랜 기록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의 글말의 종결형으로 정착 사용된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등 어떤 지역의 방언들은 “아니아/여, 기야/여, 이리 와(아), 저리 가(아), 그러” 등 ‘-아/어, -야/여’를 종결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말들이 현대소설의 지문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중이 사용하는 평서형 글말의 종결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혹시, 개인들의 편지글들로는 사용된 적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문 잡지의 기사 등의 평서형 문장의 종결형으로는 채택된 적이 없다. 이는 엄밀하게 말할 때, 입말과 글말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한문 성경』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지식인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토박이 문장’이, 한문을 익히면서 읽었던 ‘경전언해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문을 읽은 세대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문장으로 된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었다.

그 반대로 1911년에 출간된 『구역』 성경은, 문장의 기본 종결형을, 당시의 일반적인 문장 어법을 따라서 ‘-라’ 종결형으로 하였다. ‘-라’ 종결형의 문장 어법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길동전 등의 고대소설의 문체로 이어지며, 이는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옛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그 당시의 입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입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장이었다. 그래서 1938년의 개역과 1952년 이후의 개역한글판과 1998년의 개역개정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아 왔다. 이 성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옛 문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경전다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국 교회의 보수성 때문이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개역의 문체가 입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개역의 문장 언어는 이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거의 외국어에 준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랭귀지이다. 그들의 언어가 아니다. 그들은 이 문장으로 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 결심을 하고서 성경을 통독하려고 달라붙어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그들의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흔히 “국한문혼용체”라고도 하는 문체인데, 성경에서 “간이국한문”이라고 한 문체와 구분하여 “경전언해체”로 부른다. 다음 “기미독립선언서”가 바로 이 문장이다.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 한글 문장의 문체에 대해서는, 줄고,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호, 90-109쪽 참조.

*** 위의 글 참조.

**** 전무용, 위의 글 참조.

2.2.2. 현대의 토박이 문장과 새로운 번역 성경

지금 글말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다’ 종결형 문장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신 문물을 받아들인 세대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으며, 춘원과 육당의 신문학 작품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시대를 거쳐 일반화된 문장 언어이다. 흔히 ‘-라’ 종결형 옛 문장들을 문어체라고 하고, ‘-다’ 종결형의 새로운 문체를 언문일치의 구어체 문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다분히 인상적인 평가이다. 오늘날의 신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문체인 ‘-다 종결형’ 문장은 오늘날의 입말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글말이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높임의 뜻을 담은 입말로는 ‘-오/요’를 종결형으로 붙이고 있지만, 이것도 신문 잡지 등의 일반 평서문의 문장언어로 정착된 적은 없다. 높임이라는 형식이 담고 있는 주관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 때문이겠지만, 사실 ‘-요’를 종결형으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실제로, 언중들 앞에서 사용하는 입말로는 ‘-오/요’를 종결형으로 하는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중고등학교 교실에서나, 교회학교 설교에서나, 형식적으로 좀 가벼운 모임에서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말의 종결형으로 ‘-요’ 종결형 입말은 아주 부담 없이 흔히 사용되는 언어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러한 종결형을 정식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이러한 종결형의 장점은 친밀감이 있다는 점과, 입말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을 때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점 들을 들 수 있다. 글말과 입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

단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이 입말이 일반적인 글말의 종결형으로 채택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문제를 알 수 있다. 위에서든 말했지만, ‘높임’이라는 형식에는 말하는 이의 인격성이 내포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저히 객관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문이나, 논문의 논술 등은 객관성을 요구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말하는 이의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러한 문장 언어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이, 형식적으로는 주관성이 있는 종결형을 피해서, 객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쪽의 언어 형태를 종결형으로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언어도 말하는 이가 배제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다’ 종결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말하는 이의 말인 것이다. 지금 이 글도, 중립성이 있는 ‘-다’ 종결형 문장으로 적고 있지만, 말하는 이인 필자가 문장과 사유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로 진술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한, 화자조차 배제되는 객관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 (1) 그래도 지구는 돈다.
- (2) 그래도 지구는 돌아요.
- (3)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 세 문장에서, (2)와 (3)이라고 해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 자체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3)의 언어는 해방 이후에 아동문학 작품의 언어로 시도되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 박창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해방 이후에 아동문학을 하는 분들에게 ‘습니다’ 체의 종결형으로 문장을 적어 보도록 권유했다고 하고, 그 권유를 받아들인 아동문학 작가들이 이러한 형식의 종결형으로 좋은 작품을 넘으로써, 새로운 종결형이 아동 문학 작품을 위한 종결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문장이 문학의 언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습니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은 문장이 문장언어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문장이 문장 언어로 정착된 것이다. 당시의 아동문학 작가들이 (2)의 문장을 아동문학의 문체로 채택을 했다면, 이 도 또 하나의 정식 문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새로운 문장이 성경의 번역에 본격적으로 채택이 된 것은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이다. 이 성경은 위의 (3)의 문장 형식을 기본 문체로 하였다.

(신약전서새번역 1967, 마가 4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나님
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
으라.”

개역한글판의 성경에 비해서 볼 때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습니다”라는 입
말형 종결형을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경이 나오고 나서 1972년에
『공동번역 신약전서』가 나온다. 이 성경의 국어 문체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들 수 있
다. ‘인자(人子)’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할 만큼, 한자어를 토박이 말로 풀어서 적었다는 점이
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씨를 “-니다, -시오”라는 격식체 문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1967년에 신약을 번역할 때에 이미 많이 연구가 되었다. 당시의 설문 결과를 보면 아
주 흥미롭다.*

1. 시문체(時文體) 곧 “하였다” 조를 사용할까? (73%)
현대 성경에 사용된 경전체 중 “하였느니라” 조를 사용할까? (27%)
2. “가라사대”를 그대로 둘까? (33%)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되”로 할까? (67%)
3. 예수의 말씀을 모두 경어로 할까? (59%)
현재 성경에 있는 대로 할까? (20%)
예수께서 공중연설 조로 말씀하신 데는 경어로 하고 개인 대화에는 “하였느니라” 혹 “하
였다” “아니하였느니라”로 할까? (24%)
4.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고어라도 보존할까? (21%)
고어는 전부 없앨까? (76%)
5. “당신”의 사용
하나님을 “당신”이라 불러 어떠한가? (좋은 17%)
“당신”을 아니 쓰면 그것을 대신할 좋은 이인칭 대명사를 지적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 주님)
6. 성경에 $\alpha\tau\omicron\varsigma$ 를 “떡”이라 번역하였는데, 이를 “빵”이라고 번역하면 어떤가? (67%)

1961년 당시의 설문 조사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전부 격식체(경어)로 하는 것을 지지한 것이
59%였으나, 1967년의 번역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1972년의 공동번역 신약전서에 이르
러서야 번역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번역이 출간된 뒤에 교계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그
리하여 1977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비격식체(반말)로 고쳐졌다.

(공동번역 1972, 마르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 정용섭, “성서 개역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서한국』 7권 2호, (1961. 4.) 6-13쪽. 묶음표 안의
%는 그 문항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 하셨다.

(공동번역 개정판 1977, 마르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논의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이 두 가지 문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높임말을 쓰도록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견해와, 예수님을 예의 없는 분으로 만들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개정된 것은, 의미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히 1900년 전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용어로 되돌아간 것이라면 사용자들을 고려한 보수적인 정서가 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과 이를 바탕으로 개정한 『표준새번역 신약』(1993, 2001)은 기본 문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막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신약전서 새번역』(1967)이 “선포하셨습니다”로 번역했던 것을, 『표준새번역』(1993, 2001)은 “선포하셨다”로 번역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차이이다.

“떡”과 “빵”은,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에서는 “떡”으로, 1972년 이후의 공동번역에서는 “빵”으로, 1993년의 표준새번역에서는 “빵”으로, 1998년의 『개역개정판』에서는 “떡”으로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매번 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다. 용어의 선택이 다만 의미상으로 어떤 낱말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낱말이 주는 정서적인 느낌까지도 심각하게 용어의 선택에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한 평생을 “떡을 떼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느껴온 사람도 있고, “빵”이라 하면 종로 한복판에서나 만날 수 있는 뉴욕 베이커리 같은 아주 모던한 분위기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다고 하면 의미상의 동등성을 논하기 이전에 정서적인 거부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마련이다. 흔히, 제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한 세대가 더 걸린다고 한다. 성경 본문의 변화는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쉽고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번역어의 표현이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성경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성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대전제이다. 그리고 그 문장언어는 언제든지 입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입말과 다른 문장언어는,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언어와 같이, 그냥 눈으로 읽어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소리를 내서 읽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 성경은 어른 성경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점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읽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입말이 성경의 기본 문체가 되어야 한다.

2.2.3. 글말형 문장언어와 입말형 문장언어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언어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언어는 ‘-다’ 종결형 문장으로서, 또 하나의 글말형 문장이다. 이 문장이 곧 사람들

의 머리 속에 있는 문장언어이다. 이 문장은 입말 그대로가 아니다. 이 문장으로 읽거나 쓰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이 문장을 소리 내서 입말로 읽으려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생긴다. 입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들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입말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방송국의 방송용 언어들과 방송용 기사들은 철저하게 입말을 전제로 기록된다. 이는 신문사나 잡지사의 문장과 방송국의 방송용 문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개역한글판』을 읽는 독자들은 개역 성경이 시적인 운율이 있다고 말한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을 『개역』과 비교해서 말할 때, 이 문제는 간간이 언급된다. 이것은 개역의 옛 문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측면의 모든 언급은, 개역 성경의 글말의 뿌리가 입말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소리를 내서 읽어 보면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다. ‘-다’ 종결형 문장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된소리인 ‘ㄷ’ 소리만 두드러지게 들린다. 모든 말이 “-았/었다”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이 문장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왜 한국어에는 그렇게 ‘ㄷ’ 소리가 많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라’ 종결형 문장은 소리 자체의 느낌이 된소리인 ‘ㄷ’ 소리보다는 훨씬 부드럽다. 무엇보다도 ‘-다’ 종결형 문장은 입말이 아니다.

말이란 기본적으로 입말을 말한다. 입에서 소리를 통하여 귀로 전달되는 것이 말이다. 글말은 입말을 담아두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이다. 성경의 본문은 입에서 귀로 전달되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언제든지 다시 입으로 읽고 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경은 회중이 함께 소리 내서 읽는 책이다. 혼자서 눈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읽는 책이다. 언제든 입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른들의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낭송용 테이프로 제작한다거나, 영화 필름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본문 그대로 입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입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까닭은, 어린이들에게는 입말이 더 오랫동안 배운 말이기 때문이다. 글말은 배우고 있고, 또 배워나가지만, 아무래도 2차 언어이다. 입말이 더 친숙하고 가까운 수밖에 없다. 그들의 머리(마음) 속에 있는 랭귀지와 가까운 말로, 아니 바로 그 말로 된 성경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2.3. 역사와 문화의 차이

우리 나라의 이야기도 백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당시의 삶의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백년 전으로 갈 것도 없다.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한다는 이야기나,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나, 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이다. 하물며 이천 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각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의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이나 저자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을 간단하게 안내해 준다면 독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룻기에 나오는 “수혼법(嫂婚法)”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사용했던 “무릿매”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 설명해 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시공간적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특히 본문의 내용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살펴야 하리라 생각한다.

3. 어린이 성경을 위한 문체의 검토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출간되어 나오고 나서, 시편 검토 및 개정의 책임을 맡았던 번역자께서 시편의 문체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시편의 기본 문체를 “하였다” 체로 할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체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시편 안에는 기도문도 있고, 독백적인 진술도 있고, 일반적인 서술문도 있고, 내용의 특성상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기본 문체는 ‘하였다’ 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였습니다” 체로 되어 있다. 문체에 대한 그 번역자의 언급은, 기본 문체로 ‘하였다’ 체로 번역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체는 시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제이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일반 서술문을 “하였다” 체로 ‘-다’ 종결형의 문장으로 하였고, 바울의 편지들은 한 개인이 교회들에게 한 편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습니다” 체로 번역을 하였다. 한 사람의 사도가 공중에게 전하는 말의 말씨를 비격식체인 반말로 할 것인지, 격식체의 정중한 말씨를 써서 하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성경 각 책의 문학적 형식에 따라 문체를 조정한 것이다. 문학적인 양식에 따른 차이를 문체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는 그 이전에 일반적인 서술문의 종결형을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그것의 내적 외적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제는 성경은 입으로 전해지던 것을 글로 기록한 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전제는 글말은 입말을 글에 담아둔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전제는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책이라는 점이다. 물론 혼자서 눈으로만 읽을 때도 있지만, 기록된 글말은 공중이 함께 읽을 때에는 입말로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네 번째 전제는, 글말은 입말로 살아나기 위한 잠재적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서술문을 지금의 입말 형태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말은 “-입니다” 체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담화문이 그렇고, 방송 뉴스의 모든 입말이 그렇다. 그 밖에 모든 공식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입말이 사용된다. 이 입말체 문장을 그대로 어린이 성경의 기본 문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어린이 성경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문장과 문체도, 『신약전서 새번역』(1967)의 문체처럼 ‘입니다’ 체의 문장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니다’ 체의 입말은 말하는 이가 전제가 된다. 말하는 이의 주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신문 기사나 학술 논문이 ‘-입니다’ 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가지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문체로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이다.

성경의 기본 문체를 정함에 있어서, 높임의 개념이 있는 종결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시대의 수직적인 계급의 높낮이를 뜻하는 높임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사용하는 수평적 사회의 정중함 또는 예의 바름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격식체 어법이다. 국민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하고 말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직적으로 교사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수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상대하는 교실에서, “너희들 잘 있었니?” 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다. 언어를 ‘높임’과 ‘낮춤’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이미 전근대적 봉건적인 사유 형식에서 나온 문법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격식체, 비격식체’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내용에 더 정확하게 어울리는 방식이다.

다음 두 본문을 누군가에게 읽어 준다고 생각해 보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입말로 이 내용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면,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그대로 입말로 이 내용을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어색하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듯이, 편안하게 이 본문을 소리 내서 읽어줄 수가 없다. 다음의 본문을 읽어 보자.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어요.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이 본문이라면 훨씬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다. 성경 본문을 성우들이 그대로 구연을 한다고 할 때에, 앞의 본문으로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된 본문으로는 그대로 구연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입니다’ 체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만 ‘하였다’ 체로 된 것을 읽는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성경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말로 전환하여도 그대로 입말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습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이렇게 된 본문을 읽어준다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대로 입말로 바꾸어서 읽어줄 수가 있다. 아무도 입말로 말하지 않는 문장 형식을, 성경의 본문의 기본 문장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특별히 귀로 듣는 성경은 입말형이어야 한다. 병원의 환자들, 수족장애인들, 교포들의 언어 학습용, 문맹인 독서장애인성경, 운전기사와 같이 특수한 환

경에 있는 직업인용 성경, 이러한 낭송용 성경은 입말형이어야 한다.

입말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개인의 일기를 쓴다고 하면, ‘-쓰다’ 종결형의 중립적 문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입말로 바꿀 필요가 있는 글말이라면, 다른 변환 과정 없이 그대로 입말로 바꿀 수 있는 문장 형식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방송국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읽는 기사문을 쓴다고 할 때에 기본 문장을 ‘-했다’ 종결형으로 하고, 읽으면서 그 순간 이 문장을 다시 ‘-니다’ 꼴로 바꾸어서 읽는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번잡하겠는가? 당연히 방송에서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원고 문장은 ‘-니다’ 체로 작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만 읽고 입말로 다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신문 기사문은 “-다” 종결형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어색해 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본 문장 문체가 지금처럼 ‘다’ 종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본문 형식에 눈으로 읽는 문장의 성격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말과 글말이 같다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친밀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우리 모두의 머리 속에는 ‘-쓰다’ 종결형의 글말 체계가 또 하나의 문장언어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글말을 많이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장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모든 문장에서 ‘-습니다’ 체의 글말을 더 적게 접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니다’ 체의 글말이 좀 더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글말보다는 입말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입말과 같은 글말이 궁극적으로는 더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 자명하다.

4. 어린이 성경의 편집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려운 낱말을 정할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 주어야 할지,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수용 가능할 것인지 하는 점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성경은 전체의 분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들고 다니기조차 무거울 정도로 책이 두꺼워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글씨도 너무 작으면 안 될 것이고, 책도 지나치게 두껍거나 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에 글자가 뻑뻑한 낱말 사전을 만들어 준다면, 어린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림을 넣는 것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어린이들이 성경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사진보다는 실감이 떨어지겠지만, 그림은 사진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먼저 편집 실무자가 전체의 분량을 고려하여 몇 페이지마다 몇 개의 그림을 넣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고, 성서학자가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에 필요한 그림 설계 문건을 작성하되, 기계적으로 편집자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감을 허용하여 ‘그림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계획서가 나오면, 먼저 그 가운데서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과 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선별하여, 그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밀묘사의 펜화는 칼라로 인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칼

* 대한성서공회 성서교육문화센터에서,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서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 일이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그림을 보내 왔고, 매우 인상적인 좋은 그림들이 있었다. 편집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작성한 ‘그림의 계획서’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그림의 제목과 그림에 들어갈 내용으로 공시하여, 한국 어린이들이 저마다 그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리게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성경 그림을 어린이 성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쇄를 전제로 한다면, 한국화(또는 동양화)의 전통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수채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밀묘사보다는 내용의 특징만을 드러내는 방식의 캐리커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굿뉴스바이블』에 실은 애니 발로통*의 그림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사람을 그린다 할 때에, 가장 보편적인 느낌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으로 그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종간의 차이나 민족 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을 띠는 그림이 된다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과 한국 교회의 미래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주고서, 그들이 이해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그 문장으로 성경을 읽어 왔는데, 너희는 왜 못 읽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텔레비전이며 컴퓨터며 비디오며,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이며, 이러한 온갖 일 속에서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금의 어린이들을, 읽을 것이 성경밖에 없던 시절의 어린이들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낱말들과,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문장으로 번역한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의 마음(머리) 속에 들어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과 달리 된 문장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개역한글판 성경을 독서용으로 준다면 불과 한 쪽도 다 읽지 못하고 책을 던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토박이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어려운 성경을 팽개쳐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 버린다면,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근래에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거나, 삼분의 일로 줄었다고 하는 보고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주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틀림없이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채로 변죽만 울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유초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라나고 있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30년 60년 100년 후의 한국 교회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Annie Balloton. *Good News Bible* 속에 들어 있는 삽화를 그린 사람.

<Abstract>

Literary style proposals for a Korean children's Bible

Mu-Yong Jeon

1.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literary style for a children's Bible.
2. It seeks to envision a Bible that can be read easily by children in terms of vocabulary and phrasing.
3. Whenever possible, the words of a children's Bible should be translated into the easiest ones available if the same content can be delivered. In case this is not feasible, it is recommended to edit the page by adding footnotes or illustrations easily understandable to children.
4. The Bible is a book that is read aloud in church groups. It therefore should be composed of sentences that can be read verbally without conversion.
5. The task of producing a Bible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read by children marks the first step of preparations for the future Korean church, in 30, 60 or 100 years' time.